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3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5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생선공양 노인봉양

2일 아침 6시. 속초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최세영씨(46)는 막 퍼지기 시작하는 햇살을 마주보며 아직 찬바람이 부는 부둣가로 차를 몰았다. 생선 비린내가 물씬한 어판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보살님, 이 오징어 싱싱해요? 저 고등어는요?"

"방금 바닷가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젠 빛깔을 보면 아시잖아요?"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멸군데서 흥정을 하던 최씨는 가장 싱싱해 보이는 오징어 두 상자와 동태 두 상자를 사기로 했다. 4년째 최씨와 거래해 온 노보살도 여느때처럼 값을 후하게 깍아준다.

승용차에 어물을 싣고 달려간 곳은 교동에 위치한 속초종합사회복지관내의 장수식당. 식당 주방에 있던 두 명의 직원과 3명의 봉사자들이 얼른 달려와 어물을 내린다.

"최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아직 쌀쌀한 날씬데." "뭘요, 늘 하는 일인데요."

최씨가 장수식당에 한달에 두번 생선을 보



시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관이 개관한 때인 5년전. 재정 부족으로 복지관의 부식이 부실한 것을 안타까워 하던중 10명의 설악자비회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 어판장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가능하면 새벽 첫 배에 실려오는 펄펄 뛰는 어물을 샀다. 생명력이 넘치는 어물을 노인들에게 공양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 장수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대부분 월 10~13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보호대상자다. IMF이후에는 찾는 노인이 30여명 늘어 120여명에 달한다. 영양상태가 부실한 노인들에게는 단백질이 필수적. 최씨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 육류보다는 생선을 늘 준비해 왔다.

최씨가 이처럼 노인봉양에 정성을 기울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25년전 48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살아계신 노모의 조건없는 사랑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기 때문이다. "이곳 노인들은 대부분 물봐줄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요.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도 못하죠. 그분들의 자식 노릇 한다는 생각에 언제나 즐겁습니다." 〈김재경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보문당 등 대형 서적도매상 잇단 부도

교계 출판사도 '태풍권'

불서 발간 급감…"출판 전문화-유통단일화 해야"

출판업계를 휩쓸고 있는 부도회오리가 교계 출판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2월말 국내 최대 서적도매상 보문당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계출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곳만도 10여곳. M사 2억여원, D사 1억여원, B사 6천여만원 등 피해액만도 4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매상 순위 2위인 송인서림 등 크고작은 도매상과 서점의 부도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IMF한파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려온 교계 출판사들은 올해 출판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출판자체를 포기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1·2월 두 달동안 출간된 책은 모두 20여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일부 출판사는 아예 출간계획을 무한정 보류키로 하는 등 부도여파는 점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한 출판사의 경영책임자는 집까지 처분하며 부도위기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교계출판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말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교계출판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불교출판계는 불황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유통구조 단일화와 출판전문화를 통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불서전문 유통구조가 단일화될 경우 관매망 확보와 운영비 절감으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또 출판전문화는 청소년 주부 등의 독자층과 경전 소설 등 출판종류를 기술적으로 묶는 출판전문화 역시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사찰도서관의 확충과 종단의 지원도 절실하다. 사찰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불서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 구매력을 높이고 포교에서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대량구매 방법 등을 통한 각 종단차원의 지원도 출판사가 마음놓고 양서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한명우 기자〉

13~19일 자비의 거리탁발

한민족돕기 기금모금…실직자 · 북동포 고통분담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13일부터19일까지 서울을 비롯 전국교구본사및 주요사찰에서 봉행된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펼쳐지는 자비의 탁발은 부처님 열반절인 13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에서 '탁발의 날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등 중앙종무기관장과 종단 중진스님, 직할사암 주지및 신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거리탁발은 선포식에 이어 조계사에서 탑골공원 구간에서 실시된다.

조계종은 모금되는 성금을 북녘동포 돕기와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으로 사용한다.

선학원 용운선원 탈원

조계종에 등록절차

선학원소속 용운선원(주지 성호)이 최근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하기 위해 선학원 탈원공고를 냈다. 용운선원은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게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칼럼 23면〉



산사에 핀 동백…"정토의 소식"

IMF의 한파 속에서도 동백은 활짝피어 정토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동백꽃 숲을 거닐면 경제난에 억눌린 마음을 달래보자. 꽃 진 자리에서 피어 오르는 삶의 새희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강진 백련사는 이달 중순, 전북고창 선운사는 4월 초에 동백이 만개할 전망이다. 〈강진=고영배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온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종선사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례원 · 도리사, 용성스님 유물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갑니다.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륜〉을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례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 발: 3월 15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 '각해일륜'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협찬:일양약품 주관:혜초여행사

북동포에 국수 보시합시다

본사는 나날이 더 해가는 식량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를 돕기 위하여 '금강국수공장후원회'와 공동으로 후원금 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조국광화통일불교협회는 97년 12월 29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가곡 '성불사'로 우리에게 참 알려진 천년고찰 성불사(成佛寺)가 있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 했습니다.

국수공장은 3월말부터 가동되며 어린이와 학생 및 불교신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급식되고, 매월 20톤(약 5천달러)의 밀가루를 조불련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사는 '금강국수공장후원회'와 함께 후원보시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조불련에 지정기탁할 것입니다.

정성어린 작은 보시는 평화통일의 디딤돌과 인간방생의 참 보살행이 됩니다.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동참하시어 큰 복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공덕탑을 쌓읍시다.

■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원가입

◇후원회원: 매월 1천원 이상
◇일반회원: 매월 3천원 이상
◇운영회원: 매월 1만원 이상
※ 일시불 후원 보시금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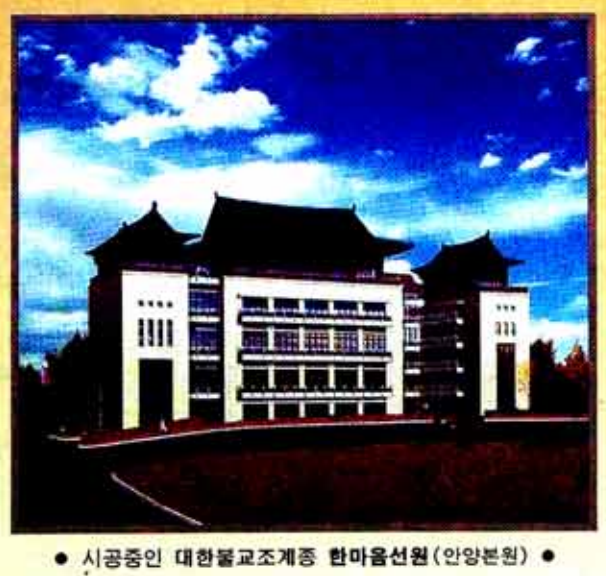
■ 은행계좌 및 지로번호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 협: 053-01-237065 예금주: 금강국수
우 체 국: 010041-0302852
지로번호: 7602812
※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 동참하신 분은 팔공산 은해사에서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수시로 후원금 모금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2)735-5559

현대불교신문사 · 금강국수공장후원회

초일류 종합건설 - 효성건설

IMF시대에도 완벽한 佛事를 이루어 내는 기업
효성건설이 만드는 하나되는 세상



● 시공중인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안양본원) ●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효성건설이 열어갑니다

사람, 자연, 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빌라문화를 도입한 효성건설은 고객제일주의의 책임시공과 철저한 A/S로 고객 속의 건설 전문회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건설은 대형토목공사, 환경분야, SOC 사업 및 해외건설부문 등의 다각화로서 세계의 효성건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연, 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주) 건설부문
효성건설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8-6 YBM 청담빌딩 TEL 02)515-1025

사 설

탁발과 고통분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봉행된다. 이번 탁발은 열반재일인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종단의 결단이며 부처님의 자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넓고 깊은 8만4천 법문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두 욕심을 줄이고 육바라밀의 실천강령을 구현할 때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불국정토가 앞당겨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6·25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남쪽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속에서 경제파탄에 직면해 있다. 한편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북쪽은 식량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한쪽은 달러원조를, 다른 한쪽은 식량원조를 외국에 요청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남북한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운 사회 경제적 고통을 덜고 출가수행자로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된 한민족돕기 탁발불사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한 큰스님들을 비롯한 불교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호국불교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새겨보게 된다.

이번 자비의 탁발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선 현정권은 이러한 불교계의 호국, 구국정신의 실천이 담긴 뜻을 잘 이해하고 적극 후원해 주어야 한다. 진정한 국민정부로서 국민의 소망인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무능과 부패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삼정권 기간은 실제로 남북관계의 공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의 독단적인 깜짝쇼는 통일분야에서도 연출되었던 것이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거의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극히 제한된 환경속에서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식량돕기운동이 겨우 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제 김대중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바대로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남북한교류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계는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불교계는 여러 곳에 고통받는 실직자를 위한 자비의 쉼터를 마련하고 귀농학교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실질적인 구호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휴식하는 곳을 제공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갖추게 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대안사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재벌등 가진 자들에게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회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불교계가 지원하는 북한국수공장의 건설은 통일을 향한 한민족공동체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번 탁발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이 공장이 예정대로 3월말부터 가동되어 북한동포들이 남한불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국수로 다소나마 허기를 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자비와 보시행에 적극 동참하자.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심을 과감히 버리고 밝은 광명의 사회, 민주통일정토를 위해 서로서로 등불이 되자. 한량없는 보시의 공덕을 쌓는 일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다.

건축불사 자제

비구니회관 착공 연기 청주 관음사 공사중단

IMF영향 원목·철근 등 값올라

원목 철근 등 수입 의존도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 불사. 고환율 IMF체제하에서 건축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 관음사(주지 이두) 등이 추진중인 건축불사의 공기(工期)를 조정하고 자재를 바꾸는 등 IMF 시대를 대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호장 광우)는 지난 1월 임원회의를 열고 비구니회관 착공 연기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결정은 환율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자재 원가가 평균 7.5%나 상승, 비구니회관 총 건축비도 당초 예상보다 33%나 오른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비구니회관은 96년도부터 전국비구니회 소속 사찰과 재가 후원회인 천수천안회가 기금 조성에 헌신했던 비구니스님들의 숙원 사업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종합불교회관도 올해 기공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논산 호국연무사의 경우 요사채 건립이 전면 중단된 상태.

청주시 관음사도 천불전 건축 공기를 조정했다. 청주시 불자들이 수행처로 사용할 천불전은 90평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

현진스님은 "경제한파로 시주금이 줄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천불전 총 공사비가 30% 이상 추가됐다"며 "건축공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면서 건설경기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94년부터 법당과 복지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도 당초 목재로 지으려던 법당을 시멘트로 짓기로 했다.

벽암스님은 "수입 자재인 원목의 가격 상승으로 법당 건축재료를 원목에서 시멘트로 바꾸었다"며 "값싼 자재로 공사비를 낮추었지만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 완공시기를 5년 더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철근 시멘트 원목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6~9% 인상됐고, 고금리로 증가한 건설업계 부채도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당분간 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건축불사를 자제해 자재 수입에 소용되는 외화 유출을 막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불사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종욱·강지연 기자〉

문화관광부 장관에 신낙균씨



불자 2명 입각

새정부 내각의 문화관광부 장관에 신낙균씨가 선임됐다. 신낙균씨는 이화여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15대 국회에서 여성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불자로는 보건복지부 주양자장관과 산업자원부 박태영장관 등 2명이 등용됐다. 각료들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8명, 천주교 4명, 불교 2명 구교 4명 등인 것으로 파악.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종교 편향이라 지적이다.

특별 구족계산림 8월 개설

조계종 870명 대상 마지막 기회 될듯

조계종은 62년~83년 사이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지않은 8백7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개설한다.

이번 특별수계산림은 8월 17일과 18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은 "승납 15세, 나이 40세 이상의 사미(니)중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무와 포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계단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구족계수계산림을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산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미(니)의 참여를 구했다.

종교계 3·1절 행사 다채

3·1운동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원범)와 대각회(회장 광덕)는 1일 오전 8시 탑골공원에서 도문(대각사 주지), 보광(동국대교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선열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이어 파고다극장에서는 김광식박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용성스님과 독립운동' 특별강연회도 열렸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는 2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천도교회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를 가졌다.

이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탑골공원까지 시가행진을 갖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갱신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구국기원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불교·천주교·원불교의 여성성직자들의 모임 삼소회 합창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3·1절 기념 국난극복을 위한 대국민 선언문 발표회'가 끝난후 서울 천도교회관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IMF 극복 실천강령 발표 잇달아

사찰·신행단체 호텔행사 안하기 등 전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이 직지사, 동산반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불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2월25일 정기총회에서 호텔 등 외부행사 안하기, 고급승용차 안타기 등 생활지침을 마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IMF극복 7대 실천공약을 내놨다. △법회 후 2부 모임 안갖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금모으기에 동참하기 △한집 한 등 끄기 △경조사비 줄이기 △외식 하지 않기 △재활용품 활용하기 등이다.

동산반야회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국산품 및 우리문화 애용운동 △소비절약운동 △의식개혁운동 △직장·사업장에서의 절약운동 △간소한 관혼상제치르기 운동 등 5개 분야에 걸친 108개항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5천여부의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 각 사찰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직지사(주지 녹원)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법을 배우자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자 △고통을 나누며 내가 먼저 베풀자며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북장애인복지관·행화어린이집·옥수복지관 등 8곳 속속 개원

불교복지사업 '꽃피는 춘삼월'

새 봄을 맞아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잇따라 개원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교계 최초로 수탁·직영하는 강북장애인복지관을 4월 10일 개관하는등 수탁시설을 잇달아 개원하고 있다. △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은 3일 △서초삼어린이집(원장 이재희)은 6일 개원했으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24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승)은 26일 개원 예정이며, 성내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은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공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 11월 위탁받은 복지시설. <관련기사 3면>

이밖에 연꽃마을이 위탁받은 인천노인복지회관 경로병원과 경로식당이 17일경 개원하며, 승가원 부설 상락원(소장 법등)은 3월중에 개원한다. 바야흐로 불교복지사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특히 4월10일 개관을 앞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직할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종무 결산보고 받아

조계종 원로회의 상견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9일 오후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말 새로 추대된 신임 원로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원로의원들은 총무원으로부터 지난해 종무결산 보고를 받았다.

조계종 행자교육 185명 송광사 입방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제14기 행자교육을 5일~27일까지 제21교구 송광사(주지 현고)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총 199명이 지원, 서류심사 등을 거쳐 총 185명이 입방했다. 남행자 104명, 여행자 81명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한

담 · 화 · 문

조계종은 1천6백여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종단이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僧伽의 청정성과 계율정신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승단을 구성하실 때 계율로 位階를 세우시고 깨달음으로 法階를 정하시어 僧伽의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僧伽는 화합의 共同體이며 '人天의 師表'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僧伽는 位階와 威儀가 불분명하고 僧風이 停滯되어 재가신도와 국민들에게 인식상의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참신한 僧伽의 기풍을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位階질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僧伽 共同體의 발전과 다종교사회 속에서 僧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종단은 지난 불기 2538('94)년 개혁불사를 통해 僧伽敎育體系를 확립하였습니다만, 僧伽의 位階와 관련한 문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종단의 승풍 진작을 위해선 僧伽敎育의 강화뿐만 아니라 位階와 威儀가 엄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기2541년 총무원과 교육원은 몇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끝에 사미와 사미니의 衣制와 신분증에 관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원로대덕스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총무원과 교육원은 불기 2542년도 부터 승풍의 진작과 僧伽의 位階 확립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미·사미니의 名號와 衣制, 그리고 신분증 제도의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미·사미니계 수지자의 名號는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로 하며, '스님' 호칭은 구족계 수지자로 한다.
2. 사미·사미니 衣制는
   1) 동방·두루마기는 동정과 소매, 장삼은 동정, 적삼은 깃과 소매에 가사색(밤색)띠를 두른다.
   2) 불기 2542('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적용대상은 불기253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 수지자로 한다.
3. 사미·사미니증 제도는
   1) 불기 2541('97)년 제13기 행자교육 이수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2) 사미·사미니증의 유효기간은 수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만료 즉시 총무원 총무부에서 갱신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사미니에게는 입학할 때까지 신분증 갱신과 각종 증명원 발급을 보류한다.

종도 제위께서는 曹溪宗 僧伽의 位階 확립을 위한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98)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교육원장 성 암 도

장애인복지관 등 28개 시설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3년 성과와 과제

봉사인력 꾸준양성 '복지 전문화 정착'
독자적 재원·조직체계 아직 역부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설립 3년을 맞아 복지사업의 새 전기를 맞고 있다. 복지재단은 11일 오후2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창립3주년 기념 법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한다.

복지재단은 창립이후 시설수탁사업을 전개,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28개의 시설을 수탁받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종단 산하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19개, 어린이집 21개, 청소년독서실 12개 등 52개. 복지재단은 중앙교원이 관리하던 기존의 복지시설에다 95년 첫해에 2개, 96년에 8개, 97년에 17개, 올 2월에 1개를 수탁받는등 해가 갈 수록 시설수탁의 노하우를 쌓아 불교복지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

이같은 하드웨어를 갖추면서 복지재단은 각종 공청회와 교육을 개최하는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노력해 왔다. 9차에 걸친 불교복지포럼과 4회의 세미나·공청회 실시하고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을 설립, 자원봉사(관리)자·불교사회복지지도자·간병인·장의예식 교육·연수를 통해 불교복지이론과 방법론 및 실무능력을 확산시켜 왔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병행 운영, 자원봉사운동의 확산과 전문 자원봉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한마디로 불교복지정책의 수립과 저변확대 및 단체·시설의 지원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과학화 및 체계화를 이루고 △독립된 체계의 복지법인으로서 △산재되어 있던 인적 자원 및 시설을 규합한다는 설립 당시의 목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업결정권의 비독립성과 제한된 인력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구호에 그친 것이 적지 않다. 복지법인은 처음 출범당시의 구상처럼 독자적인 재원과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사회부 산하기구로 소속되어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복지시설과 복지재단과의 관계를 규정한 종령 또는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못해 복지재단의 역할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의 토대가 되는 복지정보전산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1사찰 1자원봉사센터는 아직 별 성과가 없는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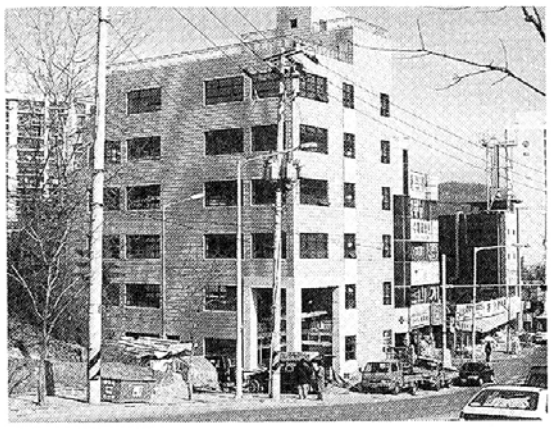
복지재단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간의 복지시설 확보 위주의 사업에서 복지전문가 양성, 각종 복지프로그램 개발, 불교복지정보의 축적 등 소프트웨어 향상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재단은 서울시 강북구로부터 수탁받은 강북장애인복지관을 4월 10일 개관, 직할시설로 운영함으로써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시설종류별로 직영기관을 하나씩 설치해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현장적용과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기관, 일시보호소, 치매센터, 상담기관 등 전문 분야의 사업도 개척할 생각이다.

복지재단이 설립 당시의 목적에 맞는 이같은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 종단 및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를 질적 성장의 해로 정하고 수탁 복지시설 종류별로 1개씩의 직영시설을 확보하여 시범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복지재단이 교계 최초로 수탁·직영하게 될 강북장애인복지관 전경.

목어 '소화불량'

사람은 음식물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음식물을 위(胃)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 할 수 없다. 위는 모든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휘발유를 연소시켜 차를 움직이게 하듯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몸에 분배한다.

사람의 오장육부는 위로부터 진액(정기)를 받아서 활동한다. 따라서 위장 탈은 바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람몸의 모든 탈은 위장탈에서 시작되므로 어떤 병이라도 제대로 치료하려면 위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위는 아주 민감한 배알이다. 기분이 조금만 언잖아도 먹은것이 체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끓으면 기가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고 물론 소화도 안된다.

요즘 소화제와 위장약 판매가 제약회사마다 50% 안팎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고 물가는 자주 오르니 요즘처럼 심리적 부담이 큰 IMF시대에 소화제가 잘 팔린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고 IMF시대가 끝나도록 소화제에 의존해서 살수는 없지 않은가.

소화제는 소화불량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약은 아니다.

만병의 주범인 스트레스와 화를 풀려면 먼저 스트레스가 어디서 왜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동의보감〉 서문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의 질병은 몸을 잘 조섭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니 수양이 먼저요, 약과 침과 뜸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소화제가 잘 팔린다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소화불량증에 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이 소화불량에 걸리면 건강에 이상이 오듯 사회도 마찬가지다. IMF시대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개인도 사회도 건강해야 한다.

"마음은 화가가 여러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과 같아 사물을 만들지 않음이 없다."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 오늘을 긍정적으로 보고 푸른 내일을 가꾸는 그림을 그리자.

"1만원이면 북동포 한달살이"

평불협-교계언론 금강국수공장 공동후원 캠페인

평불협이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3월말부터 가동할 황해북도 사리원시 소재 '금강국수공장'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를 비롯한 교계 언론사들도 후원 공동캠페인을 펴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평불협은 이달말 금강국수공장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이미 2월1일부터 모금활동을 전개 11일 현재 3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5백7십여만원이 모금된 상태다.

후원회는 후원회원, 일반회원, 운영회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1천원 이상 후원할 수 있다. 후원자들이 내는 1천원은 북한 동포 1명이 12일 동안, 1만원은 2명이 한달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

후원금이 모금되면 평불협은 매월 밀가루 20톤(5천달러 상당)을 구입,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금강국수공장에 보낸다. 이렇게 보내진 밀가루는 하루 2천2백여명분(6천6백 그릇)의 국수로 생산돼 북한의 재해지역 탁아소와 어린이학교, 조선불교도연맹 불자들에게 직접 배급한다.

법타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의 가동은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누가 한번에 큰 액수의 돈을 내 북한 주민을 돕는 것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강국수공장은 불교계에서 장기적으로 북한 어린이와 불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미 북한에는 개신교 지원으로 운영되는 2곳과 가톨릭에서 지원하는 6곳의 국수공장이 있으나 북한당국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강국수공장의 경우는 공장 설립자측의 명의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전달된다.

도필선 기자



◇조계종 종법제개정특위 위원들이 17일부터 개회되는 제130회 임시종회에 상정할 종법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권 규제안 진통예상

조계종 3월 종회 종법개정 쟁점사안 무엇

'행자연령' '비구니 의원 선출법'도 논쟁여지

조계종 종법제개정안 17건이 상정될 제130회 임시중앙종회(17~21일)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법제개정안 중에는 팽팽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 조계종 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정휴)는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종법제개정안을 심의한데 이어 5일에도 심의회의를 열어 종회에 상정할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종회 하루전인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특위가 종회에 상정할 법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대상으로 전망되는 대목은 총무원장 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규제사항으로 신설되는 "본종 소속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및 그 운영권자와 도제" 부분. 이는 선학원등 재단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들에 대한 종단행정 참여 규제차원에서 마련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창건주및 그 운영권자와 도제"라는 조항은 국가법에서도 배제된 '연좌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법 개정안도 적지않은 논란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법 제55조(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의 현행 법은 행자의 연령자격을 "15세이상 50세 이하"로, 행자생활의 기간은 "행자로서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 받은자"로 명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원은 "18세 이상 45세이하" "11개월 이상 교육받은자"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특위는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행자교육원의 문을 넓히되 비구(니)계의 수계 자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승려법 제19조(결격사유)를 강화, "호적상 친권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행자의 자격을 강화 할것을 주장하며 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한 교육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중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조항도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8절에 해당하는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 법조문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11대 종회의원 선출시 드러나 종회는 편법으로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종회의원 추천권을 부여,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한 10명을 직능직 비구니의원으로 선출했었다.

5일 특위는 법안 심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8절 전체의 개정안을 마련치 못하고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능직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가안을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종법상의 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중앙종회 직능직의원인 비구니 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는 안이 종회에서 통과 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재가법사 장점살려 '틈새포교' 해야"

서울·경기 포교사연수회서 제기

"포교사는 스님의 보조가 아니라 스님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

8일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회에서 김경호 포교연구실 연구과장은 '불교포교의 현황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스님들의 관심과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재가포교사의 활동 몫이 있다"며 '틈새포교'를 주문했다.

김씨는 포교사는 스님들과 달리 포교대상들과 생활상의 정서가 일치하는 점을 살려야 하며, 특히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재가포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대 병원 교도소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신행조직을 형성해내야 할 분야는 무수히 많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포교사단 사무국도 포교사의 전문화를 위해 포교 분야를 청소년 군대 교도소 등 4부문으로 나눠 전문강좌를 개설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운동현 사무국장은 15일 세미나에서 발표할 '포교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분야별 전문교육은 정기적인 연수와 달리 희망자에 한해 5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교사단은 지금까지의 연수가 형식적인 '출석체크'와 종무행정의 시달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연수를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포교사들도 세미나식 연수에 대해 신선한 변화라며 반겼다.

정성운 기자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피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증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외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생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민족 돕기'에 전 불자 동참을…

월주스님 한마음선원에서 '깨달음 사회화' 법문

"불교는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의 종교입니다" 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한민족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총무원장 월주스님 초청법회'에서 월주스님은 경내를 꽉메운 불자들에게 이렇게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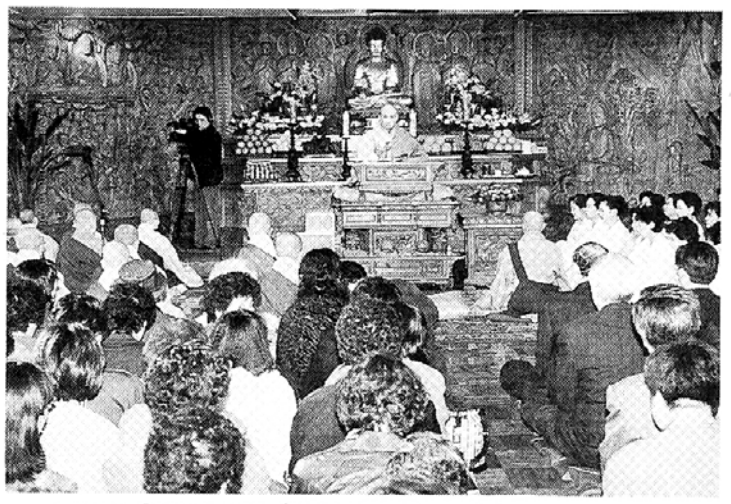
"나와 이웃,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바탕자리를 깨달아 깨끗한 불국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마음선원 불자들도 그 마음을 갈고 닦는 한마음의 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체득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망상과 집착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원만구족한 마음의 바탕자리, 진여불성(眞如佛性)을 찾아 깨달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불자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빛더미에 올라 앉아 있지만 옷도 잘입고, 밥도 먹을 만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식량이 없어서 천만명의 형제자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서로돕기 운동은 북한동포들을 돕고, 또 사회경제적 불황으로 늘어난 실업자, 명퇴자와 연변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두루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월주스님의 법문에 불자들은 힘찬 박수로 답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1천3백56만8천원이 모금돼, 3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전달됐다.

월주스님은 한민족 서로돕기운동 확산을 위해 한마음선원,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등에서 법문했으며 앞으로 구룡사, 화계사, 능인선원 등도 방문 설법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1일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한민족 돕기 성금모금법회'에서 월주스님은 경내를 꽉메운 불자들에게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설했다.

"그늘진 이웃에 보살행 펼터"

광주불교사암련 새회장 현지스님



"IMF한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한 불교위상강화와 복지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된 원효사주지 현지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광주공원에서 매달 오갈데 없는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공양하고 있다"며 "이를통해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향후 1주일에 한번이상 그늘진 곳을 찾는 보살행과 사찰환경살리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스님은 사암연합회 산하에 환경운동단체를 설립,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내실 다져 위상 재정립"

교수불자련 10대회장 조희영 교수



"창립 10주년을 맞는 교불련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교수불자연합 '98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된 조희영 교수(동국대 경영학과).

조교수는 "창립 1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피력하며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써 불교계에 일조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9년 교불련 창립멤버로 시작, 그동안 국제부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불련의 10년을 함께해 왔다.

"앞으로는 교직이라는 특성을 살려 후학들에게 불교교학을 알리고 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주년 사업과 관련 "외형적인 큰 행사보다는 내실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교 차 로

LA 관음사 24돌 법회 참석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8일 미국 L.A 관음사 창립 24주년 기념 법회 참석과 동산불교대학 L.A 분교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

요사채 건립 기공식



법현 둥지청소년의집 주지는 2월 22일 자현사 경내에서 후원회원 50여명과 함께 무의탁 청소년들이 기거할 요사채(60평) 건립기공식을 가졌다.

비무장지대서 방생법회



혜철 대방동 청련사 주지는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콩·조·수수·벼 등 새먹이를 주는 방생법회를 가졌다.

계정사 불교회관 개원



월봉 계정사 주지는 2월22일 지상 2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 삼존불 점안 및 회관 개원식을 봉행했다.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개원



일관 혜능불교대학장 스님은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개원식을 봉행한다.

관음사 어린이집 개원

도기 경북 영주 관음사 주지는 5일 '관음사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김진영 영주시장, 경북도의회 전동호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봉서 경승실장에 추대



법장 무진법장사 주지는 지난달 3일 도봉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57사단 예비군 법사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답사객 통도사 초청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장 스님은 22일 외국인의 통도사 답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답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전통사찰 건축양식을 배울 예정이다.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월2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암 장학회 장학금 전달

손현수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장은 1일 안동 서암당에서 제5회 서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고교생 35명에게 총 3천5백만원이 지급됐다.

'직지심체요절' 강의



각성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 교수)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 부산 한국불교명상통신강원 야간 경전반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강의한다.

명예 청주시민증 받아



박병선 박사(재불교포)는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발견,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게 한 공로로 청주시로부터 4월20일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국악 예술고 이사장에



박범훈 중앙대교수는 6일 오전 11시 국악예술고등학교 제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이사장은 취임과 더불어 국악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민족음악교육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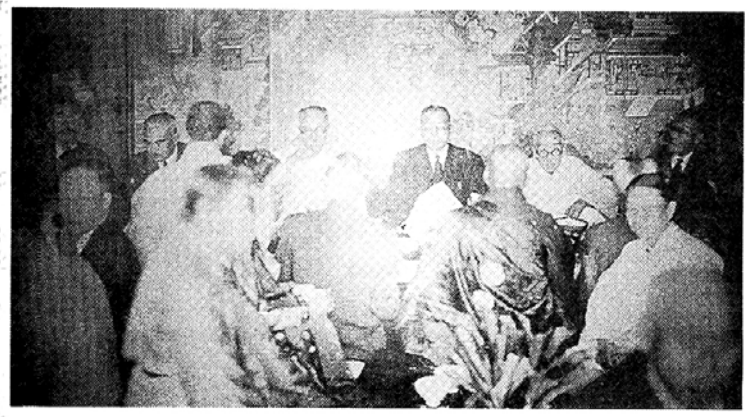
'밝은길 아뵈타센터' 개원



김희균 월간 〈대중불교〉 전 편집장이 최근 서울 광장동에 '밝은길 아뵈타센터'를 개원했다.

범어로 화신(化身)이라는 뜻을 지닌 아뵈타(avatar)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마음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02)396-2736



김구등 임정요인 대각사 방문 사진 '첫 공개'

Focus

3·1절 79주년과 3월의 독립운동가인 '백용성스님의 달'을 맞아 대각사가 독립운동의 본거지였음을 입증해주는 희귀한 사진이 3일 공개, 천안 독립기념관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직후인 1945년 12월12일 서울 봉익동 대각사를 방문, 환영받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사진은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었던 용성스님이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귀중한 자료. 용성스님이 당시 대각사에 독립운동의 비밀장소를 마련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당시 대각사에 주석했던 동헌·혜암스님에게 용성스님의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사진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황학수, 김창숙, 김구, 이시영선생.

윤기석 기자

본사 신행수기 수상자 모임 결성

현대불교신문 공모 신행수기 수상자들의 모임인 '신수회'가 2월 28일 녹수청산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2회 우수상 수상자인 이영자씨(삼양 초등학교 교사)가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이매림씨(3회 대상) 총무에는 김재화씨(3회 특별상)가 선임됐다.

또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녹수청산에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가정 방문, 성지순례 등을 전개키로 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고정희 1,000,000원 △정규찬 50,000원 △이귀숙 5,000원 △노태영 30,000원 △최인순 100,000원 △노옥재 10,000원 △양순희 30,000원 △서기주 50,000원 외 67명 △한 주 한끼굶기 1,438,000원 △밥 한 공기 6,0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재일본 한국인 불교도 연합회 100,000원 △청년 정토회 500,000원 △정토 어린이 화랑단 261,180원 △박용훈 1,000,000원 △임무인 120,000원 △군수영 100,000원 △오현수 100,000원 △이희선 50,000원 △정민수 5,000원 외 65명 〈3월4일 현재 총 947,703,99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불교미술품의 무분별한 수입 철회를 촉구하며!

"무분별한 불교미술품 수입으로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족문화 보존을 위해 불교미술품 수입은 중단돼야 합니다."

불교문화는 1천 6백년 민족사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면서 민족문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불교적 사상과 윤리의식은 이 땅의 정치·사회·문화·예술·도덕·풍습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특정 종교적 위치를 떠나 민족문화, 민족종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는 그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시작된 베트남 중국등지에서 역수입되기 시작한 몇몇 몰지각한 인사들의 무분별한 불교미술품의 수입 때문입니다. 넌 몇십억대 가까운 물량으로 알려진 불교미술품의 수입은 끊어진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싼 저임금과 재료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국내에서 제작된 것처럼 속여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과다한 수입과 지출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교미술품의 무분별한 수입은 지금 즉시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심히 창당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불교미술품 수입 철회와 중단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활동도 펼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들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엄정한 시험을 거쳐 문화재 조각 기능자로 등록된 장인들의 유일한 단체로 문화재 보수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하며 전통조각을 전승 계승하여 전통 불교조각 및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2년 3월 일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값 9,000원/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재의 책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 법당과 부처님, 탑 ·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업국 ☎ (02)705-5302

직장도반 절에서 함께 공부

도심 직장인 수행도량 잇달아 개설

직장인을 위한 수행도량이 늘고 있다. 평촌 보림사, 남양주 한길법당, 광주 광륵사등 이들 도량들은 IMF 시대 직장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평촌신도시 보림사(주지 허운) 시민선방에는 매주 토요일 시민선방선우회 회원 90여명이 좌선모임을 갖고 있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신선한 마음환경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창립된 시선회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와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좌선정진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좌선시간은 참선이야기 조신 기공 단전호흡 순으로 이어된다. 또 매월 첫째 일요일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안산 화림선원에서 금강경 독송과 함께 1천80배 정근 행선을 통해 좌선과 기도를 병행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일일참선' 모임을 갖는 등 생활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시선회 김의식(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회장은 "좌선을 생활화하다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0343) 80-0256

광주 광륵사(주지법사 능인)는 직장인이나 실직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도량으로 개방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은 물론 좌선을 지도하여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일깨우고 있다.

또 빈 방사를 기도처로 제공,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독송을 통한 시련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장경 약사경을 10만권 간행하여 직장인이나 실업자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보내줘 우울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062)222-7801

남양주 한길법당(주지법사 유동호)은 '생활인의 불교도량'을 표방하고 지난해 초 개원했다. 퇴계원 광진빌딩에 60평 규모로 문을 연 한길법당은 일승보살회, 한길벗, 퇴계원고 불교반, 여설회, 에카야나, 슈라마나 등 다양한 직장·직능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길법당은 고익진선생이 엮은 '불교근본경전'을 공부하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직장인들로 구성된 일승보살회(회장 정하경)는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해 법회를 갖고 있다.

남양주지역 교사불자들의 모임인 여설회는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한길청년회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일반직장인들의 모임인 에카야나법회는 첫번째 일요일 오후4시에 열린다. 법회 후 봉사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길법당은 함동법회도 연1회 실시하고 있다. (0346)574-6160

김원우 기자



◇직장인들과 실업자들이 인근 사찰을 찾아 좌선과 기도로 삶의 지혜를 찾고 있다.

보 림 사 금강경독송 · 1080배 정진

광 륵 사 실직자에 기도방 제공

한길법당 직능별 법회 · 봉사활동

탐방 경주불교회 "원효·이차돈성사 포교정신 이어"



◇경주불교회 회원들이 지난 여름 송광사에서 수련대회를 갖고 신행을 다졌다.

거사회원 60명…내달 법당 개원
시민강좌 · 불우노인돕기 추진

"신라시대 불교를 처음으로 공인되도록 한 이차돈성사와 불교대중화를 위해 헌신한 원효스님의 정신을 이어 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91년 9월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자'며 경주불교회(회장 이수언, 천일라사 대표)를 창립한 회원들의 마음은 요즘 어느때 보다도 든든하다.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법당 '경주불교감로원'이 오는 4월 개원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경주의 번화가인 황오동의 금싸라기당에 자리를 잡았다.

경주불교감로원은 회원들이 목탁과 염불소리로 혼탁한 저자거리를 맑게 정화하고 인근 상인들을 부처님의 품안으로 끌어들이는 감로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회비 5백만원과 불사금 1천만원등 1천5백만원을 들여 최근 빌딩3층에 20여평의 공간을 마련했다. 빠른시일내 관음보살좌상과 후불탱화를 봉안하여 여법한 법당으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법당이 마련되는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리강좌와 문화강좌 실시와 무의탁 독거노인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주불교회 회원들은 대불청 경주지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경주불교청년회를 만들어 활약하던 알짜배기 불자들이다. 특히 조계종 포교사이자 대한불청 경주지회장을 10여년간 맡았던 이수언회장의 역할이 컸다. 현재 회원수는 60여명으로 개인사업자, 공무원, 정당인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거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경주불교회는 매월 7일 한차례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년2회 성지순례 및 동하계 수련법회를 갖는다.

이수언회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느때보다 열심히 참회정진해야 할때"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바탕하여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561)772-7214

대구=이윤호 기자

경남 교직원불자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인 경남교직원불자회 창립식이 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1백2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창립식에서 초대회장 신동영(구암여중 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섭법 육바라밀 팔정도 사무량심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살정신을 구현하여 교직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직원불자회는 앞으로 △교직원불자의 인격도야와 친목 △전통문화 애호활동 △청소년 교화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유품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용성스님 유물 유품 전시회 개막식이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대각사조실 도문스님, 동국대교수 보광스님, 중앙대 박법훈교수, 독립기념관 박유철관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거행됐다.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용성스님의 사리, 친필서한, 3.1 독립선언서 등 총 50여점의 유품이 전시된다.



제2회 만해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주최하는 제2회 만해상 시상식이 2월28일 세종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성료됐다.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오현 신흥사회주, 이수성 前국무총리, 조영식 경희학원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이사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만해시문학상은 고은시인, 만해평화상은 김순권박사, 만해포교상은 성일스님(신흥사 주지)이 각각 수상했다.



조계종 마포 행화어린이집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은 마포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이 3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일화스님, 마포포교원 이흥세원장, 박명환 국회의원(한나라당), 노승환 마포구청장 등 지역주민·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위탁운영자인 이흥세법사는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천불교대학 제1회 졸업식

제천불교대학(학장 원명스님)은 2월25일 제1회 졸업식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학장 원명스님은 83명의 1기 졸업생들에게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식에서는 이화자씨(제천시 중앙동) 등 13명에게 각 2백60만원이 전달됐다.

우리 모임에선

직지사 운전불자회 창립

직지사(회주 녹원)는 26일 오전10시 설법전에서 운전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운전불자회 창립은 김천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불교신행을 통한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취지로 김천시 관내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종사자 50여명이 가입했다. 이날 법회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장단 선출과 회칙심의가 있으며 운전불자회 로고를 택시에 부착하는 의식이 치뤄진다.

법조인불자회 보문사 순례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변호사)는 21일 강화도 보문사로 춘계명찰순례를 떠난다. 법조불자들의 심신다지기를 발원하며 열리는 이날 명찰순례법회에서는 보문사주지 원종스님이 법문한다. 출발은 토요일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앞 8시. (02)581-5051

유불동 소년가장과 결연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1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안심사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정회원 준회원관리체제 확립 △게시판 메뉴 통폐합 △회원들과 고아·소년소녀가장들이 1:1로 결연하는 봉사활동체제 확립 △제주·강원지역모임 창립 등을 확정했다.

교사불자련 '신심명' 강의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일 오후6시 30분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타스님이 '신심명'을 주제로 법문한다. 이와함께 교사불자연합회는 교사들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02)552-2517

우리는선우 철야법회 개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2월28일 선우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2억1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철야정진법회 개설과 중·고등학생회를 창립키로 했다.

심우회 둥지마을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2일 대부도 둥지마을(원장 법현스님)을 방문하여 위문법회와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심우회는 이날 둥지마을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마련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02) 529-3861

서울구치소 재소자 위문

서울구치소 불교분과위원회(회장 지원스님)는 2월 27일 구치소 대강당에서 재소자들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불자가수회의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무소유 보살경 -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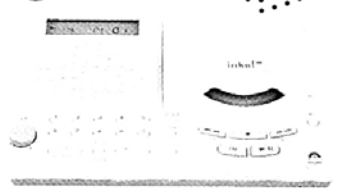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GOOD DESIGN 통상산업부 선정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 듣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들려주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인켈이 세계특허를 획득한 일단 오디오로 일반 CD와 FM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규격 W×D×H(26×18×6.5cm)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불경대전집 (25시간 CD1매) ₩ 70,000 +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듣는 드라마 삼국지로 제작 ₩ 70,000 + CAB-100 ₩345,000

= ~~₩485,000~~ → 할인가 ₩ 290,000

「불경대전집」과 「삼국지」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오디오북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오디오북 소프트웨어(CD)는 TOEIC 성취영어, 어린이영어, 소설, 시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도판매)

구입 문의
■판 매 원 :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문의전화:(02)3274-119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으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 *국민은행 : 015-21-0955-947 *농협 : 011-01-430541 *조흥은행 : 952-04-132815 *예금주 :이 종 주

inkel

법회안내



혜담스님(각화사 주지)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동명사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불교문화센터 〈지장경〉 강의. (0347)64-6078



법산스님(동화사 상임포교법사)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대구 거사림정법회 중도선원 선우회 중도선법(위빠사나)지도. 매월 셋째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금강경〉 대강좌.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7시 마야회 법회. 매월 양력 1일 오전 11시 동화사 법회. (053)983-0075



적경스님(봉인사 주지)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제73사단 호국 충렬사 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6일~18일 지장기도법회. (0346)574-5585



벽암스님(금강정사 주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포살법회.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학업성취기도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참선수행 법회. (02)893-2700



지명스님(천명사 주지)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칠성재일 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기도법회. (062)234-6203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굶는 노인들 오세요
불교신행연 무료 점심공양

생명의 힘을 실감하며 보시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11일부터 장충단공원에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심공양 봉사가 바로 그것. 불교신행연구원은 한달에 두번, 하루 약 2시간동안 노인들을 안내하고 공양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20회 실시되는 무료급식은 노인들에게 공양과 더불어 온정을 전할 수 있는 훈훈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587-6613

북녘어린이에 자비를…
정토포교원 '사랑의 바자회'

저렴한 가격에 의류 및 생필품도 장만하고 북녘의 굶주린 어린이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마련된다.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스님) 승만회(회장 김용숙)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울교대 정문 맞은편 서일빌딩 주차장에서 북녘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옷 양말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 얻어질 바자회의 수익금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 본부에 기탁될 예정이다. 2월25일 이미 1차 바자회를 열었던 승만회는 북녘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전시와 나진 선봉 어린이 결연 회원 모집도 같이 실시한다. (02)3672-5373

봉암사의 자연 · 생물 탐사
맑고향기 사찰생태기행

맑고향기룹게(회주 법정)는 22일 참선수행 도량인 경북 문경 봉암사로 제8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봉암사는 현재 사찰 인근의 폐광을 개발, 위락단지로 조성하려는 가은군 및 일부 주민들의 지역 개발 논리와 자연 및 수행 환경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는 사찰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곳이다. 산철 결제 기간 중에 방문케 될 봉암사로의 사찰환경 생태기행의 신청접수는 선착순 40명이며, 가족 동참자는 우선 접수한다. (02)741-4696~7

불심예심 남도기행
터사랑 · 부산불교교육원

따뜻한 봄볕 움트는 새싹, 불심(佛心)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행이 불자들을 기다린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는 경북 예천 용문 개심사터를 쓸쓸히 지키고 있는 보물 제53호 오층석탑을 둘러보고, 동몬동 석불입상, 초간정, 용문사, 청룡사를 거치는 제81차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다양하고 세련된 꽃살창을 자랑하는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는 눈여겨볼만하다. 15일 오전 7시 부산불교교육원 앞에서 출발한다. (051)466-4080

터사랑(전숙희)은 남도기행을 준비했다. 서산대사와 초의선사의 자취가 어린 해남 두륜산 대둔사에서 새벽을 연후 남한땅의 최남단 땅끝 갈두마을에서 해돋이를 볼 계획. 달마산 미황사 부도밭, 다산초당, 시인 김영랑의 생가도 방문하며 마지막으로 월출산이 아름답게 바라보이는 월남사터를 돌아본다. (02)725-1284

"금강경서 삶의 지혜 찾자"
바른법연구원 '성자와…' 독후감 모집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애정이 가득한 희망의 메시지다.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은 경전읽기를 통해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불서읽기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故 윤을순교수가 올해 초 펴낸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어렵다고만 생각되는 경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책.

"성스러운 사람이나 보통사람들이나 모두 〈금강경〉을 항상 지녀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공덕은 세상의 그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범부로 부터 출발해 성인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인연을 맺어 보자.

초·중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독서감상군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작성해 4월 15일까지 바른법 연구원으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은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발표한다.

보낼곳: 우편번호412-0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889 용화사 바른법연구원('독서감상문 응모'라고 명기, 주소 및 연락처 기재 바람) (02)337-1636
Fax: (02)324-3866
인터넷: www.interpia.net/~ommani/diamond.html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은 성자와 범부의 차별을 떠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수행일기



김기열 〈국방참모대 교수〉

나는 현대를 살아가려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지녔던 막내 고모의 영향으로 초등학교시절 교회의 문을 두드린 이후 사관학교 3학년때까지 13여년 동안 착실히 목회활동을 하던 교인이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육사 호국사에 들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오늘날까지 22년 동안 불법에 의지하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생사가 교차되는 현장에서나 항상 부처님을 향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했다. 내부적으로는 불교경전공부·참선·큰 스님 법문 등을 통해 불교의 대의를 알려고 애썼다. 외부적으로는 법당불사, 불자모임인 금강회 회장직도 맡아보는 등 나름대로 열심해 노력했다. 그러나 선근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업장이 두터워서인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고, 부처님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때그때 방편에 따라 생활해 왔다.

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통한 〈금강경〉 해설과 남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49일 철야정진 및 티벳 성지순례 등을 해온 윤교수님은 내게 "군생활과 수행은 둘이 아니며, 수행이 없는 불법공부는 공염불에 불과하니 자시가행정진을 해보라"고 권했다. 윤교수님의 지도로 49일을 1회로, 매일 〈금강경〉 7독을 하면서 108참회를 하던 중 2만배를 성취하던 지난해 11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싹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윤교수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니 "숙세의 큰 업장이 올라오는 것 같다"면서 더욱 철저하게 수행한 것을 권하셨다. 그날부터 이미 철야정진 중에 있던 도반들과 합류해 생사를 건 수행정진을 하던중에 무서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4일 정도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점차 무서움이 없어지더니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을 느낄수 있었다.

이러한 귀중한 체험으로 오랫동안

"군생활과 수행 둘 아니다"
슬픔 불안 업보는 분별…"모든 것 마음에"

그러던 2년전 어느날 철저한 참회수행 정진없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권고에 따라, 매일 새벽 4시에 주변 동료 몇 명과 함께 성철스님이 해오셨던 〈예불대참회문〉 108참회를 시작했다. 97년 7월 일만배를 채우던 날 갑자기 온몸이 오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평소 수많은 담력훈련으로 단련된 내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내 생애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독특한 느낌이었다. 간신히 108배를 두 번 올린 후 육대의 주법사님에게 여쭤보니, 큰 업보가 해탈되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니 개의치 말고 더욱 정진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금강경〉을 지성으로 독송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금강경독송회' 대전법당과 원당의 '바른법연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때 만나게 된 분이 바로 바른법연구원의 윤을순교수님이다. 당시 83

목말라 했던 구도에 대한 그 무엇을 얻게 되었다. '기쁨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업보 업장이 한낱 분별일 뿐 본래는 없다'는 말을 성자만이 아니라 우리같은 범부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금강경〉 수지독송의 무량무변 공덕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던 것도 큰 기쁨이다. "복을 구한다거나 도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구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윤교수님이 지도하던 바른법연구원의 세미나 노트를 도반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책으로 엮어 공부하는 이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펴낸 것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다. 이는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로 믿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게 시 판

♣ 인사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심원

조계사 △부주지 대안 △기획국장 선문 △포교국장 선룡

불교신문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웅기

♣ 강좌

△원각경=조계사 경전연구강원에서는 〈원각경〉 강의를 개설했다.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가 강의한다. (02)720-1390

△동화구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4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동화구연교실을 연다. 저소득층은 무료. (02)852-0525

△근본불교학교=자비마을 부설 근본불교학교 봄학기 강좌가 21부터 시작된다. 불자들을 대상으로 근본불교 교리교실, 근본불교 수행교실, 경전교실 등을 강의한다. (051)505-8396

♣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학인=쌍계사 승가대학(학장 선곡)은 사미과·사집과·금강경 편입반 학인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개강은 16일. (0595)83-1906

△카운셀러 대학=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고경순)는 98년도 카운셀러 대학 상담교육생을 모집한다. 23일부터 3개월간 실시. (053)951-3340~1

△유치원 시간제교사=부루나어린이집(원장 선일)은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의 시간제 교사를 모집.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유아반 교사 1명과 오후 2시~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종일반 교사 1명. (032)577-5123

△이·미용봉사자=송파 재가노인복지센터(대표 각현)는 무의탁독거노인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일반포함)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 (02)203-3677

△공양주=천태종 총무원(원장 운덕)은 말사에서 근무할 신심돈독한 공양주를 모집한다. 대상은 60세 미만 여성. (0344)423-7100~8

△동국대 사회교육원=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서윤길)은 교양교육·전문교육·번역사교육·통신교육·박물관교육·특별교육과정 등 총 34개 강좌를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 화촉

△본사 편집부 김성경씨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경남예식홀 2층 실버홀에서 구자승씨와 화촉을 밝힌다.

♣ 부음

△김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2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3月末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3월25일까지 (일요일도 접수가능)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등국대문화관)후 정상수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음악으로 묘사한 '심우도'

윤소희씨 '牛圖' 등 작곡발표회…11일 부산문화회관



"우리 집뒤에 아담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벽에서 심우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본성을 찾는 수행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묘사한 심우도벽화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감동은 오래 가슴에 남았고 제 창작심을 북돋았지요. 구상을 거듭한 끝에 우도(牛圖)가 태어났어요."

한때 출가를 고려했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작곡가 윤소희씨(동국대 국악과 강사)가 작곡발표회를 1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만남 등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시도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윤소희씨는 이번 발표회에서 거문고 독주곡 '牛圖'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一如', 범패와 사물놀이에 의한 '엔트로피 1', 가야금독주곡 '두꺼비 집이 여물까' 등을 발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곡들은 대부분 불교를 소재로 했다. '牛圖'는 거문고의 깊이있는 선율을 통해 ①尋牛(소를 찾으러 감) ②見跡(소의 발자국을 발견) ③見牛(소를 발견) ④得牛(소의 고삐를 붙잡음) ⑤牧牛(소를 기름) ⑥騎牛歸家(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 ⑦忘牛存人(소는 잊고 사람만 있다) ⑧人牛具忘(사람도 소도 다 잊는다) ⑨返本還源(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다) ⑩入鄽垂手(세상으로 나간다) 등 불성을 찾는 10가지 수행의 과정이 때로는 고조되는 음계로, 때로는 스르릉 줄을 훑고 내리며, 때로는 자진모리 산조가락으로 풀어나간다. 울림이 담담하고 깊은 격조가 있는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통해 마음자리찾기과정이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망우존인' 부분에서는 소를 얻은 기쁨이 더욱 극대화되어 기쁨 그마저도 넘어서서 잡고 있던 소마저도 놓아준다는 내용이 거문고의 격한 연주가 자지러들면서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퍼지고 이때 슬대(거문고를 쳐서 소리내는 막대기)도 놓고 광안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표현되며 '인우구망'에서는 모든 소리가 10.8초간 멈춘다. 이는 명상에 잠긴다는 것과 108번뇌가 모두 끊어졌음을 표현한 것.

범어사에 자주 가는데 밤새도록 곡을 쓰다가 문득 듣는 새벽예불의 사물(四物) 소리가 영혼을 깨우는 소리같이만 느껴진다는 윤씨는 예불소리에 큰 매력을 느껴 이번 '엔트로피'에 예불의 종송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 해인사 백련암에서의 삼천배후 매일밤 자기전 108배, 광명진언과 능엄주를 잊지않고 한다는 윤소희씨는 부산대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지난 2월 부산대 대학원에서 '한국전통음악의 변조에 관한 연구-산조를 중심으로 서양의 그레고리오 선법, 조성음악과 비교하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곧 박사코스를 밟을 예정.

"내가 왜 그토록 그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늘 갖고있던 근원적인 물음에 비로소 답을 주었던 부처님 초기경전 〈아함경〉의 감동을 음악으로 옮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0〉

마음 알기가 경전

如來四十九年說 (여래사십구년설) 석가여래의 49년 설법은
達觀烘爐一點雪 (달관홍로일점설) 통달히 살피면 이글대는 화로의 한 점 눈인데
饅將黃葉止兒啼 (만장황엽지아제) 부질없이 누렁잎을 황금이라 하여 아이 울음 그치고
更爲迷人標指月 (경위미인표지월) 다시 어리석은 이 위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나
月在天心標在指 (월재천심표재지) 달은 중천에 있고 표적은 손가락에 있으니
定眼指頭徒汨汨 (정안지두도골골) 시선을 손가락 끝에 정해 놓고 한갓 골골한다
疏杰百家何枝蔓 (소초백가하지만) 백가의 주소를 초록한들 어쩌면 가지요 줄기이니
指掌提耳慈悲切 (지장제이자비절) 손바닥에 쥐어주고 귀에다 일러 자비도 간절하나
此道亡羊不可尋 (차도망양불가심) 이 진리 양을 잃은 것 같아 찾을 수가 없으니
聽冰狐疑誰與決 (청빙호의수여결) 얼음을 귀로 들어야 하는 여우 의심 누가 해결하랴
若了自心心是經 (약료자심심시경) 만약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마음이 경전이니
如來說法何曾別 (여래설법하증별) 여래의 설법과 어찌 구별된 적이 있으랴.

경암대사의 시이다. 제목은 '강사의 노래(講師行)'이다. 가르침이나 배움의 어려움을 은연중에 말하였다. 대사 자신이 양 종의 대종사였으니 강사로서야 가장 우두머리인 셈이다. 그러니 어쩌면 자신의 회고록이 될 수도 있다.

석가여래께서 발제하에서 시작 녹야원에 이르기까지 49년 설법이 한 말씀도 한 일이 없다는 무소설은 이글거리는 화로에 떨어지는 눈이 흔적도 없듯이 어느 자취로 설명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런 단풍 잎이 황금으로 비유되어 하늘 위의 진리의 값어치로 설명도 되고, 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는 손가락을 빌려 가리켜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끝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는 손가락만을 보고 끝내 달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주석을 내어 친절히 길을 일러주나 이 또한 가지에 가지가 달리고 줄기에 줄기가 뻗어, 마치 지름길이 많아 잃은 양을 기어이 놓치고 마는 꼴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 얼음 밑의 물 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는 여우의 의심을 누가 해결하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밝아야 되니, 이 마음이 경전이다. 강사의 가르침은 무엇인고. 달이 아닌 손가락인 것을.

이종찬 〈동국대 교수〉

日서 백제 관륵스님 목간 발견



아스카사 연못서 간지연대도 확인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 아스카사 인근에 있는 나라현 아스카 연못유적지에서 '천황(天皇)'이라는 한자와 함께 백제승려 '관륵(觀勒)'의 이름을 적은 목간(사진)들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일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발굴작업 중 당시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등에서 길이 11.8㎝ 폭 1.9㎝ 크기의 목간 5천점 이상을 발견했으며 천황, 관륵 외에 '정축년(丁丑年 · 천무천황6년(677)으로 추정)'이라는 간지연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문화재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이 천황호칭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 7세기 중반~8세기 초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관륵이 602년 역법, 천문, 지리 등과 불교, 도교를 전하는 등 일본 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최초의 승정이 됐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륭사의 다카다 요시노부 관장은 "법륭사 초대 별당(사원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기록돼 있는 관륵이 실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향후 아스카사와 법륭사의 관계, 관륵이 조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밝혀지면 아스카시대의 불교사 및 사회정세 해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 남산…' '북한문화재…' '한국의 고건축'

문화재연구보고서 잇단 발간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경주 서남산의 불적을 정밀조사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 Ⅱ-서남산 사지조사보고서〉와 북한소재 문화재 중 주요 석조물을 소개한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을 펴냈다.

〈경주남산…〉은 광복이후 처음으로 간행되는 경주남산사찰 종합조사보고서. 90년부터 95년까지 미술공예실이 정밀조사한 경주 서남산지역 절터 77개소의 지형측량도면을 비롯 탑, 불상 등 절터 관련 자료가 유적설명, 도면, 도록과 함께 자세히 수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원가능한 유적은 용장골 약사불좌상, 약수골 석불좌상, 삿갓골 석불좌상 등 불상 3구를 비롯 벌천룡사지, 용장골 등의 탑재 4기와 천룡사지, 장림사지 등 사지 2곳이다.



〈북한문화재…〉는 석탑 46건, 부도 18건, 석등 10건, 석당 4건 등 총 1백73건의 석조물에 대한 해설이 수록돼 있다. 석조물편에 이어 올해안으로 목조건축편이 간행되며, 이후 고고미술, 민속, 천연기념물편이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건축문화재 기록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고건축〉19집에는 미황사 대웅전과 응진전이 소개돼 있다.

성륜스님 명상노트

성륜스님이 네번째 명상노트 '가자 저 열반의 나라로'를 펴 냈다.

스님이 직접 그린 선화와 사색하게 만드는 정겨운 글이 들어 있는 올 칼라로 된 이 명상노트는 깔끔한 편집이 돋보이며 일기장 메모지 편지지 시작노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합창단원 모집

조계종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제5기 정기단원을 모집한다. 공개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단원들은 오는 4월 25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연주회, 방송출연, 음반취입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02)725-7527

문화소식

전법용 경전 보급

불광문화사업부는 불자들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는 '보왕삼매론' '법등일송' '마음다스리는 글' 등 3종류를 전법용으로 펴 냈다. 불자 및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받아보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이 전법용 글들은 단체 주문시 특별할인된다. (02)420-3300

강정숙서화전 '성황'

소현당 강정숙씨의 서화전이 4일부터 10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열렸다. 강씨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는 산수화, 사군자, 병풍, 국한문서예 등 총 94점이 전시돼 호평을 받았다. 홍석창교수(홍익대)는 "강정숙은 한국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등을 고루 공부하여 글씨에는 畵意가 나타나고 그림에는 書意가 풍기고 또한 여러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어느 한 유파에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미를 발견할 수 있고 문인화가가 지녀야 할 천진므구한 품격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강정숙作 '水蓮'.

광복이전 비공개자료집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고문서' 등 3권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년여간 실시해온 광복이전 비공개자료 및 중요문서 검토작업을 일부 완결하고 〈광복이전 박물관자료목록집〉, 〈유리원판 목록집 Ⅰ〉, 〈조선시대 고문서〉 등을 3권을 발간했다.

〈광복이전 박물관…〉은 광복이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정리한 것. 보존 · 발견 · 진열 · 기부 · 고적조사 · 지정 등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문화재연구 및 보존관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원판 목록집 Ⅰ〉은 1909년에서 1930년 사이에 촬영된 3만8천여장의 유리원판을 수록, 문화재는 물론 풍속 · 생활 · 주거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고문서〉는 조선왕실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물 및 광복이후 새로 수집한 유물 총 2백여건이 상세한 도판과 함께 실려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제19회 만해백일장

대상에 장미경씨

님

뒷담 돌퍼귀에
솜양지 꽃 피었습니다.

어린 대궁에 앉은
한 마리 나비처럼
노란 꽃옆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기른 것은 다 님이라' 머니
꽃생불 때마다
솜양지 꽃멀처럼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떠나갈까,
사라질까,
당신으로 인해 봄날 다 가도록
나도 원종일 흔들립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주최 제19회 만해백일장에서 장미경(29)씨의 '님'이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만해백일장에는 초 · 중 · 고 · 대학일반부 등 총 8백여명이 '님' '금' '계단' 등을 주제로 문재(文才)를 겨룬 가운데 김지윤(양재고 2년)군 등 4명이 장원, 김영민(동대부고 1년)군 등 4명이 우수상, 김나영(보현사학생회)양 등 20명이 입상, 김정환(한마음선원)씨 등 5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경전연구(야간반 • 통신반) • 기초교리(통신반)

수 강 안 내

제 2기 경전연구 야간반

과목 : 佛祖直指心體要節(불조직지심체요절)

고려말 최초의 금속활자목판본으로 전등록의 축소판. 7불(佛)과 33조사(祖師)의 심오한 법문이 한책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달마, 육조, 마조, 조주, 원오, 대혜, 영명선사의 마음에 대한 무진법문이 담겨져 있슴.

법사 : 원조각성(圓照覺性)스님
- 조계종 승가대학원 교수
- 탄허문화재단 삼일선원 원장

경전연구 (통신반)

과목 : 80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유식론, 금강삼매경론, 초발심자경문, 육조단경, 금강경, 서장, 선요, 원각경, 원인론, 불조직지심체요절, 대도직지, 중용직지, 천부경 등

법사 : 원조각성스님 · 화엄학연구원 원장 ·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원장

기초교리 (통신반)

과목 : 생활불교, 참선수행, 불교학개론, 한국불교사, 비교종교학 등

법사 : 선사스님, 법사스님, 교수님의 설법 또는 강의 녹음테잎

구 분	제2기 경전연구 야간반	경전연구 통신반	기초교리 통신반
1. 자 격	스님 또는 불교(교육 · 교양)대학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자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 분
2. 기 간	6개월	과목에 따라 다름	2년
3. 일 시	매주 월요일 · 화요일 오후 7시~9시	매월 15일 수강교재 우편배달	
4. 장 소	화엄회관 법당	통 신 수 강	
5. 교 재	경전(책)	매월 비디오테잎6개 (컴퓨터 CD롬6개) +녹음테잎6개 +경전	매월 녹음테잎 2개
6. 등록금 수강료	등록금: 20,000원 수강료:월30,000원 교재제공	등록금: 100,000원 수강료:월88,000원 교재제공	등록금: 10,000원 수강료:월4,000원
7. 접수처	본 강원: 사무국/붓다의 메아리 (051)809-8945~6		
8. 입학식	1998년 3월 9일 오후 7시	매월 15일 우편배달 (각자 통신수강)	
9. 특 전	본강원 규정에 따라 전법사 자격을 부여함		수료자는 포교사과정 우선 입학가능

♣ 접수처 :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사무국 ☎ (051)809-8945~6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주차빌딩 2층

석굴암 원형 컴퓨터로 재현

윤장섭-재신 父子 '석불사' 펴내

일제때 보수로 달라져
건축학적 차원 재조명


◇윤장섭교수


◇윤재신고수

일제시대 보수 후 석굴암(석불사)의 모습이 원형과 상당부분 달라졌다는 분석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형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건축전문가 윤장섭(서울대 명예교수)·윤재신(이화여대)교수 부자가 함께 쓴 〈석불사〉(도서출판 학천 刊)는 석불사의 건축공간 구성과 불상조각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석불사 건축 원형의 재현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책의 백미는 역시 원형의 모습을 추정해 묘사한 제8장 '석불사 건축원형과 컴퓨터 모델링'. 남·북쪽 전실 및 주실의 단면 투시도에서는 팔부신중상 윗부분에 지금은 없는 첨차석(첨遮石·공포(공包)를 이루는 한 부분)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석불사의 원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석불사 창건과 중수, 수리공사, 건축공간계획, 건축구조 등 책 5장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논문 30여편을 토대로 내용을 보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단 감실이 공간의 띠를 형성하여 돔 천정이 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이나 단면분석도 등의 예시를 통한 건축공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분석은 독특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또 감잡이돌과 면석들로 구성된 윤환(Ring)구조가 아래로부터 차례로 쌓아 올려지며 중첩되어 돔구조의 천장을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담고 있다.


◇윤장섭 박사가 컴퓨터로 재현한 석굴암 북쪽 전실 투시도. 우측 팔부신중상 윗부분에 현재는 없는 첨차석을 재현해 놓았다.

윤장섭교수는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굴암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원형을 밝혀보고자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불국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2석굴암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에는 찬성하나 옛 원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중학교 불교교과서 나왔다

불교교육연합회가 편찬한 중학교 종교(불교)교과서가 나왔다. 대원정사가 출간한 이 교과서는 서울시교육감인정 교과서로 전국 불교종립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종교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각 학년별로 편찬된 이 교과서는 올바른 종교관 확립과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불교의 특징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고려사찰 사회적 영향력 지대"

한기문교수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출간



고려시대 사찰은 그 시대의 대표적 종교시설이자 그 자체가 지닌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어느시대보다도 중요한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 그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제도적 운영이나 인적기반, 관리조직과 여러가지 특수기능 등 사원자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가 펴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민족사 刊)은 제도적, 기능적 측면과 세속과의 관계 등 고려시대 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종합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1장 '사원의 창건과 중창'에서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다양한 신앙을 국가의 호국신앙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려초 태조시대의 정책을 비롯해 권위확보를 위해 창건된 문종대(文宗代)의 흥왕사, 지리적 여건과 결사사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공덕산 통백련사 등의 흐름을 통해 사원의 창건과 중창의 배경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정리하면서 고려왕조가 모든 사원을 비보사원(裨補寺院)으로 종합, 국가와 사원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원당(願堂)의 개념과 왕실, 관인층 원당의 형성과 그 기능 등 세속과의 관계를 살핀 제3장 '사원의 원당으로서의 기능'과 수계를 담당한 계단사원(戒壇寺院)과 세속의 신앙과 지원이 어떻게 사원보(寺院寶)를 통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가를 밝힌 4장 '사원의 특수한 기능'은 사원속에서 고려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불교유적에 담긴 정신 찾아내야"

김찬일씨 '살아있는 유적…' 펴내

"불교유적은 있는 그대로의 형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산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여년간 문화유적답사에 심취해 온 김찬일씨(대구 경북중 교사). 그가 최근, 답사길에서 만난 문화유적과 사람들을 인연으로 한 답사기행집 '살아있는 유적, 숨쉬는 맥박'을 펴냈다.

불교 및 철학적 시각 속에서 문화유적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깨우친 김씨가 특히 관심있게 서술한 부분은 불교유적. 신라불교의 발상지 도리사를 비롯 난세의 구원성지 팔공산 약사대불, 한국 최초의 석굴사원 단석산 신선사 마애석굴, 가슬갑사터 등을 자연환경과 더불어 잔잔하면서도 정감어린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또 답사길에 만난 훈훈하면서도 흉내나는 여러 군상의 인간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혼자 문화유적을 답사하다 보면 안노이는 것도 보이게 되고 안들리는 것도 들리게 된다"는 김찬일씨. 그는 "불교문화 속에 뿌리내린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의미와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파계사 영산율원 '사미율의주석찬요' 발간

파계사 영산율원(원장 철우)이 〈사미율의주석찬요〉를 펴냈다. 운서주굉스님이 모은 〈사미율의요략〉에 흥찬스님이 주석을 붙인 〈사미율의요략증주〉를 완역하여 기본으로 하고, 서옥스님의 〈사미율의요략술의〉와 광화 율사가 정리한 〈사미율의요략집주〉가운데 요긴한 것을 발췌해 엮었다.

사미십계의 내용을 담은 계율편과 '스님 공경하는 법'등 스물네가지 항목에 대한 위의편 각 주제에 대한 술의(述義·사미율의 해설)와 집주(集註·본문에 대한 주를 모아 놓은 것)로 구성돼 있다. 율원장 철우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율원생들이 논강하면서 2년여 준비끝에 완성했다.

해·외·신·간

여성불자들의 여성성



〈여성불자들의 여성성〉은 美 여성불교계를 대표하는 30명의 스님·재가불자들이 '여성의 육체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공동 집필해 삼발라 출판사가 내놓은 신작. "여성성(gender)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여성불자들에게 한계 상황일 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페마 쵸드론(감포선원장) 등의 필자들은 "모든 육체는 불성을 담고 있는 완전한 그릇"이라고 말한다. 〈256 pp. ISBN 1-57062-324-4〉

위대한 부처님 제자들



〈위대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직계 제자 25명의 초상. 사리불·아난다 등 10대 제자 뿐만 아니라 암바팔리(Ambapali)·마리카(Malika) 등 여성 제자 8명의 삶과 구도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930년대부터 독일 불교계를 이끌었던 냐나포니카 마하테라스님(1901~1994)의 유고집(美 위즈덤 출판사 刊). 〈448 pp. ISBN 0-86171-128-9〉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2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3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 철	장 경 각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담
7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출판사
9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10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음

구입문의:(02)737-0695

스님의 맨발

한승원 지음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간 선승 25명





어린 상좌가 무거운 시주자루를 메고 걸어가고 있었다. 앞선 스님은 문득 어느 집에 들어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아낙에게 불쑥 입맞춤을 했고 동네사람들이 스님과 상좌를 붙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상좌는 혼겁을 한채 스님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쫓아오는 동네사람들의 사정권을 벗어난 스님과 상좌의 대화. "아직도 무거우냐" "무거운지 어쩐지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2의원효'로 불리우는 경허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스님의 대화속에 '일체유심조'(온갖 이치가 마음의 조화에 달려있다)의 교훈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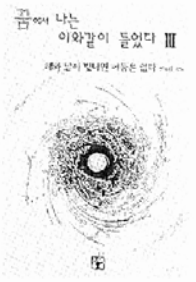
중진작가 한승원씨가 불교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선승 스물다섯명의 기이한 행적과 사상을 유려한 필치로 풀어냈다.

현충일 전몰장병위령제에서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가리키며 설명하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손하다고 호통을 쳤다는 동산스님 비롯해 휴정 원효 보우 만해 한영스님 등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일화들이 감동을 준다.〈문학동네 6천5백원〉

와 제 외 책

해와 달이 빛나면… 성내경 지음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상인가





이화여대 통계학과 성내경 교수의 〈꿈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시리즈 3권으로 법화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권 〈꿈에서 나는 …〉에서 한국불교의 주된 수행방법인 참선에 대해 조명하고,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에서 미신과 사이비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성교수는 이 책에서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상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수많은 불교서적과 스님들의 법문에서 그 해답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위해서라고 말해지고 있다. '일대사인연'은 중생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중생들을 불지견도(佛知見道)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일대사인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직 〈묘법연화경〉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묘법연화경〉만이 그같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명 1만5천원〉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조선편 1권에 수록되는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비(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 보물 제68호로 충북 중원에 소재.

조선 고승비문 조사 '목록화'

가산불교硏, 행장일람도 작성 9월 발표
262기 정리…조선불교사 바로보기 '한몫'

기초적 자료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조선시대 고승비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선불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9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선시대 승려 비명(碑銘) 및 행장(行狀) 일람(一覽)' 프로젝트는 전문연구위원 최원식씨(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가 중심이 되어 조선시대 고승비문과 행장을 집성해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선불교 금석문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미비했던 조선불교사 바로보기의 첫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조사된 비문은 '충주 청룡사 보각국사환암 정혜원융 탑비문(忠州 靑龍寺 普覺國師幻庵 定慧圓融 塔碑文)' '양주 회암사 무학왕사 묘엄존자 탑비문(楊州 檜巖寺 無學王師 妙嚴尊者 塔碑文)'을 비롯 총 2백62기(행장 89개 포함)에 달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고승비문 94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지관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의 비중이 조선 이전으로 치중됐던 이유도 기초적인 자료 정리가 이뤄져 있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며 "이번 자료 정리를 계기로 조선불교 연구를 위해 여러 문헌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불교연구원은 이번 조사연구를 위해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전기편(傳記篇)을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범위를 1392년 조선건국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입적한 고승으로 했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불교전서〉 조선편과 스님들의 문집·저술 등을 참조하는 한편, 장서각과 규장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각종 금석문 탁본자료를 입수했다. 또 각 사찰의 사지에서 관계자료를 검색하고 최근 간행된 〈한국문집총간〉에서 당시 유학자의 문집이나 유학집과 그 목차에 나타난 비문과 행장을 발췌했다. 그러나 생존연대나 행적을 알 수 없는 것과 제자들의 명단이나 입비(立碑) 연도만 기록돼 있는 비문 등은 제외시켰다.

최원식씨는 "현재까지 조사된 총 2백62기의 비문 가운데 17세기 비문 10여개와 18~19세기 비문 10여개는 지금까지 문집 등에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추가로 발굴되는 비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조선불교 연구자료로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상편(1918), 고교형의 〈이조불교(李朝佛敎)〉 등의 통사류를 비롯,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불교사료집〉 등이 대표적. 그러나 아직 조선불교의 실상을 직접 엿볼 수 있는 당시 승려들의 비문과 행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이뤄진 바가 없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완성된 '조선시대 승려 비명 및 행장 일람' 목록을 〈가산학보〉 제7집에 수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94~97년 간행된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1권)·고려편(4권)에 이어 조선편 제1권을 간행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대승불교서적 간행에 주력"

인터뷰 | 대승불교硏 개원 오형근 교수



"한국불교가 지금의 침체기를 극복하는 길은 대승불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를 정년퇴임한 오형근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5시 서울 묵동 대학문화원 1층에 '대승불교연구원'을 개원한다.

오교수는 "대승불교사상은 한국불교 전반에 걸쳐 면면히 흐르는 까닭에 오히려 연구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대승사상 연구와 함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승불교 서적 간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오교수는 〈반야심경〉 간행을 연구원의 첫 사업으로 잡고 있다.

또 오교수는 "일반 젊은층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연구원 법당을 개방, 매주 1회 법회와 함께 4월부터 불교학개론과 유식학 강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64-7120

이상 詩 '오감도' 중심사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홍영철씨 동대 석사논문



난해(難解) 시의 대표격인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瞰圖〉의 중심사상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오감도'가 염세와 허무, 자폐적인 이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인 홍영철씨는 '97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의 〈오감도〉연구'에서 "〈오감도〉는 15편의 연작시로서 별개의 동떨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써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며 "시에서 보여지는 이상의 세계관은 동양적 세계관으로, 특히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에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오감도〉는 총 30편을 예정으로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처음 연재됐으나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난해함으로 독자들의 투서가 잇따르자 중도하차, 15편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시는 제1호와 제3호.

제1호는 '13명의 아해(兒孩)'가 도로를 질주하는, 그저 하나의 상황을 그려보이고 있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 (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홍씨는 "다만 괄호 속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긍정(질주함, 뚫린 골목)과 부정(질주하지 아니함, 막다른 골목)을 동일한 선상에서 진술하고 있다"며 "외형상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시는 이상이 생각하는 세계인식, 즉 색의 세계는 공의 세계이며 공의 세계 또한 색의 세계라는 순환논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호는 '싸홈하는사람은즉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고또싸홈하는사람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까…'로써, '싸움하는 사람'은 곧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며, '싸움하는 사람'은 곧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싸움'이라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작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상에게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었지 현상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오감도〉가 씌여질 당시(1920년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인식을 통해 사물과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 같다"며 "그러한 그의 세계관은 염세적이고 허무적이기 보다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도전적 희망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학술단신

'태 · 성종대 미술' 세미나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1일 오후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2 세미나실에서 '태·성종대의 미술'을 주제로 미술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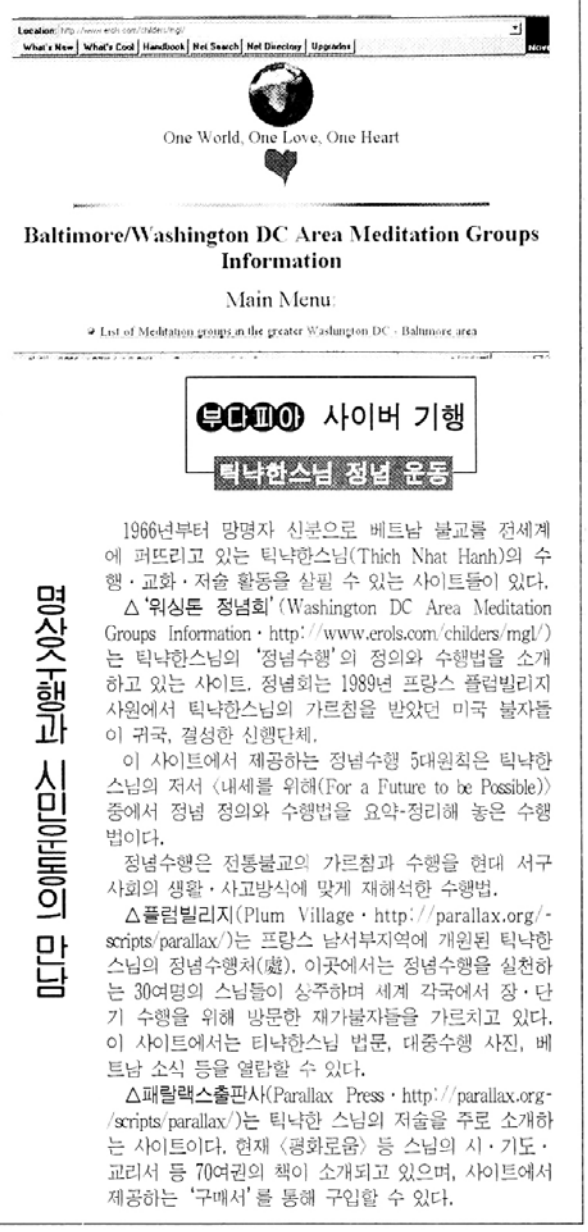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는 △태·성종대의 건축(이강근·경주대 교수) △조선 전반기 불경관화의 양식(박도화·동국대 박물과 학예실장) 등 3편이 발표된다.(02)260-3426

'인도철학' 7집 발간

인도철학회(회장 정태혁) 학회지 〈인도철학〉 제7집이 2월 20일 민족사에서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인도 종교에서 삼밀(三密)의 연원(권영택·위덕대) 등 11편이 수록돼 있다. (02)260-3133

삼학원 3기 원생 모집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이 '98년도 1학기 교육강좌를 마련하고 제3기 원생을 모집한다. △선전강독 등 불교원전 연구과정 △범어, 티벳어 연습 등 불교어학 연수과정 △인문영어강독 등 기초 학습과정이 개설된 1학기 강좌는 19일 개강, 6월13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전형일은 13일. (02)765-9602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틱낙한스님 정념 운동

1966년부터 망명자 신분으로 베트남 불교를 전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틱낙한스님(Thich Nhat Hanh)의 수행·교화·저술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워싱톤 정념회'(Washington DC Area Meditation Groups Information · http://www.erols.com/childers/mgl/)는 틱낙한스님의 '정념수행'의 정의와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정념회는 1989년 프랑스 플럼빌리지 사원에서 틱낙한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미국 불자들이 귀국, 결성한 신행단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념수행 5대원칙은 틱낙한스님의 저서 〈내세를 위해(For a Future to be Possible)〉 중에서 정념 정의와 수행법을 요약-정리해 놓은 수행법이다.

정념수행은 전통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현대 서구사회의 생활·사고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수행법.

△플럼빌리지(Plum Village · http://parallax.org/-scripts/parallax/)는 프랑스 남서부지역에 개원된 틱낙한스님의 정념수행처(處). 이곳에서는 정념수행을 실천하는 30여명의 스님들이 상주하며 세계 각국에서 장·단기 수행을 위해 방문한 재가불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티낙한스님 법문, 대중수행 사진, 베트남 소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패랄랙스출판사(Parallax Press · http://parallax.org-/scripts/parallax/)는 틱낙한 스님의 저술을 주로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현재 〈평화로움〉 등 스님의 시·기도·교리서 등 70여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명상수행과 시민운동의 만남

홍콩 불교단체 늘고있다

중국영향…기독교적 종교편향 완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들어선 홍콩 종교계에 불교·도교 등 전통 종교의 교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피스터교수(홍콩신학대)는 〈미국종교학회〉 겨울호에 게재한 '중국 정치권에 들어선 홍콩 종교계 고찰'에서 "불교·도교 등 중국의 전통 종교계가 청장년을 겨냥한 새로운 종교단체들을 만드는 등 홍콩 종교계의 지각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콩의 종교인구는 전국민의 42%, 이중에서 기독교가 25%로 가장 우세하고 도교 10%, 불교 7%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프피스터교수는 "이같은 비율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150여년동안 영어를 구사하며 기독교를 믿는 홍콩인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빈번했고, 홍콩의 교육기관중 기독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도는 등 홍콩 사회의 종교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피스터교수는 "중국 광동성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도교·불교 관련 소모임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교인 등 전통종교인들에 대한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무진장스님과 평생경전공부 회원모집

1.개설 취지

본회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전법이념으로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창립하여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큰스님에게 직접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할 평생회원을 모집하여 그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저 합니다.

2. 공부과목

금강경, 육조단경,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유마경, 반야심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천태학(천태사교의, 법화현의, 법화문구)법화경(방편품, 여래수량품), 화엄경(십지품, 입법계품)

3. 제출서류 및 공부방법

제출서류	법회일시 · 장소	입지수계
· 입회원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동산법당**(안국동)	매과목 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4. 개 강 일 시 1998년 4월 5일(일) 오후 6시

5. 문의및 접수 동산반야회 사무국(**전화: 732-1206~8, FAX: 732-1207**)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6. 입 회 금 오만원(매월회비 삼만원)

※ 평생 경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평생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평생 경전 공부반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장** 김 재 일

봉 축 현 수 막

불기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조계종 ○ ○ 사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상징화하여 한울기획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아기부처님은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신행의 표본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아기부처님 현수막을 제작한 저희 한울기획은 IMF 시대에 국민의 고통을 아기부처님의 자비 공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큰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격 90㎝ × 6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한울기획 T. (02)474-2040~1 F. (02)477-2316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3

법안의 발 ②

법안종은 비교적 후기에 성립한 종파이다. 육조 혜능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하나인 청원(淸原)을 비조로 하고 있다. 청원은 주지하다시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처음 읊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상의 눈에는 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분발하여 길을 나서는 순간, 세계는 지금까지 익숙하던 세계와는 다른 빛깔과 형상을 띤다. 일상적 사고습관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련이 깊어지면 미진은 점점 강진으로 변해가다가 어느날 땅이 꺼지는 충격이 온다. 견성이나 해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경험을 선사들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전자 밑바닥이 뚫렸다"거나 달마가 양무제에게 질타한 것처럼 "허공마저 확 뚫렸다(廓然無聖)." 그런 실존의 전화(轉化) 이후의 세계는 그러나 예전처럼 평온하기 이를데 없다. 광풍이 지나간 숲,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고요같은 것. 선사들은 깨달음 이후의 풍경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담담한 것으로 그린다. 위산이 꿈을 꾸었다고 하자 제자 앙산과 향엄은 세수대야를 받치고 수건을 들고 들어온다. 별무기특. 싱겁기 그지 없는 세계가 선이라고 한결같이들 말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래 석두(石頭)는 승조의 〈조론〉을 좋아했다. 자아와 타자의 일치, 현상과 본질의 무차별을 축으로 노장과 불교를 접합한 이 책이 선적 비전을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론〉의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석두는 이렇게 외쳤다. "성인은 자아에 대한 고착을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다. 법계는 형체가 없다. 거기서 무슨 자아와 타자가 드러나겠는가."



그림 · 이준석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타 종파와는 달리 법안종은 우주의 무한한 지평을 통찰하거나 경전과의 교감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 사변적 성향은 나중 선과 정토의 접합을 모색하는 영명연수(永明延壽904~975)에게까지 뻗어있다.

석두를 이어 덕산과 설봉이 등장한다. 기억할 것이다. 어느날 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밥그릇을 들고 방을 나서던 덕산을. 그걸 보던 설봉이 "이 늙은이,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어딜 가시오"라고 묻자 방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설봉을 이은 현사는 "어서 저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라"로 유명한 사람이다. 어느날 법상에 올라 설법을 시작하려는데 창밖에서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렸다. "실상에 대한 심원한 설법이요, 진리에 대한 선명한 해명이다"라면서 현사는 법상을 내려섰다.

이런 사승과 준비를 거쳐 법안문익(885~958)이 등장한다. 처음 율종을 배웠다. 불교 외에 유교 경전에 대한 교양도 있고 문장이 뛰어났다. 곧 잡학의 태도를 버리고 남으로 복주의 장경사에 들었으나 배움이 없어 동료 2~3인과 함께 대유령을 넘는데 눈 때문에 지장원이라는 절에서 쉬었다. 그곳 주지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행각을 나섰습니다." "그래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것이 꼭 맞는 대답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조론〉에 논의가 미쳤다. "천지가 나와 뿌리를 같이한다"는 대목에서 지장이 "산하대지가 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라고 하자 "같지요" 하자 주지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이렇게 말입니까?" 했다.

그러던 중 눈이 그쳤다. 법안 일행은 작별을 고하고 문밖을 나섰다. 주지는 배웅나와 정원의 돌을 가리키며, "당신은 삼계유심(三界唯心)이라느니,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느니 하는데, 이 돌은 당신 마음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물론 내 마음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지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안에 담고 행각을 다니십니까?" 법안은 이 말에

"佛法은 항상 여기 있는거요"

"법계는 형체가 없는데 무슨 자아와 타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의문을 풀기 위해 더 지내보기로 했다. 매일 새로운 견해와 답변을 꺼내보았지만, 주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불법(佛法)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한달이 지나 법안은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제 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지는 "불법은 항상 여기 있는거요." 이 말을 듣고 법안의 눈이 열렸다.

법안은 나중에 이같은 절대적 현재의 법문을 자주 설파했다. "실재는 바로 너희 앞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름과 형상의 세계로 번역하고들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본래대로 돌려 놓으려는가." 그 자신 박식하고 다양한 학문전통에 익숙해 있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러했기에 그는 순전한 학문이나 이론을 경계했다. 그의 설법의 묘미를 담고 있는 화두를 하나 소개한다.

한 승려가 물었다.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네가 묻지 않겠다는 그 손가락은 누구 거냐." 곁의 다른 승려가 물었다. "저는 달이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을 알고 싶습니다." "달이다." 승려가 항의했다. "손가락을 물은 것인데 어째서 달을 말하십니까." "네가 손가락을 묻지 않았더냐." 법안의 향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생활속에서 '법칙'을 찾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

정견 ②

사원 정원을 자주 산책했던 아잔 차스님(Achann Chah)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고통을 많이 겪었나?"고 물었다고 한다. 만약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집착을 버려!"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상의 사물들은 일상의 주변에 잠깐 머물며 우리에게 경의와 즐거움을 줄 뿐,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다. 삶의 본질은 무소유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회계사이다.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물들의 가치를 계산하고 취하는게 전부인 회계사일 뿐이다.

명상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련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현자(賢者)로 일어선다. 명상이 몸과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는 한 방편이게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법칙'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육중한 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상 법칙이란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에도, 말에도, 먹는 것에도, 걷는 중에서도 '법칙'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삶 어떤 부분에서건 어김없이 '법칙'이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 등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가장 힘겹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 고(苦)가 있다. 고를 법칙에 투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일시적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삶의 본질은 무소유
고통의 속성 '일시적'
탐욕 · 집착 개선해야

그러나 웬만한 연륜과 공부가 쌓인 사람들조차 삶과 고통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통의 속성인 일시성을 모를 때, 결국 우리는 고통의 인과(因果)를 계속 떠올리는 망상(생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고의 법칙을 떨칠 수 없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 티벳 유람을 꿈꾸는 한 중년 여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녀는 여행사를 방문해 티벳여행 상품을 물었다. 여행사 직원은 티벳보다는 마이애미 해변을 권했지만 그녀는 "티벳에서 구루(Gruru · 스승)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라며 티벳행을 고집했다. 히말라야 산록의 왕국인 시킴(Sikkim), 티벳 고원 라닥크 등을 유람하던 그녀는 많은 순례자들을 만났다. 순례자들은 "구루를 만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매번 "구루는 단지 세마디만을 할 것"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드디어 텁수룩한 수염을 기른 구루를 만났다. 그녀는 공손히 절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구루는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대답할 뿐 미동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에게는 버릴 것은 있지만 떠날 곳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생한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이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운전을 할 때, 걷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명상이 인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한낱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명상은 바로 살고있는 이곳에서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며 일생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어떤 나라이건 부정과 착취가 있고 전쟁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고통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가 조금씩 절약하면 이 지구의 에너지와 식량을 충분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탐욕, 편견, 증오가 동체대비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조국 가족 종교만을 사랑할 뿐 다른 종교 · 인종 · 전통을 거부한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개혁과 발명으로 사회와 물질은 개선되었지만 우리의 탐욕, 집착, 증오, 무지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치유)하지 못해 고통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열고 일상을 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결국 갑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1

불교와 수학

46

함수와 불교

김 용 운

인간은 시간마다 자리 정하는 함수

'마음의 세계' 대오경지로 비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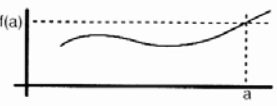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에 관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자 드디어 19세 때 아내와 자식을 두고 출가하였다. 금욕과 고행의 수행을 거듭한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그런 고행만으로는 어떤 성과도 없음을 깨닫고 존재의 본질을 따지기 위해 조용히 사색을 했다. 드디어 성도(成道)의 날이 왔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연기의 법(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에 도달했다. 이 일반적 표현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밑뿌리에 있는 법칙으로 삼은 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은 다음 세가지의 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1.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있다.
2.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원인이 될 '연'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원인이 된다.
3. 날날이의 존재 양식은 연으로써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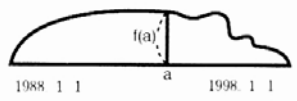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지를 발휘하는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의 의지로 연이 정해지는 가능성을 갖는다.'

함수란 하나의 수(점)가 주어질 때 반드시 하나의 값이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5x=x^2$이라는 함수에서 $x=1$일 때 $f(1)=1$이며, $x=2$일 때 $f(2)=4$이다. 좀 더 쉬운 보기를 든다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각각의 번호에는 꼭 하나의 전화통이 정해져 있는 상황과도 같다. 가령 '02-3473-1769'에는 서울 시내의 여러 전화 가운데 꼭 하나의 전화가 있고 그 번호로 걸어야만 반드시 그 전화기의 벨이 울린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한 점 a에 대해서 f(a)가 한 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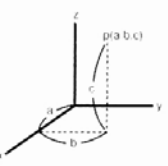


이때 점이 달라질 때마다 f(a)가 결정된다. 이 사실을 1988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1998년 1월 1일에 죽은 사람의 생애에 빗대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1월 1일에서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있는 어느 시간 a를 잡아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 f(a)는 정해져 있다.

인간은 지구상의 어느 입체적인 한 점에 있다. 이 같은 입체적인 점에 있어도 시간이 다르면 그 자리도 다르다. 이것을 두고 수학자는 '인간은 공간인 3차원과 시간의 차원을 합해서 형성되는 4차원의 연속체의 한 점을 맞이한다'고 한다. 3차원의 공간적인 위치와 시간은 연속적이다. 어느 인간도 마치 튜브처럼 생긴 시간, 공간을 합한 4차원의 연속체 속을 누비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은 순간마다 흐르는 것이기에 단 한번도 같은 점을 지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 지구상의 인간은 누구나가 물리적인 뜻에서 한 순간도 고정점을 갖지 못하여 시간과 더불어 흘러 가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諸行無常, 諸法無我인 것이다. 또 함수는 점이자, 점은 함수이다. 가령 3차공간상의 한 점 $P=(a,b,c)$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렇기에 점은 함수이며 또 이 수법을 써서 함수는 점임을 말할 수 있다. 순간마다 값이 정해지는 함수는 엄청나게 큰 차원을 갖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은 시간마다 자리를 정하는 함수이며 그것은 흐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점이다. 인간은 점일 수도 있고 함수도 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시간과 더불어 위치를 정하는 함수와도 같은 처지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위지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것이 곧 불교적인 구원의 길이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공간, 시간의 4차원 이외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정해져 있다 해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이 대오(大悟)의 경지까지 비약할 수 있다. 한 찰나마다 변해가는 인간은 그 물리적인 4차원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축생도(畜生道)에 타락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성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현존 최고(6세기)의 아미타불로 알려진 금동신묘명삼존불(국보 86호).

중생에게 띄우는 아미타불의 미소

용인 호암미술관 8월말까지
삼국~조선 불상·불화 전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누구나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신앙. 전시대에 걸쳐 기층민중으로부터 왕실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숭상돼 왔으며, 불교미술의 중요한 주제가 돼 다양한 미술품이 조성돼왔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이 3일부터 8월30일까지 개최하는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은 미술-아미타전'은 우리민족의 다양한 미의식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호암미술관의 테마전.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된 아미타계 불상 불화 사경 전적 불구 등을 한자리에 모아 아미타신앙과 미술의 두 측면을 조망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특히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미타불에 담긴 자비의 미소는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 줄 것이다.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은 아미타계 미술의 세계는 다채롭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동신묘명삼존불(제85호·고구려 571년), 금동관음보살입상(제85호·삼국시대), 아미타삼존도(제218호·고려) 등 국보 3점과 금동관음보살입상 2점(제780,927호·통일신라), 지장도(제784호·고려), 수월관음도(제926호·고려),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제940호·조선) 등 보물 5점 등 총 42점의 아미타관련 유물이 선보인다.

고구려의 '금동신묘명삼존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미타불. 명문에 의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는 다섯 사람이 결사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신앙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경주시내 남녀노소가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할 정도로 크게 유행했다. 아름답고 정교하기로 이름난 고려불화. 역시 아미타도가 주류를 이룬다. '아미타삼존도'는 고려 아미타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구성을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되며, 수월관음도는 중생의 현실적인 고통을 구제해주는 자비의 보살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의 아미타신앙은 민간신앙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이 여러 청중에게 설법하는 모습의 '아미타극락회상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되었던 민속화풍의 감로탱에도 아귀를 구제해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이 등장한다.

무한한 생명과 빛의 부처님

아미타불 무량수불(無量壽佛·무한한 생명), 무량광불(無量光佛·무한한 빛)로 불리우는 아미타불은 본래 인도의 한 국왕이었으나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돼 왕위를 버리고 승려가 된 법장(法藏)비구. 48가지 소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가 됐다. 이후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수행자는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권속으로는 관음, 세지, 지장보살이 있다. 관음과 세지보살은 각각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며,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의 권속으로 등장한다. 지장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미타불의 권속이 된 듯하다.

윤기석 기자

"아름다움 어디서 오나?"

서울대 최초의 고졸강사 목수 신영훈씨 첫 질문



◇서울대 강단의 첫 강의. 목수와 학생들 모두 진지하다.

지난 4일 서울대 인문관 209호 원탁강의실. 국사학과 석·박사과정 23명의 학생들과 신영훈(64·목수한옥연구소장)선생이 만났다. 학생들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주고받는 의식을 치를 겨를도 없었다.

"반갑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다. 긴장감이 돌았다. 이내 불쑥 던지는 질문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예술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는 백묵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능화 선생은 〈한국불교통사〉에서 '工術發達은 至奪天造(공술발달 지탈천조), 하늘의 재주를 취할 뿐이라고 했어요. 천연(天然)스러움과 사람의 어우러짐일테지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대가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예술사 연구'라는 대학원강좌의 첫 강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재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또다른 풍경이다.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안해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가져가세요. 주춧돌 자료카드만 3천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이니까 오늘은 주로 내가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부한만큼 질문할테고, 알아들을 것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졸 학력의 목수가 서울대 강단에 선다.' '특강이 아닌 서울대 정규강좌에서 고졸자가 강의하기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신선생은 한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우리 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펼쳐보인다.

그의 정규학교 최종학력은 고졸. 55년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해에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장이었던 최순우 선생의 일을 도우면서 우리 것을 찾고 집짓는 일에 들어섰다. 한때 전형필 선생의 장학금으로 성균관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2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그리고 올해로 마흔 네해를 맞았다. 지금의 직업은 집짓는 목수다.

집 지을 때 나무로 하는 분야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목업행수(木業行首)라는 직책이 있다.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아가 집짓는 일을 아뢰던 사람이다. 한 시대에 몇 사람 뿐이다. 그 밑에 좌편수 우편수가 있다. 목수 신영훈씨는 여기쯤에 해당된다.



◇목수(木手) 신영훈. 그는 학생들에게 400년 우리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던 자신의 경험을 모두 가져가라고 당부한다.

집짓기 44년 외길 한시대 몇명뿐인 목업행수
순천 송광사·진천 보탑사·파리 고암서방 등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곳에 그의 손길과 혼
"우리의 건축은 자연과 사람 어우러진 예술"

순천 송광사, 서울미아리 삼선포교원, 운문사 대웅전, 프랑스 파리의 고암서방, 진천 보탑사 등 이름만 대도 알만한 곳의 집짓기에서 그는 목업행수를 해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최소한 전문대를 졸업해야 시간강사를 맡을 수 있다. 그래서 한때 서울대 교무처에서는 신선생의 강의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국사학과 교수들은 모두 찬성이었다. 해당분야의 권위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지혜를 전할 수 있다면 학력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작 신선생은 누가 추천해 강의실에 섰는지도 모른다. 강사 임용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언론의 부산스러움도 불편하다. 잠깐의 휴식시간에 만난 기자에게 "원숭이골이 됐어" 하며 웃었다.

'붙잡힐 것 같아' 강의 요청을 꺼렸지만 이번 만큼은 지인들의 권유를 애써 물리치지 않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강의 일성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라는 질문이었듯,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흔들기에서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것에 대한 다시 보기. "우리나라 건축사 개념은 서양식이예요. 자료만 우리 것을 넣어 분석했을 뿐입니다. 서양건축사는 살림집과 관계 없는 공공건물이 연구대상이고, 또 그 양식의 변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보다 집 위주의 분석일 수밖에요. 집은 남 보라고 짓는 것이 아니지요."

"첨성대를 지을 때 어떻게 수평을 맞췄을까요? 또 장군총을 지을 때 그 육중한 화강암을 어떻게 자르고 운반해서 쌓았는지 어느 책에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려면 그냥 '갖다 쌓았다' 말고 '이렇게 나르고 쌓았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5천년이라는 역사의 곳간은 애정을 지닌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엽니다."

신영훈 선생이 애타게 전하려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대체 어떤 것일까. 89년 초판을 펴내고 지난 해 7쇄를 찍어낸 〈한국의 조형〉(대원사)에 실은 사진 두 장-'뒷산을 닮은 지붕'. '工術發達은 至奪天造'란 화두가 예서 풀어진다. 사진설명은 이렇다. "각이 넓은 삼각형 형태의 뒷산과 맞배지붕의 넓은 각이 서로 닮았다. 산의 수림과 어울려 자연에 동화되는 선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건은 '뒷산을 닮은 지붕'으로 시작됐다.

정성운 기자





◇고창 선운사(위)와 충주댐으로 물에 잠긴 청풍고을의 '뒷산을 닮은 지붕.' 신영훈선생이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행품(道行品) ④

三定爲轉念 삼정위전념
棄猶行無量 기의행무량
得三三窟除 득삼삼굴제
解結可應念 해결가응념

삼정으로 한생각 돌려라
버려야 할 행업은 한량이 없다
삼정얻어 삼독을 없애면
반연맺힌 것 풀어 비움에 응할 수 있다.

知以戒禁惡 지이계금악
思惟慧樂念 사유혜락념
已知世成敗 이지세성패
息意一切解 식의일체해

계율로써 악을 막을 줄 알고
지혜로써 사유를 즐기면
이미 세상의 나툼을 아는 것
뜻을 쉬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리

광연품(廣衍品) ①

施安雖小 시안수소
其報彌大 기보미대
慧從小施 혜종소시
受見景福 수견경복

是爲正習 시위정습

정진 오로지 정진하여
바름을 익히고 그른 것 버려서
제 몸 닦아 스스로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

既自解慧 기자해혜
又多學問 우다학문
漸進普廣 점진보광
油酪投水 유락투수

이미 스스로 지혜를 알고
또한 학문이 쌓이면
점차 나아가 두루 퍼지기를
기름이나 우유를 물에 탄 것 같다

自無慧意 자무혜의
不好學問 불호학문
凝縮狹小 응축협소
酪酥投水 락수투수

제 스스로 지혜가 없고
학문도 좋아하지 않으면
엉기고 쫄아들고 작아지기를
정제우유를 물에 탄것 같다

近道名顯 근도명현

"바름을 익히고 그른 것 버려서 제몸 닦으면 바로 습관이 된다"

베푸는 안락이 비록 작더라도
그 갚음은 더욱 크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베품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된다.

施勞於人 시노어인
而欲望佑 이욕망우
神祭鬼神 양구귀신
自遺殃怨 자구광원

사람들에게 수고로움을 끼치고
거기서 큰 복 돌아오길 바란다면
재앙과 허물이 저를 먼저 찾아와
크나큰 원망과 맞부딪치게 된다

已爲多事 이위다사
非事妨造 비사역조
恣樂放逸 기락방일
惡習日增 악습일증

이미 많은 일 겪었어도
되잖은 일 또 만들어서
풍류 즐기며 방탕하게 놀면
나쁜 습관 날이 갈수록 늘게 된다

精進惟行 정진유행
習是捨非 습시사비
修身自覺 수신자각

如高山雪 여고산설
遠道闇昧 원도암매
如夜發箭 여야발전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 드러나
높은 뫼 봉우리에 쌓인 눈 같다
도를 멀리하여 어둡고 어리석으면
밤 중에 화살겨눠 쏘는 것 같다

爲佛弟子 위불제자
常寤自覺 상오자각
晝夜念佛 주야염불
惟法思衆 유법사중

부처님 받드는 제자 되었으면
언제나 깨어있어 스스로 깨닫고
밤낮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생각하고 무리를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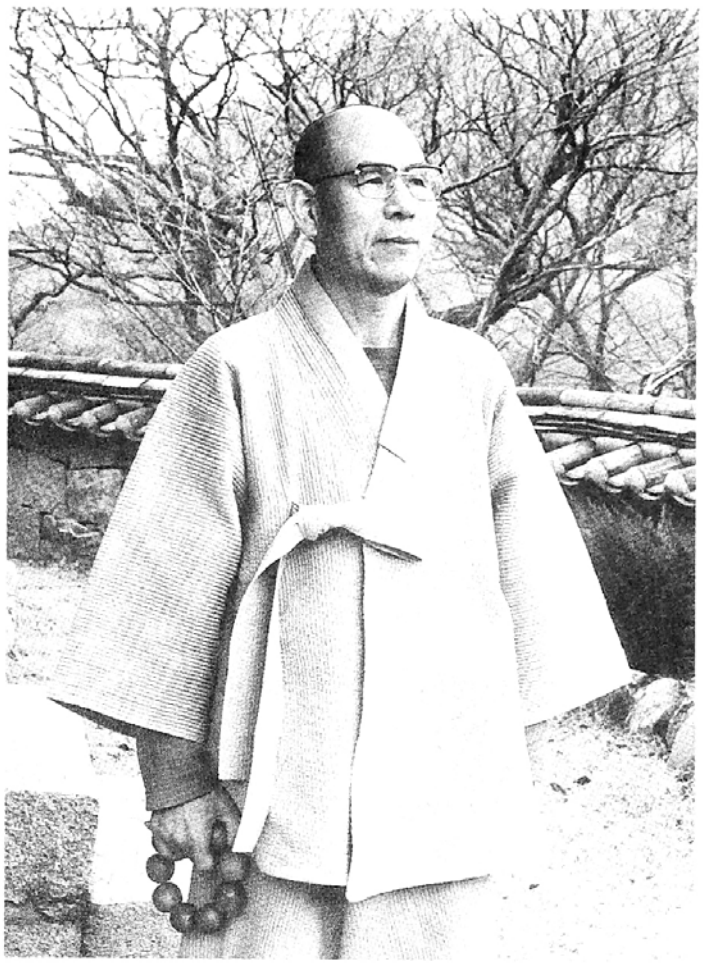
爲佛弟子 위불제자
當寤自覺 당오자각
日暮思禪 일모사선
樂觀一心 낙관일심

부처님 받드는 제자 되었으면
마땅히 깨어있어 스스로 깨닫고
낮이나 밤이나 선정 닦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한마음 관하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어려울 때일수록

벽파스님 〈부산 금강암 회주〉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입춘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맞이하니 산내 암자에까지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펴고 가슴 가득 봄맞이를 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이 찌들고 힘들어도 자연은 그렇게 순리대로 봄을 채비하고 우리앞에 다가옵니다. 자연은 이렇듯 순리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한파를 이겨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지요. 찬 겨울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지혜가 있다면 언젠가는 저절로 얼음이 녹아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앞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의기소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참다운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흥청망청하다 갑자기 어려워지니 마음적으로 더 고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본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산속에서 방 한칸 겨우 있는 조그만 초막을 지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수행자가 하룻밤을 묵어가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책에는 공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할 때 펴 보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경구(經句)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수행자는 어려울 때마다 그 책을 보며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도 소중하니까 그냥 둘 수 없어 벽에 선반을 매어 그위에 올려 놓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쥐가 그 책을 갉아 먹곤 해요. 가만히 두면 큰일나겠거든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 한마리를 데려왔어요. 고양이를 키우니 쥐가 없어 좋기는 한데 고양이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우유를 줘야 하니 우유를 위해 소를 한마리 키우고, 이렇게 가축이 늘어나니 혼자 살림을 할 수가 없어 여자를 하나 얻었죠. 그렇게 몇년이 지나고 나니 그사람 주변에는 아내와 아이들, 가축, 논 밭들이 주렁주렁 달려 눈을 뜨면 그 뒷치닥거리에 그만 정신을 뺏겨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너무 한심해서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이 먹고 사는데만 집착해서 살게된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 들어가니 그 책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얘기에서 알수 있듯이 사람은 작은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게 되면 큰 욕심, 큰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과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사소한 욕심, 작은 집착부터 자꾸 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약력
- 1936년 충남 生
- 1959년 범어사에서 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73년 범어사 주지
- 1975년 총무원 교무부장
- 1978년 범어사 주지
- 1980년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
- 1987년 원효학원 이사
- 1990년 범어사 주지
- 現 금정장학회 이사장

무슨 일이든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짜증이나 원망 사라지고 오히려 사명감 · 책임감 생겨요

삼독심을 버려야하는 까닭은 놔두면 탐·진·치가 커져 본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3년전부터 생식을 하고 있어요. 생식을 하면 익힌 음식을 먹지 않으니 먹는 즐거움을 비운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비우니 잠자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줄어들고 색에 대한 욕망,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가지 집착이나 욕망을 비워내면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따라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생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생활중에 가능한 것부터 집착,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해도 그것은 길을 제시해주는 것일뿐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목건련과의 대화중에 "나는 무상안온의 경지가 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일뿐 그곳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고는 각자에게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전지전능의 구제자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스승임을 잘 말해 줍니다. 작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잘 알지만, 행하고 안하고는 각자 본인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나는 22살때 통도사 극락암에 가서 한 5개월정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친구분께서 극락암을 소개해 주셔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경봉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세요. "서울서 왔습니다"했더니 "여기 뭐하러 왔느냐?" 하시길래 "있을려고 왔습니다."했죠. 또 스님께서 "너, 그럼 서울서 오기 전엔 어디서 왔느냐?"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갑자기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때 무척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후 하루도 빠짐없이 경봉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지금도 유난히 기억되는 것은 스님의 행(行)이었습니다. 산중 암자인지라 여름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봉스님은 아무리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도 절대 쳐서 죽이는 법이 없이 부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봉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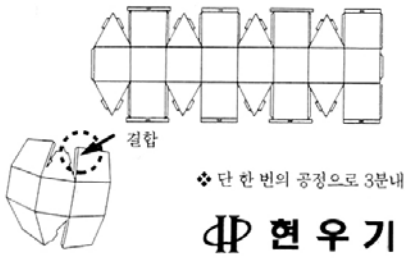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동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필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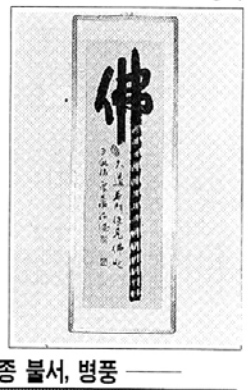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神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은재와 용이 있고 법과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큰스님 수행한담

욕심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제시할 뿐 行은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90년 여름, 당시 부산불교연합회장 벽파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연합회 간부 스님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나섰다.

채나 손으로 쫓아 버리기만 하셨어요. 그걸 보니 스님과 내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지요. 스님은 사람의 근본부터 일러주시더군요. "너는 부모에게서 몸을 받았지만 부모에게 몸받기 전의 너라고 한다면 너는 어디서부터 있었겠느냐" 라든지 "네가 나와 말을 할 때 그 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 의문이 점점 깊어졌지요. 본래 그 암자에 간 목적은 따로 공부할 것이 있어서인데 그 공부는 별로 안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참선·경전공부만 하고 지낸 셈이죠.

사탐이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문을 품고 집에 와서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한달뒤에 다시 절로 들어와 버렸어요. 속가와는 십년이상 소식을 끊고 지냈습니다. 범어사로 가서 머리깎고 그 이후 선방이나 토굴 등에서 공부하면서 지냈지요. 토굴에서 혼자 지낼 때는 힘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중들과 같이 지낼 때는 그냥 하는대로 같이 하면 되는데 토굴에서는 자신을 극복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태백산 토굴에 4개월 예정으로 들어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 5개월 반정도를 지내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4개월의 최소 식량만 가지고 갔으니 한달 반 가량을 거의 굶다시피 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마침 큰 나무에 다람쥐가 먹을려고 갈무리 했던 것인지 밤과 도토리가 발견되어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장님의 가피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때는 어렵다느니 어떻다느니 생각도 없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셈이죠.

여러 선방과 토굴을 돌며 여러 경계를 맞으며 행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한 절에서 출발하면 다음 절에서 저녁공양을 하도록 걸어서 다니는 것을 사참댄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큰스님들 친견도 하고 자기 공부도 점검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하루는 오어사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서 기림사로 향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적도 없고 갈곳도 없는 곳에서 오두막 불빛을 하나 발견해서 하룻밤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노인 한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께서 고구마를 삶아 주시면서 얘기를 걸어 왔습니다. "젊은 스님은 수좌십니까?" 하고 물길래 나는 수좌라고 하고 다니던 때니까 당연히 "예"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 노인은 한가지 물겠다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삼처전심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처전심만 하면 되는데 왜 삼처전심을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삼처전심이라고 하면 영산회상의 염화미소, 다자탑전에서의 반분좌, 열반시 곽시쌍부, 즉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세 곳에 걸쳐 세번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좌라고 했으니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앉아 있다가 도망치듯 얼른 범어사로 돌아왔습니다. 동산큰스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처전심만 하면 되는데 왜 삼처전심을 하셨습니까?" 동산스님께서는 "꿈도 생사도 없는데 너는 어느 자리에서 안심입명할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어 오셨어요. 또 꽉 막혀 된통 호통만 맞고 말았지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갑갑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뒤 전리도 강진의 백련사라고도 하고 만덕사라고도 하는 도량에 가게 되었어요. 그 곳은 동산스님께서 좋아하시던 도량으로 뒷산에 오르면 남해바다가 환히 보이는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뒷산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는데 앞서 가시던 스님께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나를 그윽히 바라보시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시며 바다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를 가리키셨어요. 그때 내가 느낀 바가 있어 대답을 하고 절을 하니 스님께서 전법게를 내려주셔서 동산스님을 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동산스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수행의 근간이 되어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자들도 생활속에서 공부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만물만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아이, 부모, 친구들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행입니다. 크고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친구, 이웃부터 편안하게 이끄는 것에 마음을 모아 간다면 저절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몸, 입, 뜻으로써 악업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몸, 입, 뜻으로 선업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새롭게 시작할땐 묵은 마음 버리세요"

"이웃 편안하게 하는것 자비행 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실천으로 하루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겠습니다.

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려면 오늘의 첫마음을 잊지 말고 지나간 어제의 마음을 담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화엄경〉 제11품 보살십주품을 보면 첫번째가 초발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지나간 서운한 것, 원망스러운 것, 기분 나쁜 것 등은 담아두지 말라는 뜻이지요. 한 시점을 보내고 한 시점을 새롭게 맞이할 때 지나간 그 마음들을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묵은 마음까지 담아두게 되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니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지혜는 몇가지 구체적인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생각에 맞추면 못마땅하거나 원망스럽다가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되어 버립니다. 두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비춰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면 시비가 되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면 도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번째는 임제스님 말씀에 '수처작주(隨處作主)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니라'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그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에 앞서 오히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꼭 남의 것을 대신해 주는 듯이 사니 모든 것이 다 남탓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안되면 본래 없었던 셈 치세요. 원래 없는 것이라고 치면 기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게 됩니다. 남의 잘못과 행동을 보지말고 오직 자신의 행동이 법에 맞는지만 살피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그속에 일원으로 속해 있는 나에게서 출발함을 깊이 살펴 스스로 자각있는 행동을 해 나가도록 자신을 이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44

인왕경



김 승 호
동대 한국문학硏 연구원

역사의 벌벌 격랑을 다 헤쳐온 우리에게 IMF구제금융 역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보다 더한 고초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돌려 말해 과거를 돌아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아마 신라 고려시대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위기를 만났다면, 국가적으로 위난극복법회를 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당시 단골처럼 베풀어졌던 것이 인왕백고좌회(仁王百高座會)였다. 1백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불상과 불보살을 백구씩 봉안한 후에 백명의 법사를 초청하여 강설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 〈인왕경〉이었다.

이 경은 신구역(新舊譯) 이본(二本)이 있다. 구역은 구마라습삼장이 번역한 것으로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으로 불렸고 신역은 불공삼장(不空三藏)이 번역하여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 한다. 약해서 흔히 〈인왕반야경〉 혹은 〈인왕경〉이라 하기도 한다. 인왕(仁王)은 당시 16대국의 국왕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왕에 대하여 부처님이 각각의 나라를 수호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다경〉의 심법(深法)을 설한 경전이다. 이 경을 수지하거나 강설하면 칠난(七難)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재해가 없고 만민이 안락하게 되므로 옛적부터 〈법화경〉 〈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의 하나로 꼽아왔다.

〈인왕경〉은 총 2권8품으로 구성돼 있다. 제1품에서는 부처님 당시 파사익왕을 중심으로 16대 국왕과 부처님이 문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품에서 7품까지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의 방법을 밝힌 다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8품에서는 불멸후에 정법이 쇠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일체 재난과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법문을 수지하는 것 밖에 없음을 일러주고 있다.

흔히들 불교의 지향점을 개인의 구원이나 첨잡으로 몰고간 나머지 주위를 외면하는 소극성을 힐난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소치이다. 〈인왕경〉은 만물간의 인과율이나 유기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과 위정자, 국가간의 관계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적 위기일수록 반드시 음미 독송해야 할 말들로 채워진 보고라 할 수 있다. 가령 부처님이 16대국의 왕에게 설하는 아래 말은 깊은 뜻과 여운으로 남는다.

"성하면 반드시 쇠하는 것/실한 것이 반드시 헛된 것이니/중생들은 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무지 환상에 지나지 않네/…형상(물질, 육신)과 정신은/언젠가 모두 떠나야 할 것/ 이 세상 모든 것 다 그러하거니/나라인들 어찌 그렇지 않을까."〈호국품 제2〉

확실히 IMF는 무상을 생각하게 해주는 극적인 사건임이 틀림없다. 강의를 하거나 연구원에서 종종 "IMF시대니 우리도 IMF인간이네"라는 자조섞인 농담을 듣는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무상을 생각할 겨를은 커녕 백일몽에 취해서 스러짐의 미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왕경〉의 얘기를 들려준다.

"대왕이여, 하루 두 번 이 경을 강독하라…다만 나라를 지킬뿐만 아니라, 또 복덕을 지키는 힘도 될 것이며 부귀와 관위와 질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인왕경〉에서 대왕들에게 하신 부처님말씀은 내호와 외호에 대한 깨우침이자 처량하기 이를데 없는 지경으로 추락한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옛적의 허울을 벗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치와 방종에서 나와 자신을 신독하라는 가르침이다. 요약컨대 외적이 어느새 들어와 자리를 틀어 허세와 오욕으로 가득차 있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제 〈인왕경〉에서 말하는 신인(信忍) 지인(止忍) 견인(堅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한다면, 오래지 않아 심중의 칠난(七難)은 소멸할 것이고 가라앉은 이 나라조차 승천하는 시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16대국 왕과 부처님의 '위기극복' 문답

"강독하라 … 나라 지키고 복덕 얻으리"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98사진영상의 해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1 ←



◇대동여지도에 합성한 백두대간 흐름도.

기획을 시작하며

산은 초자연의 인격이다.

스스로 분수령을 이루며(山自分水嶺)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 오고 있는 산맥. 한반도 3천리를 동서로 나누며 뻗어 내린 장엄한 산줄기(山脈)를 우리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부른다.

려암 신경담(1712~1781)은 지리서 〈산경표(山經表)〉에서 우리나라의 산맥을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나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를 동서로 구분하는 백두대간은 1정간과 13정맥을 품으며 언어 습관 풍속과 의식주의 다양한 문화를 일궈내고 있다. 지리산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남한 지역의 백두대간은 지도상으로 약 6백70㎞에 달하고 행정 구역상 6개도와 10개시, 18개군, 7개의 국립공원과 2개의 도립공원, 60여개의 산과 봉우리들로 형성된다.

산 자락마다 수 많은 전설과 문화유산, 삶의 애환들이 서려있는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 속살에는 부처님의 가

대간 670㎞ 문화유산 기행
불교사상·고승·역사 조명
국난극복·민족통일도 기원

르침이 고스란히 배인 사찰들이 수 없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려는 선인들의 염원이 산맥마다 장엄한 법당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루도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은 백두대간의 산사들은 우리민족 정신을 지탱해온 정신대간(精神大幹)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IMF시대라는 쓰디 쓴 시절인연을 맞아 한 날 물질의 노예로 전락 해버린 업보를 들여다 보고 있다. 허리춤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남누리와 북누리가 대치한지 어언 반세기. 힘차게 뻗어내린 백두대간이 토해낸 절경, 그 아름다운 남북누리를 자유로이 오고 가지 못하는 이 현실 역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현대불교신문은 98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백두대간의 자락마다 자리잡은 사찰들을 기행하며 국난극복, 민족화합, 통일성취의 염원을 새롭게 발원하고자 한다. 지리산을 시작으로 영취산, 속리산, 이화령과 새재,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미시령과 진부령을 거슬러 올라가며 민족의 스승들이 대간의 속살에 절을 지은 뜻을 조명하고 거기서 발원된 문화와 역사를 되짚어 본다. 백두대간의 장쾌한 숨결 사이에 스민 부처님과 역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을 캐낼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지리산

산 아래서는 봄꽃 망울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데 산 위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오고 가는 계절마저 초탈한 모습으로 반도의 남녘을 지키고 있었다.

백두대간의 끝자리 지리산 8백리 산역(山域)은 전북, 전남, 경남 3개도의 남원, 구례, 산청, 함양, 하동 5개군을 품고 있다.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을 중심으로 서쪽은 칠선봉, 덕평봉, 명선봉, 토끼봉, 반야봉, 노고단으로, 동쪽은 중봉, 하봉, 써리봉으로 산세를 뻗치고 있다. 또 주능선과 거의 수직방향으로 내뻗은 해발 7백~1천3백m의 가지능선들도 종석대에서 고리봉, 만복대로 이어지며 대간의 장엄한 기상을 내뿜고 있다.



◇위성사진으로 보는 지리산 8백리는 장엄한 호국의 도량이다. 〈사진제공: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8백리 산자락 호국염불 감돌고…

연기조사 5사찰 창건 화엄의 꽃 피워
법계사탑·실상사철불 민족정기 日유출막아

우리나라의 산을 말할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지리산. 서산대사는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함은 떨어진다(壯而不秀)"고 평했고 〈팔역지(八域志)〉의 저자 이중환은 '산수론'에서 지리산을 조선의 12대명산 중 하나로 꼽았다. 한반도의 오악 중 남악에 속하며 12종산(宗山)의 하나로도 불린다. 〈정감록〉 〈삼한산림비기〉 〈도선비결〉등 많은 도참서(圖讖書)들도 지리산을 피난과 보신의 승지로 꼽고 있다.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환란을 피하고 새로운 희망을 다진 곳으로 자리해 왔다.

피난·보신의 명승지

지리산은 명산인만치 명찰도 많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연곡사 산청의 대원사와 법계사는 신라때의 연기(緣起)조사가 창건한 절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연기조사는 인도에서 어머니와 함께와서 지리산에 터를 잡고 화엄사를 창건, 화엄학을 널리 현양했다고 한다. 연기조사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자리인 지리산에 많은 절을 짓고 지리산역이 바로 불국토임을 설파했을 것이다.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 아래의 법계사(法界寺)도 연기조사가 신라 진흥왕5년(544)에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1600m)에 위치한 절이다. 연기조사는 이 높은 곳에서 지리산 자락을 굽어보며 장엄하게 펼쳐진 산경들이 바로 법계의 실상임을 깨달아 그 이름을 법계사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뻗어내려 온 대간의 기상이 마지막 정점을 이룬 천왕봉 아래 법계사가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고려 우왕6년(1380)때의 황산대첩 관련 기록은 이 '우연이 아님'을 더욱 여실히 입증한다. 당시 5백여척의 배를 거느리고 현재의 충남 서천지역으로 들어온 왜구는 민가를 휩쓸고 다니며 무차별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고려의 군대가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배를 모두 불태워 버리자 왜구들은 옥천, 영동, 황간, 상주, 선산 등지로 내려오며 약탈을 계속했고 마침내 지리산으로까지 밀려났다. 지금의 전남 운봉 동쪽인 황산(荒山)에서 이성계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거의 모든 왜구들이 섬멸당한다. 황산대첩에서 패한 왜구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는 지리산의 산세를 살피고 '천왕봉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정기가 법계사로 인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래서 그는 법계사를 불태워 버렸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말도 이때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법계사는 창건이래 많은 환난을 입었다. 법계사의 환난은 우리민족의 환난이기도 하다.

1405년 정심(正心)선사에 의해 중창된 법계사는 1908년 일본군에 의해 다시 불타버렸다. 이 역시 법계사가 일본으로 흐르는 대륙의 기운을 누르고 있다는 풍수사상 때문이었다. 일본군에 의해 폐허가 된 법계사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더욱 피폐하게 됐다. 1981년부터 중창의 망치소리가 울리기 시작해 현재는 법당과 산식각 요사채들이 수더분히 앉아 있다.

법계사에는 자연석 바위를 기단삼아 3층석탑(보물제437호) 1기가 서있다. 높이 3.6m의 커다란 바위위에 서있는 이 탑의 높이는 2.5m이며 별다른 장식은 없다. 보물지정 당시에는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됐으나 최근의 조사에 의해 신라말의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계사 주지 진묵스님은 3층석탑에 대해 두가지 의문점을 전했다.

"법계사 흥하면 日망해"

"순탄치 못한 역사를 이어오며 한번도 도굴되지 않은 점과 여러번의 방화를 겪으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스님은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설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계사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보듬는 최후의 보루인셈입니다. 이 런 중요한 위치에 선 사찰이기에 많은 재앙을 입었지만 탑 만큼은 제 모습을 지키며 법계의 안녕을 상징하고 잇는 것이라 믿습니다." 법계사의 탑은 우리민족의 정기와 부처님 가르침을 꿋꿋이 지키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남원 실상사도 일본으로 흐르는 대간의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절이다. 신라 흥덕왕3년(828)에 증각(證覺)대사가 창건한 실상사는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숙종 16년 이후로 중창됐다. 천왕봉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실상사 약사전 철조여래좌상은 무게가 4천근이나 되는데 맨땅에 세워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일본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눌러 앉히기 위해서라고 믿어지고 있다.

실상사를 중창한 홍척스님이 도선스님으로부터 "이곳에 절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정기가 왜국으로 건너간다"는 말을 듣고 세운 것이 약사전이다. 실상사 약사전의 철조여래좌상도 법계사의 3층석탑처럼 우리 민족의 기상을 지키는 중요한 상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약사전의 문창호가 무궁화 꽃 모양이고 그 앞에 무궁화 나무가 서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실상사 보광전 안의 범종에도 일본과 관계된 이야기가 전한다. 현종5년(1664)에 제작된 이 종을 치는 부분에 일본지도와 비슷한 문양이 있기 때문이다. 실상사 인근 주민들은 "이 종을 치면 일본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어 일제때 실상사 스님들이 일본경찰에게 문초를 당했다"고 전했다.

반도지키는 정신대간

한 주민은 "실상사는 국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찰로 믿고 있다"며 "실상사가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개인의 신앙과 관련 없이 실상사의 존재를 호국의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고 그만큼 자부심도 컸다.

지리산은 산세가 웅장해서 영산인 것이 아니다. 민족의 정기를 보듬고 찬란한 문화를 지켜내는 반도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살에 세워진 절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르침을 전하며 민족안녕과 국운번창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을 지탱하는 정신대간의 실상 그 자체이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산 아래는 봄소식 한창인데 법계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일본으로 흐르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막기 위해 조성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위)과 법계사 3층석탑.

용성스님 어록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악수선(止惡修善)의 보통생활,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신앙생활, 어리석음을 굴리어 깨달음을 여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을 하자.

협찬: 대각사·대성사



◇텅빈 사리공을 드러낸채 쓰러져 있는 삼장사지 사리탑.

지리산 폐사지 삼장사지등 논밭 방치…보존책 시급

산청군 평촌리에 있는 삼장사지. 부도골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을의 계단식 논 한가운데에 3층석탑과 괘불대 한쌍이 서 있다. 경남도 유형문화재 31호로 지정돼 있는 석탑은 2층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석탑. 무너진 채 방치돼 있던 것을 몇 해 전에 복원해 놓았다. 이 탑에 대한 안내판은 민가에 쓰러진 채 놓여 있다. 명칭은 '대포리 3층석탑'으로, 지정내용은 '보물 제1114호'로 잘못 표기돼 면사무소 직원들이 환아 버렸다. 탑 전방의 오른쪽으로 4백여m 떨어진 밤나무 밭 사이에는 석종형 부도 2기가 쓰러져 있다. 10여년전 도굴꾼들이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돌보지 않아 부도 밑의 사리공이 빈 채로 드러나 있다.

생비량면 농협 뒤쪽 과수원 사이길을 지나면 둔각을 이루는 길가의 버랑위에 29구의 불상이 무리지어 새겨진 독특한 마애불상군(경남도 유형문화재 제209호)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선생', '○○부인' 등 각기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남원군 주천면 덕치리 안터마을, 남원에서 정령치로 넘어가는 고개길목 뒷산 너머에 파근사지가 있다. 석등의 중대석으로 보이는 석재를 비롯 건물의 기단지, 헐려진 돌담장, 와편 등만이 겨우 남아 옛 절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년전에는 도굴꾼들이 포크레인을 이용, 마구잡이로 사지를 파헤쳐 석조물들을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도난된 유물이 뭔지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않고 있다.

이밖에도 지리산 자락에는 단속사지, 승안사지, 수정사지 등 수많은 사지들이 방치된 채 내버려져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세살 교육환경 평생토록 영향"

어린이의 가소성과 불교적 환경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0〉



그림 · 이준석

"어머니따라 절에 다니다 미국가서 개종했으나 다시 불교에…"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생물이며 그 가능성은 어리면 어릴수록 강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걸을 수 있는 선천적 경향, 말을 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잘 걷고, 말하고, 읽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크게 달라진다. 이것을 가소성(可塑性)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를 인도의 '늑대어린이'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0년 10월 17일에 2세된 '아마라'라는 여아와 8세된 '카마라'라는 여아를 늑대굴에서 구출하여 양육한 바 있다. '아마라'는 1년 후에 죽었고 '카마라'는 9년 후에 죽었다. 처음에는 이 두 여아는 육체만이 인간이고 행동은 늑대와 흡사하였다. 사지(四肢)로 기어 다니고, 생고기만 뜯어 먹고, 늑대 모양으로 소리를 지르면서도 늑대 소리와도 다르며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었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 다녔으며, 고기 냄새에 매우 예민했고, 음식은 땅에 놓고 핥아 먹기만 하며 옷을 입히면 찢어 버리는 등 인간의 접근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 후 인간과 함께 생활함에 따라 점차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변하였다.

또 하나의 예를 1988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에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세퍼트 암컷이 돌봐온 4살짜리 서독 어린이가 개와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고, 벌거벗은 채로 닭뼈를 씹으며, 세퍼트를 따라 기어 다니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흐르스트 베르너'라는 이 어린이는 지금도 개처럼 짖고 코를 킁킁 거리는 것은 물론 엎드린 채 팔을 앞으로 쭉 뻗고 그 위로 머리를 올려 놓고 잔다는 것. 지난해 그의 집을 방문했던 사회사업가들에 따르면 30세 된 아버지가 실직 상태라 가정 형편이 엉망이었으며 부모들은 그를 개와 함께 두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곤 했다는 것.

위의 두 예화를 보면 인간이 어릴 때 가소성(可塑性)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하여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은 어릴 때 동물 세계에서 자라면 동물같은 행동양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물을 인간사회에서 길러도 인간같은 행동양식을 배우지 못한다. 그 까닭은 동물에게는 가소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소성의 차이는 인간의 경우는 어린이와 어른의 행동상의 차가 대단히 큰 데 비하여 동물은 새끼와 어미의 행동차가 거의 없는 데 기인한다.

병아리는 계란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미 닭과 같이 걸을 수 있고, 소리내며 모이를 쪼아 먹을 수 있다. 강아지의 경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큰 개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가 너무나 심하여 그 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여하에 따라 선천적 경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를 무력하고 미숙하다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및 교육 여하에 따라 달라지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존재로 존중하고 호호해야 한다.

인간의 가소성은 크고 동물에 있어서는 가소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였지만 동물에 있어서도 가소성이 있다. 어떤 동물 학자는 '고양이 실험'을 한 바 있다. 고양이 새끼 59마리를 3군(群)으로 나누어 키웠다. 제1군은 고양이 새끼를 쥐새끼와 함께 키웠으며, 제2군은 고양이 새끼끼리만 키웠고, 제3군은 어미 고양이와 함께 키웠다. 이 새끼 고양이가 커서 쥐를 잡는 선천적 경향의 발현을 관찰한즉, 제1군은 18마리 중 3마리만 쥐를 잡고 15마리는 쥐를 못 잡았으며, 제2군은 20마리 중 9마리만이 쥐를 잡았고, 제3군은 21마리 중 18마리가 쥐를 잡고 3마리만이 쥐를 못 잡았다. 동물에 있어서 가소성이 이러하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가소성(可塑性)은 어리면 어릴수록 크다. 이러한 예를 독립성에서 들어 보자.

독립성이 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릴 때 어른들의 몸에서부터 떼어서 키워야 한다. 업어 주고, 안아 주고, 품고 자며, 무릎 위에 앉히면서 키우면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 의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간이 될 가능성도 또한 크다. 물론 어릴 때 형성된 사람 됨됨이가 평생동안 지속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릴 때의 환경(부모도 일종의 환경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소성(可塑性)을 불교적 현상에서 해석하면 더욱 흥미롭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석가모니(釋迦牟尼)와 같이 부처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불성이 선세(先世)의 업으로 두텁게 가리워져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阿修羅)와 같이 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불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가소성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소성이 큰 어린이에게 우리는 어떤 불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불자의 한 사람으로 통절하게 느끼고 유감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울대사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강습에 수많은 수녀 및 개신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단 한 명의 비구니를 만난 일이 없었던 점이다. 과연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서도 이 나라에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을지?

최근에 사찰에서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설립한 유아교육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세이며 또한 유아나 아동을 위한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특수한 프로그램이 각 사찰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불자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불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불자들의 부처님오신날 집안의 꾸밈새와 개신교 신자의 성탄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큼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부처님오신날 마치 개신교 신자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흡사하게 각 가정에는 연등을 반드시 걸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에 갈 때는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어떤 여성불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 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개신교의 신자가 되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릴 때 불교적 경험이 솟아 올라 지금은 생활전체를 불교화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불교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가소성이 대단히 커서 이때 형성된 불교적 신행(信行)은 영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늑대굴서 산 아이 늑대처럼 행동 절마다 아동교육프로 마련해야

생활불교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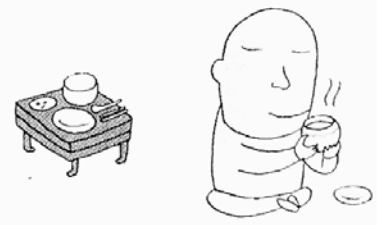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세."

다반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의 흔히 생기는 일을 말한다. 항다반사(恒茶飯事)가 줄어서 다반사로 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와 도를 음미하는 차원에서 차를 즐겼다. 아랫사람은 좋은 차를 윗사람에게 드리고 싶어했고 친한 친구끼리 차를 나눠 마시려고 했다. 그래서 차가 예로 격상되었다.

'다반사의 일'을 '존경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승화시킨 예가 차례(茶禮)다. 우리는 한해가 시작되는 날에 조상의 얼 앞에 모여 경건히 밥을 드리고 차를 올린다. 이를 차례라고 한다. 차례를 지낸 다음 그해의 서원과 각오를 서로 나눈다. 가을이 되어 풍년이 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다려 조상에 드린다. 그래서 추석이란 명절이 생겼다.

다반사(茶飯事)

삼매에 들면 평상심이 곧 불심 밥먹고 차먹듯 흔히 생기는 일

다반사는 도(道)를 이루기도 했다. 차를 마시는 정신과 태도와 정성을 모으면 나름대로의 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다도(茶道)'다. 〈동다송(東茶頌)〉에 따르면 차의 본령(本領)은 중정(中正)에 있다. 다관에서 차가 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중정이 살아나면 차인(茶人)은 시공(時空)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 시공의 흐름을 알면 도(道)에 통했다고 할 수 있다.

차례는 형식이 우선이고 다도는 정신(精神)의 도(道)를 추구한다. 정신세계의 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차와 선을 한 맥락으로 본다. 이를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한다. 차 마시는 정신에 선이 있고 선하는 과정에 다(茶)의 도가 통한다는 뜻일 것이다.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속에 삼매의 도가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다반사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경지를 알면 평상심이 모두 불심이 된다. 평상심 속에 불심이 있다고 본 경지에서라면 풀 한 포기, 꽃 한 잎이 모두 불심이 된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닌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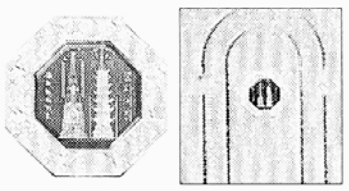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드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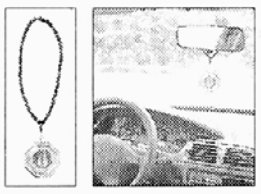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8cm×8cm ·가격: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질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메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어덥방위에는 주역의 괄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괄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괄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지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3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악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법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간경화·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3-16
011-337-0353
02-809-1831

대보생식
02)
427-9162~3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심의학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28·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병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 강좌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사무실 함께 쓰시면서
강의도 겸하실 분
▶ 위치 : 조계사 부근
▶ 평수 : 약 12평
▶ 주변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 보증금 없음. 월 25만원
☎ 723-4260~1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02)583-0041(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 생 모 집
■ 모집과정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 지원자격 : 1) 전공과정-포교상담의 시영감을 가진자
2) 연구과정-법회상담의 지도자로 시영감을 가진자
■ 수업년한 : 1)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2) 수업기간 2년 소형버스 통학가능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 0582)535-1987
☎ 02)931-6075~6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신수·궁합·택일
진로선택·작명·기타
기초부터 증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30~4:30(3시간씩)
■ 수강료 :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57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 氣 功
2년과정으로서 총장수료증과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 접수기간 : 1998년 3월 16일까지
■ 교 학 과 : 02)260-3727
■ 지도교수 : 설적운 스님(골굴사 주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세계 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암사 불교교양대학 제2기생 모집안내
다음과 같이 제2기생을 모집하오니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초심자 환영)
■ 기간 및 시간 : 1998년 3월 11일~6일 4일(3개월)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 소 : 선암사 대웅정
■ 인 원 : 약 70명(접수순으로 끊어서 남는 인원은 다음기로 접수함)
■ 교육내용 : 기초교리전반, 참선, 사경, 사원예절, 사찰탐방, 기도하는 법, 수계식 등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실시
■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처 : 1998년 3월 11까지
선암사 종무소 : T. 803-7573, 803-7522(불교교양대학본부 접수처)
■ 입 학 금 : 일만원정(입학금, 교과대금, 수강료 포함, 분할납부가능)
■ 개강식 : 1998년 3월 11일 오후 2시 선암사 대웅전
대한불교조계종 **선 암 사** 주지 원 타 합장

氣明 綾岬子
선센터 회원
개인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으로 밝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룹환영,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개인상담 가능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현재 수업진행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 직접강의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개인 운세도 직접 감정중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혜능불교대학 內 ☎ 02)482-4550, 488-1569

• 구인구직 •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 성훈
※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종무원 구함
성실하고 신심있는 종무원 구함

모집분야	자 격	참 고
사무원(여)	컴퓨터워드 자격소지자	불교신자로 숙식가능한 자에 한함
매표원(여)	신심있고 성실한자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문의 ☎ 032)937-0125(FAX)5450
대한불교조계종 강화 **전등사**

구 직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 면허: 일종대형면허
■ 경력: 불교조각·목공예 경험 있음.
■ 근무지 : 부산, 충청
051)361-0253
016)555-0253

함께 일하실 불자
노력과 성실로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정년퇴임·명퇴하신분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장학·경조·육아수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959-8966~7
FAX 02)959-8968

대 모 집
■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 기 간 : 1998. 2. 27~ 3. 5
■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 법회안내 •

● **무료당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대학생: 월·수·금 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 불교용품 •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영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불교미술 •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정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 기타 •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로 **초재혼 회원모집**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960-4564~5

분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전문가와 만나십시오"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렛 상품전단
-CI BI 패키지 심볼 로고타입 특수인쇄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다 POP
광 고 는 해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가 없으십니까?
잘못으로 낭패를 보시겠습니까?
광 고 한 수십시오! 늘이 아닌 관리하음으로 분자님의 광고를 최선해 드리겠습니다
문 제를 해결하라고 걱정하보다 두뇌에서 일 수 있는 생생한 광고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가 장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회신을 드리는 광고회사 **애드 윌** 입니다.
WILL
광고문의 :(02) 512-8868·8869 원종 합장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
080)723-4082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남양주
◇ 부 지 : 125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5평
◇ 가 격 : 1억 5천
◆서울 근교도량으로 시설일체 완벽하게 구비됨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02)723-4082

◇ 대 지 : 300평
◇ 법 당 : 23평
◇ 요사 2동, 방4칸, 지하수, 차고, 시장 주차장 5분거리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충남 논산지역
◆부 지 : 3,000평
◆법 당 : 30평 목조 단청 필
◆요 사 : 2동 51평, 24평
◆가 액 : 1억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특 징 : 전통 한학관광마을 부근에 소재한 사찰로서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고 있는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 가능함.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속인, 보살, 무속인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대형 주차장·우물샘 있음.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 수도·포교겸용 토굴
◇ 위 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 대 지 : 185평
◇ 건 평 : 20평
◇ 가 격 : 3,000만원
0595)84-6204

◆ 개인주택·포교원 명당자리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번지 157평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16 220평
◇ 가격 : 350만원
◆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150m (도보로 1~2분 소요)
02)379-8404
02)379-8425

◇ 대구시내 포교원 20평 주택
◇ 사정상 급구함
◇ 법당 시설 완비.
◇ 가 격 : 보증금 500만, 월 20만원
◆ 여스님 환영.
053)653-4846
053)814-9325

◇ 위 치 : 광진구 구의1동
◇ 평 수 : 20평(3층건물 2층)
◇ 가 격 : 1천만원, 월 50만.
(권리금: 8백만)
◆ 동부경찰서와 100m내 근접
02)447-8487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190-20 시장입구 최고요지 - 백담사 포교원
◇ 건 물 : 3층 25평
- 법당, 주방1, 방1, 욕실, 화장실1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 후불평화, 신중평화 무료로 드림
051)524-7224
012)956-7879

◇ 위 치 : 경북 대구 달서구 성당시장 사거리 최고요지
◇ 건 물 : 3층짐 3층 60평
- 법당, 큰방2, 요사채, 주방, 화장실, - 종무소, 옥상사용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임주후 당장 법회할 수 있음
053)656-6609
053)654-7163

◇ 위 치 : 경기 북부지역소재
◇ 부 지 : 2,800평
◇ 법 당 : 34평(신축불사)
◇ 요사채 : 2개동 외 휴양관
◇ 매 가 : 4억 7천만원
◆ 산새및 주변경관 수려함

◇ 위 치 : 대구시내 소재
◇ 부 지 : 2,300평
◇ 법 당 : 24평(신축불사)
◇ 요사채 : 3개동
◇ 매 가 : 4억 7천만원
◆ 산새및 주변경관 수려함

◇ 위치 : 경남 함양군 소재 멋진 절터
◇ 부지 : 2,000평
◇ 매가 : 8천 5백만원
◇ 위치 : 밀양 인근 소재 암자
◇ 대지 : 103평, 건평21평, 신축건물
◇ 매가 : 3,800만원

◇사찰 양도·양수하실 분 상담 환영!
좋은인연, 좋은기업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053)744-1713

◇ 위 치 : 구로구 6차선 대로변
◇ 건 물 : 4층 약30평
◇ 법 당 : 방2, 주방, 욕실겸 화장실
◇ 가 격 : 보증금 1,500만(시설비 포함) 월 35만원
◆ 특 징 : 입주즉시 포교활동 가능
02)867-3803
015)8457-3803

기도도량, 포교도량, 휴양지
◇ 위 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내
◇ 평 수 : 법당과 요사채 50평 (기와채 증축)
◇ 가 격 : 전세 4천만(월세가능)
◇ 시 설 : 현대식 완비
◆ 산택마을 복판에 자리잡고 있음
011)810-2073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9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층건평 : 35평중 법당1칸, 방2칸, 부엌 1칸,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사찰 및 불교대학·고아원·양로원·최적지
◇ 위 치 : 광명시 고속도로 옆
◇ 부 지 : 6,100평(지하1층, 지하 2층)
◇ 내 용 : 이 부지는 경인 2고속도로와 안산방향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지의 명당터임
02)502-0338
02)507-040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 하나로 천지가 흥하고 망해

"방편없이도 천도할 수 있어요 바다를 다기 삼고 과일 향기삼고 향을 양식삼아도 다 통합니다"

육법공양의 올바른 뜻

문 오늘은 스님께 재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BBS(불교방송) 일요법회를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재에 관한 의식과 육법공양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안양의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은 불자들한테 말하기를 '다른 거 다 쓸데 없다. 떡 하나만 놓고 지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음식을 안해서 모두들 굶고 가야 하니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선원에서도 향, 초, 물, 떡, 꽃, 과일, 이렇게 여섯가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따로 제주분들에게 정성스럽게 공양 잡수시게 하죠. 그런데 뭐가 육법공양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니다.

답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떡 하나만 놓고 지내는 재가 잘못되었다구요? 천도라는 것은 어느 스님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떡 하나 아니 놔도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촛불 하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촛불이 켜져있으니 보이는 것만 촛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 것도 놓지 않아 먹을 게 없이 돌아간다구요? 왜 먹을게 없습니까? 모두 차려서 먹지 않습니까? 집이네가 먹으면 조상님도 먹고 집이네가 굶으면 조상님도 굶는데, 아 집이네와 조상님이 들이 아니게 함께 하고 가시는데 뭐가 배고파서 걱정이냐구요. 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감응을 하고 향으로 양식을 삼아서 공양을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도리를 알아서 천지가 바로 내 것이 됐다가 다 버리고 다시 담아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부처님이 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 오늘은 재에 대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든 절에서든 재를 지낼 때는 간편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의식 자체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문란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사대가 따로 없고 사방도 오방도 따로 없습니다. 이름 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래가 문이 없기 때문이죠. 사방이 툭 터졌는데 문이 어디 있으며, 내가 없는데 문은 찾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런 공부는 천년에 한번씩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만났을 때 한 생을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홍복이 없을 겁니다.

재를 지낼 때는 초, 향, 물, 과일 떡, 그리고 위패를 놓습니다. 이것도 방편이죠. 그리고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꽃도 한다발 놓구요. 또 상 옆에는 언제나 큰 그릇에다 물을 한 그릇 떠 놓으세요. 그것은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 즉 집착이나 관습이나 욕심같은 것들을 다 벗고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주인공(主人空)에다 진실하게 관(觀)한다면 그것이 더 진실하게 통합니다. 지장은 지장대로, 칠성은 칠성대로, 관세음은 관세음대로, 일체제불 여래가 다 통합니다. 전화기가 한대만 있다면 한 군데밖에 통할 데가 없거든요. 저승과 이승은 한 군데밖에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것도 여러분에겐 방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방편 없이 그대로 천도를 시킵니다. 그대로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다를 다기로 삼거든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이나 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무엇을 더 달라 덜 달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다가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천도를 해달라고 목을 매고 매달릴 때, 길에서 거기다 상 차려놓고 하겠습니까? 바다를 다기삼고 과일을 향기삼아서, 또는 향을 양식삼아서 그냥 천도를 하는 것이 더 일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이웃집에서도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 댁의 몸체를 위패삼아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체가 없으면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체가 없는 영령들은 항상 체가 있는 데에 접근을 해야만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조상대 12대 종손까지 공부를 해서 건져진다 이런 소립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12대라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들고 나는 데는 조상님 한분만이 아니라 수억겁전의 모습들을 전부 내 주인공자리에 다 놓으면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고귀하고 광대무변한 묘법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있는데 그것을 희미하게 생각한다면 그 아프게 살던 부모들, 아프게 살던 형제들, 수억겁을 통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서럽게 견뎌왔던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 한 찰나지만 모르면 수억겁 광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체가 없는 영령들의 위패를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접을 해야만 이 아시니깐요. 위패도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의 습이 없어진다면 체가 없이 사는 도리를 알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패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리 만리라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다 모이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 자유스런 도리를 모르고 발목을 묶어 놓으면 조상님들이 오셔서 집이네의 마음을 읽어보는데, 그 마음이 집착돼 있으니까 똑같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패를 묶어두지 않고 당일날 써서 재지내고 바로 태워버리죠.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 살아있을 때 부모가 자식집에 어떻게 잘 사나 하고 들르게 되면 맘 편하게 잘 모시다가 가실 때는 여비를 드려서 잘 모셔다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갔을 때도 어려운 일은 잘 토닥거려서 마음을 풀어주고 밥 먹여서 차비주고 보내는 것과 같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언제까지 매어놓을 수 있으며 또 그 뒷 문제는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향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것이고 촛불은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켭니다. 자기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조상들도 밝혀지니까요. 또 향으로 양식 삼으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행해야 체가 없는 그 분이 그걸로 양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 한 다기 놓는 것은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에 입력되는 데 손색이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한다발 놓는 뜻은 마음이 웃고 살라 하는 뜻에서 그 향기를 접합니다. 영령과 산 사람 자식들과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떡하나 가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해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비록 몸은 가지 못해도 내 마음이 가 있으니 한 찰나에 마음의 도리를 읽고 응접하십니다.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과일공양! 꽃공양! 다기 공양! 향공양! 청수공양! 떡공양! 초공양! 모두 공양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공생이며, 공실이며, 공체며, 또 공용이며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떡이 아니라 우주의 삼세가 다 들어 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합니다. 그냥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그러면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홍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천지를 건지는가 하면 마음 하나가 천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공법(空法)이라야지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잘되고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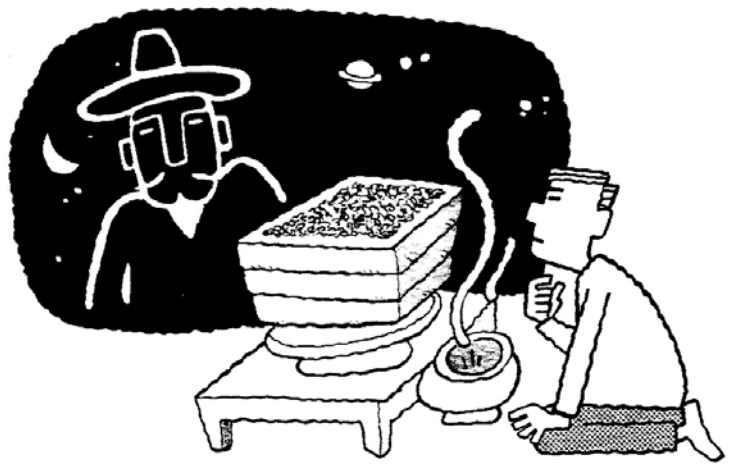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苦를 道의 재료 삼으면 삶이 덜 힘들어" "이것 저것·내탓 네탓 따지면 공부안돼"

법공양페이지는 등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60

안간힘을 쓴다고 일이 잘된다면 누군들 못하랴.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버리고 쉴 수 있는 데까지 쉬고 비울 수 있는 데까지 비워라. 가지려는 생각 쌓아두려는 욕심에는 한계가 있으니 크게 버려라.

텅 빈 마음엔 한계가 없다. 참 성품은 텅 빈 곳에서 스스로 발현된다.

산은 날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날보고 물같이 살라 한다.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살라고 한다.

집착 욕심 아상 증오 따위를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 살라고 한다. 그러면 비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고 한다. 항상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항상 담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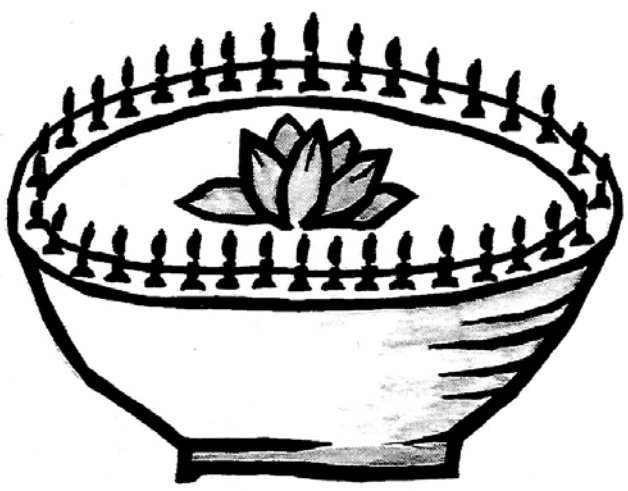
수행은 쉼이다. 이것은 내가 했고 저것은 내가 안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항상 마음이 바빠서는 도무지 자유를 맛볼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이것'에 붙들어 매어놓고 '저것'에 고리를 걸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항상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

수행은 비움이다. 내가 한다, 내가 준다, 내가 갖는다 하는 생각 또는 잘해야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생각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쉬고 비우기는 커녕 하는 일마다에서 거꾸로 집착과 욕심을 키우며 산다. 일이 뜻대로 안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잘못 될까봐 겁을 낸다. 번뇌 망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 얽매여 쩔쩔매며 살고 있다.

쉼과 비움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不爲)과 다르다. 하기는 하되,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되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선 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드리는 마음이 그와 유사하다. 적어도 겁내고 두려워하고 짜증을 부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쉼과 비움은 달리 말하면 놓고 맡기는 것이다. 놓고 맡길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이치가 그러하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허공같이 맑다고 한다. 그러므로 놓고 맡긴다는 것은 본성에 순응하는 것일뿐 따로이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본성이 그러함을 믿고 구태여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의 작위(作爲)를 부리지 않으면 그것이 놓음이요 맡김이요 쉼, 비움이 된다.



마음의 헐떡거림을 쉬고 나를 앞세우는 욕심을 비운다면 내 마음은 본성 그대로를 닮게 된다. 빈 그릇같이 되는 것이다.

빈 그릇엔 무엇이나 담을 수 있다.

그릇이 비워지면 뭔가 채워지기도 한다. 꽉 채워진 그릇엔 무엇이든 더 담길 수 없듯이 내 마음도 집착 욕심 아상 증오 따위로 꽉 채워져 있으면 더는 담아낼 수 없게 된다. 고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비워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비워야 한다. 그러면 그 그릇에 지혜가 담긴다. 편안함이 찾아 온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쉼을 거부한다. 쉼이 곧 나의 실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움을 싫어한다. 비운다는 것이 곧 나의 무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이 허공처럼 텅 비고 맑아 있다면 허공같은 본성이 '나'를 나쁘게 할 까닭이 없다. 죠은 죠을 내리칠 수 없다. 죠이 죠을 다치게 할 수 없다. 뭔가 '있음'일 때나 칠 것이 있지 맑아서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을 다치게 할 것인가.

애착을 버린다는 것, 욕심을 덜어내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요 무기력이나 무능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는 대로 모든 게 잘되고 애착을 갖는만큼 성사가 된다면 누군들 그걸 마다하겠는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며 안달을 하고 안타까워 함으로써 욕심껏 잘 되어간다면 누군들 그것을 못하겠는가.

제 틀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을 때 끝내는 탈이 나듯이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고집한다면 한때는 잘 되어나가는 듯이 보일지라도 끝내는 어그러지고 만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둬 두었을 때 마침내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따라서 쉼, 비움은 도인의 길이 아니라 보통사람 우리들의 길인 것이다.

협 찬 : 박 상 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보고 듣고 말하고 오고감 고정됨 없어

☞ 17면에서 계속

잘못된 걸 딱 따져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천당으로 보낸다, 이런다면 부처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도 본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망이 때린다 하더라도 일깨워서 사람 되라고 해 줘야지 그 말과 뜻이 어긋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건지는 것이고 저래도 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에 뱀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든가,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었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죽을 때 보면 뱀이 죽을 때처럼 몸이 꼬이면서 죽는가 하면 그 뱀에 자기 모습을 수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언제나 벗겠습니까. 생략해서 뱀으로만 얘길 했다 둘 아니게 자꾸자꾸 자기를 거쳐서 공부를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화평해지고 돈도 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니 사는 것이 좀 나아지죠. 그렇게 모두가 슬기롭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 지낼 때 복잡하게 차리지 않는 원인이 영령들이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에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떡을 주문해 놨다가 퇴근하고 오면서 찾아와서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구들끼리 음식하는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누가 많이 했느니 안했느니, 또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느니 적게 냈느니 하면서 재를 지내기도 전에 이미 형제들의 의리가 다 상해있습니다. 재란 게 뭡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이 둘이 아니기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절 올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산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재는 식구들이 '오늘이 기일이다' 하고서 정성스레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구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다툰다면 그걸 쳐다보는 조상님들 마음이 어디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전체가 먹는 떡이니 향과 초를 켜고 또 둥그런 떡은 식구가 많으면 세켜를 놓고 나눠먹고 또 식구가 적으면 하나만 놓고 지내도 돼요. 하나가 삼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도 될 수 있고, 또 백 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이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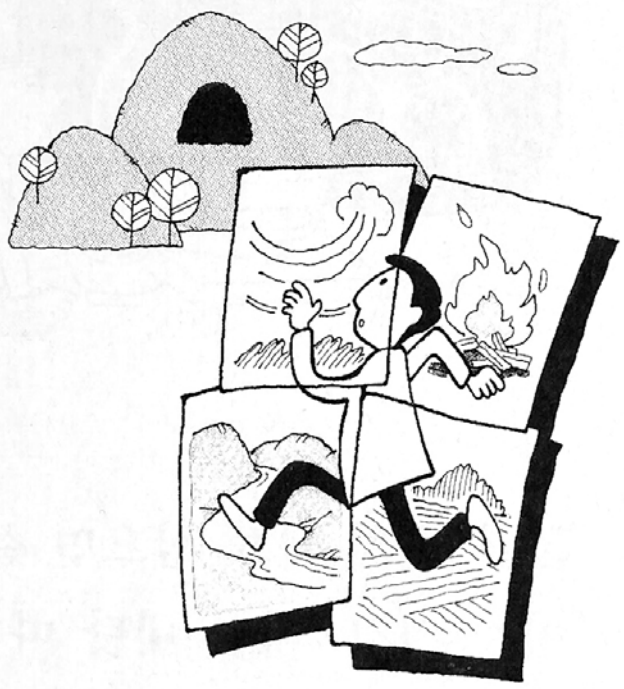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집착이 있기때문에 苦가 생기죠 그 집착을 주인공자리에 놓게되면 고가 멸하고 바로 도가 됩니다"

언젠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치악산에 있을 때 아랫마을에 잠시 볼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이년아! 네가 재산에 미쳐서 아무개도 죽이고 아무개도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랬기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 혼이 세 개나 한꺼번에 들었어요.

이 얘길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것도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접시물 가지고도 바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요만한 그릇에다가 꽃 한 송이 꽂아 놓구선 물을 담아놨습니다. 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앉았다가 "여길 봐라, 여기로 가면 너무나 좋으니 들어가봐라." 하고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리송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요리조리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바다가 되고 연꽃이 피고 돌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보이는지 그만 셋이 다 거길 들어갔어요. 승천한 거죠. 들어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얘깁니다. 거기서도 모두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때서부터 그 젊은 여자는 성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무위법이라는 것,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나 둘 아닌 도리가 이렇게 광대무변하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난 못한다' 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도를 할 수 있는데, 왜 두 가지로 말하느냐 하겠지요. 그게 바로 방편이다 이겁니다. 제삼자를 위한 방편 말이예요.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떡 하나 놓고 재 지낸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령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질까봐 불에 타 죽을까봐 못 건너가는 것이 결국은 그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문이 있어 꽉꽉 닫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문도 없고 벽도 없고 보꾹도 없어요. 체(體)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고(苦)가 생기는데 그 집착을 그 주인공자리에다 놓게 되면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도가 되는 것이고요. 다가오는 경계, 즉 고를 도에 이를 수 있는 재료로 삼는다면 사는 것이 덜 힘들겠죠.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어요. 몸이 조금 아파도 의욕이 없고 심지어 살고 싶지 않을때도 있죠, 너무 괴로워서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한 점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공했다는 겁니다. 양면을 다 놓고 보면 공했으니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공식으로써 집어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살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고통스럽게 살고 있죠. 문제가 생기고 고가 생기고 자기가 다 벌여놓고 죽네 사네 하거든요. 다 자기가 지어놓고선 누구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로부터 내가 그렇게 쌓아올리고 차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얼른 새로운 걸 입력시키지는 않고 언제까지 남의 탓 하며 사실거냐구요.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 해도 용도에 따라 자리를 보고 물건을 보고 돈도 어느 정도 분수에 맞게 얻을 것인지 등을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맞춰보지도 않고 덜컥 결정해 버리거나 혹은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은 다 날라가고 온 식구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몸가운데 그 깊고 깊은 내 마음속에다 관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시라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장자이니까요. 주장자에다 놓게 되면 정수로 들어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입력된대로 다시 풀려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남의 말만 듣고 이리저리 휩쓸려다니지 마시고 항상 어디서라도 자기 내면의 주인공자리에 진실하게 관해서 거기서 답이 나오도록 하세요. 공부를 하다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을 알아 남 탓 할 것도 없고 헐뜯을 일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미생물도 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라고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바탕은 지수화풍(地水火風) 때문이죠. 땅과 물에 바람이 불어 뭉쳐지면 그 안에서 온기가 생겨 따뜻해지니까 생명체들이 생겼습니다. 지수화풍에서 형성돼서 지금도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있고, 또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게 되니 결국 지수화풍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지수화풍이 원래의 고향이니까요.

영령들도 여기 다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좇아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이 본다면 기가 막히고 아프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초와 향, 그리고 떡, 과일 꽃을 놓고 상 옆에는 또 물 한 그릇을 큰 데다가 떠놔라 하는 것은 그 물이 바로 바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정수로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겸해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니까 과거를 문제삼을 게 하나도 없죠. 과거가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요. 이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립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고 보면 아주 복잡하고 그렇죠.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 어느날 마을에 내려왔는데 어느 집에서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막 부수고 소리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준들 그 사람네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장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제 그만 해야겠다." 하고서는 들어가더라구요. 그날부터 괜찮더랍니다.

또 한번은 상원사 토굴에 올라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막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손이 전부 문둥이처럼 문드러져서 시집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면서 "스님은 이걸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스님이 꼭 보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정말 진심으로 불쌍했어요. 그제서야 길을 비켜줬는데 알았다는 소리가 뭔 줄 알고 그렇게 빨리 비켜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토굴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 사람이 모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을 벌여놓은 것을, 그 집착하고 그러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이렇게 살면서도 고생, 죽어서도 고생, 죽어서도 내가 체가 없는 줄 모르니 또 걸리죠. 몽둥이로 때리거나 철퇴로 때리거나 기름 가마에 넣거나 이래도 그것이 우리가 체가 없는 줄만 안다면 그냥 벗어날 수 있을텐데 생시에 맞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프거든요. 이 모두가 한 생각에 달린 겁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지나서 토굴에서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차를 막아놓고 아무 소리 없이 절을 세 번 하더니, "그 날부턴 이게 다 떨어져서 나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낫게 했습니까?

내가 없다면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까닭에 여기에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게 거쳐서 나가니까 나간 사이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시집을 갈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집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교재로 삼아서 내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생긴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모르면 삼재팔난, 알면 팔자운명도 이름"
"남의 생명도 내생명 남의 모습도 내모습"

마음으로 세배 드렸는데…

문 큰스님, 설 쇠고 큰스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었는데 그날 직접 뵙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세배를 드렸었습니다. 세배는 잘 받으셨는지요?

답 하면서도 함이 없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함이 없이 받았소, 허허허.

삼재가 정말 있습니까

문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정초가 되면 삼재니 뭐니 그런 말이 많습니다. 과연 삼재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삼재라는 것, 팔자 운명이라는 것,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또 세균성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데 '삼재가 어딨느냐? 과거 · 미래 · 현재가 둘이 아닌데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둘이 아니고 안과 밖을 다 조복했는데 뭐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삼재 팔난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입력이 돼서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입력한 대로만 나오지 딴 말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어디 산길을 걸어갈 때도 나무들, 돌들, 흙들도 전부 자기 편이예요. 그래서 더디 가든지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심한 팔자 운명이나 삼재 이런 거는 생각지 않는 게 좋아요.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몰라서 이렇게 행하는 거지, 안다면 팔자운명이라고 이름 짓지도 마세요.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살기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되니까요.

아까 뱀 얘기를 했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반은 고양이로 반은 사람으로 낳아 땅에다 묻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금반지를 잃어버리고선 고양이를 시루에다 쪄서 그게 튀어가는 대로 그 사람이 고양이처럼 몸이 비틀린다고 해서 고양이를 시루에다 찌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뜨거워서 몸이 비비 꼬이니 그 집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죠. 자기 조상들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3대를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6대 7대까지 12대 종손까지 다 건지게 되면 그때는 확 터져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산소도 생활에 영향주는지

문 제게는 결혼한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 생활이 편치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할아버지 산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산소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답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산소를 잘못 썼다 이러는 것도 영혼만 건져내면 되죠. 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산소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지 않게 이끌어 가는 것도 주인공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도 주인공 너 아냐.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너니까 주인공 너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걸 증명해 봐.' 이렇게만 관한다면 문제가 다 없어져요. 집에 가셔서 형님한테도 관하는 거 일러주시고 본인도 열심히 관하시고 공부하세요.

道모르면 결혼 삼가야 되나요

문 언젠가 청년회 수련회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스님 법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도리를 알기 전에는 시집 장가를 가지 말고 시집 장가를 갔거들랑 아이를 낳지 말고, 아이를 낳았거든 아이에 매이지 말라." 저는 이 공부도 하고 싶지만 장가도 가야 되겠기에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 허허허. 내가 언제 장가 가지 말랬나요? 그걸 뜻으로 들으셔야지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자기 마음의 주인을 찾기 이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 뜻은 이 도리를 알아야 자식을 낳더라도 좀 차원이 높은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에도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겪는 일도 다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고 그런 걸 보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내 탓이로구나! 주인공, 이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한다면 양쪽에 불이 다 들어오면서 순간 그게 다 없어지죠. 이 도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서 반야줄을 쥐고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다면 양쪽의 조상님들이 다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하는 도리를 알고서 자식을 낳으면 좋은 영이 들어올거고요.

부부지간도 서로 깨닫고 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동반자가 없지만 서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단지 고깃덩어리끼리 모여 사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시집 장가 가는 것도 공부하는 도반을 얻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며 사세요.

"현대불교가 '전법의 씨앗'을 뿌립니다"

'1천원 법보시' 운동 날로 확산

현대불교신문은 97년 7월부터 전법의 손길이 절 닿지 않는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씩으로 동참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시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에서 1천여명의 불자님들이 동참해 1만구좌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월 1천원 법보시 후원금 전액은 전국의 △군법당(131여곳) △경찰서(249여곳) △교정청(3개소) △교도소(32곳) △구치소(10곳) △소년원(11곳) △감별소(5개소) △아동복지시설(43곳) △노인복지시설(23곳) △장애인복지시설(17곳) △청소년복지시설(49곳) △사회복지단체(42곳) △복지협의회(20곳) △복지시설협회(9곳) △병원(30곳)에 현대불교신문을 보내드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더 더욱 부처님 가르침이 가슴을 울리며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매월 1천원씩 은행에 자동이체 하시면 불법(佛法)이 절실한 이웃에게 따뜻한 법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1천여 불자 동참 1만 구좌 돌파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 법음전달

법보시 기증처

군법당(131곳) 가평호국광명사, 가평호국연호사, 강릉한송사, 경산국군대구병원, 경산호국무학사, 고성대안사, 고성추국사, 고성운학사, 고성해안사, 고양백운사, 고양일승사, 공주대원사, 광주관음사, 광주금강사, 괴산충용사, 괴산호국사, 괴산흑표사, 구리충일호국사, 김포정룡사, 김해무룡사, 논산공군본부, 논산국군논산병원, 논산군종제도과, 논산연무사, 논산육군항공학교, 논산해군본부, 논산호국사, 대구공군기지법당, 대구무열사, 대구심련사, 대구일승사, 대전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국군군의학교, 대전수곡사, 대전육군지도장, 대전장조사, 동해해동사, 부산금련사, 부산보국사, 부산자운사, 사천가룡사, 사천모충사, 서울국군참동법원, 서울국방부, 서울보리매복지단, 서울사자사, 서울용마사, 서울의왕사, 서울충정사, 서울해군중양법당, 서울호국사, 서울호원원광사, 성남군종부, 성남정각사, 수원화성사, 안동화랑정사, 안양충의사, 양구도솔사, 양구호국의선사, 양구장안사, 양주광명사, 양주국군덕정병원, 양주일월사, 양주호국비룡사, 양주호국사, 양평득도사, 여기자운사, 연기호국연광사, 연천관광복동일사, 연천호림사, 영동경비중대, 영암해광사, 영천호국사, 예천호국비룡사, 옹진혁흥사, 완주충무정사, 용인봉화사, 용인선봉사, 원주법응사, 이천상승호국사, 인제대대불교군종병, 인제대암사, 인제본부불교군종병, 인제수호사, 인제쌍호정사, 인제을지정사, 인제충무정사, 인천연주사, 인천혜응사, 장성무각사, 전주국립대대, 진해호국사, 전주호국충경사, 제주해봉사, 중앙천광사, 중앙총림사, 진양성불사, 진주성불사, 진해해안사, 진해흥국사, 창원안국사, 천안호국정사, 철원백골사, 철원천원사, 철원호국사, 청원영축사, 청원호국사, 춘천불암사, 춘천쌍용사, 파주3소대, 파주원각사, 파주전진사, 평택보국사, 포천금강사, 포천기갑호국사, 포천불이사, 포천발정사, 포천호국금광사, 포항분대, 홍천용천사, 홍천정호부, 홍천화랑사, 화성달마사, 화천대대, 화천대성사, 화천백암사, 화천보현사, 화천호국달마사, 화천호국수정사, 횡천호국천불사

경찰청(249곳) 가평경찰서, 강경경찰서, 강릉경찰서, 강원고성수원경찰서, 강원양양경찰서, 강원평창경찰서, 강원횡성경찰서, 강화경찰서, 거제경찰서, 거창경찰서, 경기광주경찰서, 경기기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경주경찰서, 고령경찰서, 고성경찰서, 고양경찰서, 고창경찰서, 고흥경찰서, 곡성경찰서, 공주경찰서, 과천경찰서, 광명경찰서, 광산경찰서, 광양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괴산경찰서, 구례경찰서, 구미경찰서,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위경찰서, 군포경찰서, 김제경찰서, 김천경찰서, 김포경찰서, 김해경찰서, 나주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남원경찰서, 남해경찰서, 단양경찰서, 달성경찰서, 담양경찰서, 당진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덕동북경찰서, 대전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동해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마산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무안경찰서, 무주경찰서, 문경경찰서, 밀양경찰서, 보령경찰서, 보성경찰서, 보은경찰서, 봉화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부산소하경찰서, 부산연산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안경찰서, 부여경찰서, 부천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산청경찰서, 삼척경찰서, 삼천포경찰서, 상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서산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강동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남부경찰서, 서울노량진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북부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시경찰,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청량리경찰서, 서천경찰서, 성남경찰서, 성남남부경찰서, 성주경찰서, 속초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순창경찰서, 순천경찰서, 아산경찰서, 안동경찰서, 안산경찰서, 안성경찰서, 안양경찰서, 양구경찰서, 양산경찰서, 양천경찰서, 양평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주경찰서, 연천경찰서, 영광경찰서, 영덕경찰서, 영암경찰서, 영양경찰서, 영월경찰서, 영주경찰서, 영천경찰서, 예산경찰서, 예천경찰서, 옥천경찰서, 완도경찰서, 완주경찰서, 용인경찰대학교, 용인경찰서, 울릉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 울진경찰서, 원주경찰서, 음성경찰서, 의령경찰서, 의성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이천경찰서, 익산경찰서, 인제경찰서, 인천경찰종합학교, 인천계양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임실경찰서, 장성경찰서, 장수경찰서, 장흥경찰서, 전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경찰서, 전주북부경찰서, 정선경찰서, 정읍경찰서, 제주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제천경찰서, 조치원경찰서, 진도경찰서, 진안경찰서, 진주경찰서, 진천경찰서, 진해경찰서, 창녕경찰서, 창원경남지방경찰청, 창원경찰서, 천안경찰서, 철원경찰서, 청도경찰서, 청송경찰서, 청양경찰서, 청주경찰서, 청주서부경찰서, 춘천경찰서, 충남금산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영동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충주경찰서, 충주중앙경찰학교, 칠곡경찰서, 태백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통영경찰서, 파주경찰서, 평택경찰서, 포천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하동경찰서, 함안경찰서, 함양경찰서, 함평경찰서, 합천경찰서, 해남경찰서, 홍성경찰서, 홍천경찰서, 화성경찰서, 화순경찰서, 화천경찰서

교정청(3곳)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교도소(32곳) 강릉교도소, 경주교도소,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군산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마산교도소, 목포교도소, 부산교도소, 소록도지소, 수원교도소, 순천교도소, 안동교도소, 안양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원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장흥교도소, 전주교도소, 제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 홍성교도소

구치소(10곳) 공주치료감호소, 부산구치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울산구치소, 인천구치소, 천안구치소, 청송제1감호소, 청송제2감호소

소년원(11곳) 광주소년원, 대구소년원, 대전소년원, 부산소년원,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제주소년원,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춘천소년원, 충주소년원

감별소(5곳) 경주직업훈련원, 광주소년감별소, 대구소년감별소, 부산소년감별소, 서울소년감별소

아동복지(43곳) 강릉자비원, 경북풍기어린이집, 경주대자원, 관악구암어린이집, 광명광이어린이집, 광명보육원, 금천혜명보육원, 길흥동어린이집, 남양어린이집, 노원학림어린이집, 노원합동마을복지어린이집, 논산선재놀이마당, 대전자혜원, 도선어린이집, 동작연꽃어린이집, 동작혜정어린이집, 룸비니동산어린이집, 디아뎀동어린이집, 부산영주암어린이집, 사당어린이집, 상계동어린이집, 상주호암어린이집, 송파금륜어린이집, 시흥송암동산, 신내동어린이집, 신당어린이집, 쌍문어린이집, 양양낙산유치원, 양천해나라어린이집, 영등포어린이집, 예천연꽃마을, 인천가좌동어린이집, 인천부루나어린이집, 정릉1동어린이집, 정릉마아어린이집, 제주국청사어린이집, 종로낙산어린이집, 종로소은어린이집, 종로창일어린이집, 벌어린이집, 청주혜능어린이집, 퇴계원꽃어린이집, 흑석어린이집

노인복지(23곳) 금천혜명양로원, 대구화성양로원, 대전경로자비복지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부산대각자비원, 부산정화양로원, 성남부처님마을자광원, 성북성라원, 수원성지원, 양양보리수마을, 영천보촌노인정, 용인연꽃마을, 울산유린양로원, 제주양로원, 청주광명의원, 통도사자비원, 퇴촌나눔의집, 파주관음대비원, 포천목련의집, 해남선희노인요양원, 화성자재정사, 화순소향원, 화순호산마을

장애인복지(17곳) 강동재활원, 강릉시립복지원, 거제치자마을, 금정자혜정신요양원, 대전뱅어하교, 대전자광사, 동래영락정신요양원, 부산성우원, 부산친마재원원, 부천룸비니특수아동조기교실, 송파연화복지학원, 안동대성요양원, 양평청인원요양원, 원주소쩍새마을, 인천특수아동조기교실, 진주성양원, 해남신혜정요양원

청소년복지(49곳)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거여청소년독서실, 거창청소년회관, 경산백천사회복지관, 공주금강사회복지관, 광주우산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로청소년독서실, 금호청소년독서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논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답십리청소년독서실, 대전법동종합사회복지관, 마산중리종합사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 문경모전사회복지관, 발산동청소년공부방, 부산개금사회복지관, 부산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산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천덕유사회복지관, 상계동청소년독서실, 상계합동마을공부방, 상도동청소년독서실, 상주빙림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송파삼전종합사회복지관, 신길동청소년독서실, 신내동청소년독서실, 신월동청소년복서실, 양천구민체육센터, 여수문수사회복지관, 염창동청소년공부방, 용두동청소년독서실, 용마청소년공부방, 원주명륜사회복지관, 원주시립복지원, 월곡동청소년공부방, 월곡청소년센터, 인천부루나청소년교육회관, 전농청소년공부방, 종로청운공부방,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포항하산사회복지관, 흑석동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단체(42곳) 강로심장회, 강릉자비복지원, 경산회탕수련원, 경주카루나의모임, 정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관악까치마을회, 구양사눌리장학회, 노인사랑방, 대구자비의전화, 대한불교삼보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동국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회, 동산반야회, 마산은하수마을회, 부랑회, 미아자비의집무료급식소, 부산복지협의회,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불교사회복지회, 불교사회봉사회, 불교시민연합,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회복지법인춘광, 새생명공명회, 생명나눔실천회, 성북승가원, 양천구경로식당, 외국인노동자마을, 인천부루나포교원, 인천자비의전화, 자비와행함이하나되어회, 장애인포교회, 제주자비의전화, 조계사원심회, 조계종보현원, 종로자비의전화, 진주광명회, 파라미타, 한국불교교화원,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한국불교사회환경교육원, 한국불교태고종공제회, 해남희망원

복지협의회(20곳)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복지협의회,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한국부녀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시설협회(9곳) 한국노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복지장책연구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련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병원(30곳) 국군광주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마산병원, 국군복지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원주병원, 국군육사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진해병원, 국군정훈병원, 국군포항병원, 국군현리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결핵병원, 대전연꽃마을원병원, 동래경주병원, 동대경주한방병원, 동래정수한방병원, 동대서울한방병원, 동대인천한방병원, 동대포항병원, 동인천길병원, 부산국군병원포강사, 불교한방병원, 삼성의료원불교법당, 서울연꽃마음광명의원, 청주연꽃마음광명의원

보시자 910명

간종환 강건욱 강경중 강경희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숙 강장욱 강정기 강정남 강정화 강정희 강종흠 강주원 강지숙 강지현 강창수 강창순 강태근 강태복 강학일 강현숙 강현진 강희남 강희진 경순자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진하 고필선 고현주 공유현 구기화 구수연 구자순 구필회 권갑남 권미경 권성행 권순학 권영숙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정희 권진순 권차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애 김경영 김경옥 김경인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순 김광태 김교도 김교안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석 김덕윤 김덕임 김동욱 김두영 김록인 김명덕 김명숙 김명식 김명훈 김묘주 김미란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범수 김범우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복순 김병윤 김병해 김상덕 김상린 김상훈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태 김성경 김성곤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훈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덕 김순식 김승재 김승지 김시영 김시자 김신아 김신염 김아름 김애란 김애리 김여경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범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자 김영태 김영택 김영희 김옥경 김용숙 김용옥 김용휘 김우선 김우정 김원기 김윤순 김원용 김원우 김윤규 김은중 김은희 김융희 김은희 김인식 김인옥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란 김정분 김정선 김정선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칠 김종규 김종길 김종순 김종열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중훈 김지현 김진경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한 김태현 김태훈 김경기 김학균 김한나 김 헌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천 김형장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 호 김호종 김 흥 김화남 김화수 김화수 김효진 김 훈 김희남 김희성 김희순 김희진 나영빈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노병자 노순옥 노유택 노윤택 노은태 노정용 노진희 노혜숙 뚜봉수 류영란 류인수 류초형 류창무 류태선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명재원 모영희 문명순 문명기 문성환 문상훈 문수복 문순조 문정신 문지현 문화자 민경주 민방현 민병윤 민인영 민응식 박경선 박광용 박광호 박근직 박금숙 박남순 박남순 박내순 박동수 박복희 박범길 박범의 박미경 박미정 박봉주 박상규 박상균 박상석 박상섭 박석열 박성수 박성오 박성진 박성태 박수진 박숙경 박승범 박승철 박승희 박승희 박영선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구 박은식 박익형 박인선 박재련 박재진 박정규 박정산 박정수 박정순 박정주 박정준 박제순 박종우 박주연 박준호 박지혜 박진혜 박찬연 박찬혜 박찬혜 박철수 박찬지 박찬근 박찬자 박태규 박태훈 박현숙 박현수 박현정 박혜영 박혜숙 박혜진 방금순 방재순 배병진 배석자 배연수 배재욱 배주희 배춘자 배현태 백금옥 백상준 백성옥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법인스님 법종스님 변정상 변창현 봉철웅 서귀연 서말희 서민호 서병학 서소희 서수옥 서울은행 서윤아 서재욱 서정곤 서정숙 서희선 서춘건 서현숙 서혜빈 석길순 석은순 석혜원 선문빈 선유진 선잔재 선정숙 선정호 선종남 선현자 성재영 성정자 성효순 손금화 손명희 손상률 손석진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관중 신기호 신미옥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사규 신영준 신용순 신원민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정자 신진욱 신진임 신호용 신홍재 심광엽 심단희 심교희 심성학 심학섭 심희주 안상연 안성모 안영선 안영옥 안장수 안진성 안진후 안희주 양병덕 양양애 양은숙 양의균 양정순 양호승 엄경춘 엄정임 영등포구모임 오경희 오동규 오동필 오두한 오두환 오문식 오미환 오병일 오병현 오상열 오상열 오선희 오승종 오상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용산구 용인수 용인시 우금식 우상용 원장옥 원차순 원창수 유금란 유미양 유양상 유은경 유재춘 유장용 유지경 유희정 윤경애 윤경자 윤경주 윤동한 윤병일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 성 윤성수 윤연옥 윤영혜 윤옥희 윤은인 윤재경 윤정희 윤제학 윤종만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태호 윤향숙 윤호근 은경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경희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봉 이규현 이규환 이금주 이금호 이기칠 이길자 이남형 이대섭 이도의 이동격 이동은 이동현 이동희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혜 이미화 이빈택 이번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동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상달 이상무 이상민 이상옥 이상은 이상혁 이상호 이석택 이선국 이선행 이성재 이성태 이성혁 이송자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수호 이수희 이승은 이승호 이신정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연희 이영숙 이영알 이영조 이영주 이영준 이영희 이오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영 이유순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옥 이은미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영 이재우 이재윤 이재칠 이재현 이재화 이전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숙 이정연 이정자 이정희 이종돈 이주영 이주화 이준석 이준엽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병 이지숙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희 이창영 이창주 이창희 이채경 이채린 이해숙 이현숙 이현실 이현영 이형주 이혜란 이혜숙 이호식 이화숙 이희영 이 환 이희정 이 훈 인성행원 인필교 임경택 임규훈 임기남 임선원 임소연 임수육 임순희 임옥빈 임옥재 임완숙 임우석 임은희 임은숙 자 경 자 공 장경자 장금강심 장명순 장 미 장삼수 장선일 장숙례 장 집 장정숙 장정우 장정자 장진수 장춘자 장혜기 장혜승 전계연 전규백 전미경 전병임 전복순 전상우 전선혜 전성준 전숙희 전순남 전승현 전승환 전연석 전영근 전일덕 전현자 전현희 정경옥 정경희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금옥 정길숙 정모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아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윤옥 정은경 정은미 정은균 정의수 정진오 정정국 정지원 정진육 정필순 정학선 정혜정 정혜택 정희동 정희택 조남섭 조남주 조명심 조목식 조미란 조민경 조병화 조성호 조승우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숙 조은호 조은미 조하원 조향미 조혜숙 조혜연 조홍호 주노겸 주영우 주지환 지유미 지정인 지성인 진경수 진양숙 진옥례 진옥상 진원종 진정애 진해용 진형애 차동호 차상환 차용욱 차현주 천수자 천재경 천현숙 천희조 최경락 최경진 최만규 최명봉 최법순 최병숙 최병인 최병일 최복기 최복녀 최상권 최상선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석철 최성근 최성희 최수영 최순곤 최순성 최승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옥호 최은원 최은주 최은희 최재천 최재하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우 최정희 최주현 최한규 최현선 추칠희 표혜명 하금자 하등규 하은순 하홍용 한금만 한기선 한남수 한미옥 한선원 한성복 한성희 한수진 한숙희 한아름 한은수 한인교 한정갑 한정수 한정희 한혜희 한효숙 함광정 함기석 함명숙 함지운 허석숙 허성국 허수자 허영희 허종현 허찬응 현희숙 형수천 현원스님 현주원 홍기장 홍기창 홍나리 홍명숙 홍민석 홍선숙 홍소은 홍은아 홍영순 홍영자 홍영호 황금철 황기용 황성복 황순수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황준제 황준호

'향공'으로 IMF피로 싹!

감봉 감원 실업 등등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건강지킴이로 불교의 향공(香功)을 비롯해 기공(氣功) 선체조 요가 등이 활용되고 있다.

매일 20분을 투자해 호흡조절과 체조를 병행하면 몸안의 모든 기혈을 뚫어주고 질병을 소멸시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수련법 향공.

향공은 티벳 밀교의 개산조 연화생대사(蓮華生大師)가 달세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공행법이다. 본래 이름은 '중국불법방향형지오기공(中國佛法芳香型智悟氣功)'. 향공은 몸을 닦고 병을 낫게 하는 일종의 선체조로 선불교와 밀교의 정화로 볼 수 있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0694-52-1755)는 수련회(매주 토요일 6시~일요일 오후1시)를 통해 향공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나온 〈맑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솔과학 刊)에서 향공을 소개한 현장스님은 향공의 수련 효과에 대해 "숙면을 취하게 돼 걸음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체력이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또 위장에 영향을 미쳐 소화력이 향상되고 숙변이 제거되며 체중조절 효과도 있는등 체질개선과 다이어트 등에 좋다"고 말한다.

선불교·밀교접목 '禪체조'
체질개선 질병치료 효과
보성 대원사등 수련강좌

향공은 몸의 긴장을 푸는 예비동작으로 시작해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고 난 후 호흡고르기로 끝난다. 초급 중급으로 나눠 각각 15개 동작을 36번씩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작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그림 참조〉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대구불교병원, 삼법건강연구소 등은 기공요가 등을 환자 치료에 직접 응용하고 있다. 경희대 한방병원(02-958-8114)은 한방기공진료실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기공치료 시대를 열었다. 경희대에서 시행하는 기공법은 환자가 경혈에 정신을 집중해 치료효과를 얻는 이완요법이다.

대구불교병원(053-655-0300)은 정신과 병동에서 요가를 활용해 정신치료를 하고 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다.

삼법건강연구소(대표 박남식, 0348-82-5189)는 요가를 응용한 임산부 체조를 고안해 허리와 아랫배의 힘을 길러 출산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남식대표는 〈남편과 하는 무통자연분만법〉(세훈刊)을 출간, 부부가 함께하는 체조법도 소개하고 있다. 방아자세, 합장합족자세 등 20여가지 동작과 호흡·명상법을 병행하는 임산부 체조는 출산 뿐만 아니라 태교에도 도움을 준다.

강지연 기자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건강 365일'은 기사넘쳐 쉽니다.

교계 알뜰시장 곳곳 개설

길음복지관등 6곳 상설

절약정신과 아나바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불교계 곳곳에서 알뜰시장이 열리고 있다.

길음사회복지관(02-985-0161)과 자양사회복지관(02-458-6796)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알뜰시장을 상설운영한다. 특히 자양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의류 수선과 관련된 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룡사(02-575-7766)는 매주 주말 상설 알뜰시장을 개설하며 수시로 물품 접수를 받고 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02-806-1377)은 3월말까지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문제지 바꿔쓰기 매장을 개설한다. 일반도서 교환도 가능하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02-817-8052)은 4월 마지막주에 '알뜰장터'를 열어 물품교환 및 판매를 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02-852-0525)은 알뜰바자회(일정 미정)를 준비 중이다.

"선무로 환자 치료합니다"

이선옥선무용센터 개원…척추질환 등 효과



행선(行禪)의 원리를 도입해 만들어진 선무로 치료를 하는 선무용건강센터가 16일 강남 '우리들 병원'(02-527-0841)에서 개원한다.

선무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는 이선옥교수(前 미국 뉴욕대 무용과)는 2월21일 병원 회의실에서 공개시연을 갖기도 했다. 선무는 단전호흡 건강무용 명상 등을 배합한 일종의 선체조로 요통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물론 수술환자의 근육회복 운동으로도 적합하다. 일주일에 두차례 1시간반동안 운영될 선무 프로그램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근육 회복운동을 주로 하는 반과 경미한 환자를 위한 반으로 나눠서 운영된다.

한편 이선옥교수는 선무기법을 담은 책도 빠른 시일 내에 펴낼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구성될 선무기법책은 사진과 더불어 선무의 기본을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불자 세상보기

귀농정보

▲상담 및 교육 △조계종 불교귀농학교=735-5864 △귀농운동본부=02-742-4611~2 △대전 귀농학교=042-253-3241 △농협중앙회 인력개발원=02-397-6459 △농협중앙회 세계화농업지도자교육원=0333-53-2531 △흙살림연구소=0445-33-8179 △녹색연합=042-253-3241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0331-292-4259 △한국자연농업협회=0445-32-8777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02-3401-6543 △농어업인지원센터=042-251-2612 △전북 귀농자 상담전화=0652-80-2613 △경남 도농업정책과 인력육성계=0551-79-2612 △시군 농촌지도소=지역번호+5959

▲빈집정보 △제주 빈집정보센터=064-41-0471 △경기 빈집정보센터=0331-249-4904

▲정보통신 △농림부 인터넷 주소=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인터넷 주소=http://www.rda.go.kr △PC통신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농업동호회'

▲귀농 정보서 △〈우리 시골 가서 살자〉(디자인하우스 간) △〈서울 사람 성공하는 귀농전략〉(은행나무 간) △〈흙 속에 돈이 있다〉(세훈문화사 간) △〈귀농 안내서〉(강원도 농촌진흥원 간)

IMF 귀농 늘어 농사도 전문직 사전준비 '필수'

조계종 '불교귀농학교' 28일 개교



◇귀농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교계는 '불교귀농학교'를 마련하고 사찰 유휴지를 좋은 조건에 임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파주 보광사 종호스님이 신도 가족과 함께 밭일을 하는 장면.

IMF사태 이후 도시를 떠나 시골로 되돌아가는 귀농인구가 늘고 있으나 치밀한 준비없는 막연한 귀농이 많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귀농과 관련된 당국의 지원과 대책이 미미한데다 그나마 30대 전업농 위주로 돼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귀농에 대한 관심이 폭증, 97년 7월 농림부와 농진청에 설치된 귀농상담실에는 6개월여만에 무려 6천2백5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IMF 구제금융신청을 전후해 늘어난 실직·명퇴자들이 귀농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귀농자 실태분석 결과 30~40대가 전체의 67%를,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한 데서도 잘 나타났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조사나 치밀한 준비 없는 IMF형 귀농은 거의 실패한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부가 전국의 귀농 세대주 3천7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연간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9%에 불과했고 귀농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9%에 불과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양식을 바꾼다는 사고를 갖지않으면 안된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좌를 듣거나 귀농에 앞서 농촌에 일시 정착, 농촌의 실상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까짓거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라거나 "흙에 살리라"는 소박한 마음만으로 시골로 향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것.

이와관련 조계종 농촌살리기위원회와 전국귀농운동본부, 선우도량은 3월28일~4월2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귀농학교'를 열고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5월 5일~11일 남원 실상사에서 현장교육을 진행, 귀농 예습시간을 갖게 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고자가 있거나 농촌출신, 기존에 농지를 갖고있는 도시민들의 귀농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귀농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스승'으로 소개받는 것. 귀농을 결심한 사람은 현지 농부가 추천한 작물을 골라 휴경지 등 땅을 빌려 1년 정도 농사를 지어본다. 주택이나 농지는 동네사람과 친해진 다음 1, 2년 뒤 매입하는 것이 좋다.

김재경 기자

불교의 눈

"마음의 밭 김매기하라"

교계는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불교귀농학교 교육이 원만히 회향될 경우 IMF시대의 사회고(社會苦)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전국 사찰에서 생태농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사찰 유휴농지가 귀농희망 실직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돼 고통분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고 지혜는 내가 밭가는 가래이며 신구의(身口意) 악업을 없애는 것이 내 밭의 김매기이다."〈잡아함경〉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마음의 밭도 갈게 되기를….

경기지역 주말농장 분양 '봇물'

경기농협 지역본부는 2일부터 4월말까지 도내 39개 농협 65개 농장에서 포도, 배등 700주의 과수와 11만8천9백평의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경기 고양과 남양주, 광주, 이천등 도내 전역에 있는 주말농장은 인근에 유명 산과 사찰, 바다, 호수, 섬등이 있고 온천과 위락시설등도 있어 주말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인근지역을 관광하는 즐거움도 맛볼수 있다.

선착순 모집하는 주말농장주는 모두 1만5천3백30명으로 개인당 5~20평까지 분양하며 평당 5천원에서 1만3천원의 비교적 싼 값의 임대료를 받는다.

한편 고양, 군포시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는땅을 주말농장으로 시민에게 무료 분양한다. 경기농협 환경농업과=(0331)220-8658

'윤리백신' 서울대 의대생등에 정신윤리교육 강화

최근 판·검사, 의사, 교수 등의 금품수수비리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에 의해 개발됐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의대 3,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돼 조만간 각 대학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른바 '윤리백신'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예비의사'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훈련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대생용 프로그램도 개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들었다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경찰청은 지난 4일 도내 자살자가 하루에 한 명꼴이라는 통계를 내놓아 충격을 던졌다. 제주도에서도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가족부양, 빚보증, 사업실패, 생활고 비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위 'IMF형 자살'로 비유되는 이같은 유형외에도 성적비관과 가정불화 등 목숨을 끊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더욱이 가장이 자식을 데리고 함께 자살하는 등 동반자살이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자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네

▨목숨있는 것을 제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는 안된다. 즉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범망경〉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상응부 경전〉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법구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젊고 잘생긴 한 사나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여쭈었다.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바다보다 빨리 흐르는 것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고,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느니라. 〈잡아함경〉

▨선지식이 또 말하기를, 만약 모든 길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 길에는 여러가지 사나운 독물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시오. 〈지장경〉

▨가섭은 다시 말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자살함으로써 또 태아를 죽였다. 바라문이여, 그대도 또한 그와 같다. 이미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을 죽이려 한다. 만일 사문 바라문이 꾸준히 힘써 착함을 닦고 계덕(戒德)을 두루 갖추어 이 세상에 오래 살면 이익됨이 많아 천상과 인간은 안락을 얻을 것이다." 〈폐숙경〉

색상품

휴대폰 안테나

잡음이나 통화중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는 휴대폰 이용자들을 위해 수신 감도를 높여주는 휴대폰·PCS 고감도 칼라 안테나 '스카이 파워'가 새로 출시됐다. 전파의 흡수성이 매우 높은 순동을 사용해 순수 국내기술로 제품화에 성공한 이 제품은 기존의 휴대폰 안테나 자리에 끼워 사용하면 된다.



(주)마쥬르카교역. 가격은 2만3천원. (02)202-6130

하숙쳐 모은 1억 장학금

60대 하숙집 여주인이 하숙을 꾸려가며 번 돈 등 1억원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되돌려줘 화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인근에서 과수원농사를 지으며 하숙집을 운영하는 이순영(61·여)씨는 입학식인 2일 이 대학에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실직-장애인 진료비 할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6백79개 의료기관은 3월중순부터 실직자와 그 가족의 진료비를 절반 정도 깎아주기로 했다. 동대문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지난 2월27일 "실직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들의 진료비를 최고 50% 할인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가족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바다 환경미화원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올 6월부터 항만을 비롯, 해안과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 임무를 맡는 바다 환경미화원을 운영키로 했다. 2일 해양부에 따르면 바다 환경미화원은 ▲해상 부유 및 수중 쓰레기의 수거 및처리 ▲쓰레기 투기, 폐선방치, 폐유 유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감시 및 신고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각장애인에 무료 보청기

보청기 판매업체 '온누리'의 홍영희(49) 사장은 2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96년 2월 지금의 회사를 차린 후 최근까지 3백60여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료 전달해 왔다. 회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장애인의 날, 추석 같은 뜻 깊은 날마다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해 수십명씩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주고 있다. 이는 본인이 20년 남짓 보청기에 의지해 생활해 올 수밖에 없었던 2급 청각장애인의 체험이 크게 작용했다. (02)745-0119

연금매장 무자료 맥주공급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이덕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원연금매장 직원들과 짜고 허위매출전표를 끊어 신용카드 할인에 이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어치 맥주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판 주류도매상 이용의씨(37)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할인한 카드할인업자 지인석씨(35. 서울 노원구 공릉1동)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내 부부폭력 미국 2배

우리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교포보다도 1.5배, 이웃 홍콩보다는 3배 가까운 발생률이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엽교수는 1일 "지난해 6월1일부터 두 달동안 1천5백23쌍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아내친구 성폭행후 살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아내의 직장동료를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강정석(31·무직)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아내 김경숙(30)씨도 살해한 뒤 허위로 가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령산 도솔암 중창불사 권선문



주지 성 조.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소승은 작년 3월 조계종 25교구 말사인 도솔암으로 주지 임명받아 수행 정진중입니다.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지 어언 30여년, 이제 이 도솔암에서 마지막 수행정진을 발원하였습니다.

파주 고령산 도솔암은 드러나지 않은 명찰 기도도량으로 300여년동안 많은 선사들의 수행정진 내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찌기 백용성 조사께서 19세에 전도하시고 혜능선사를 스승으로 서원한 도량이며, 6.25전란 이후에는 도형선사께서 정진하시며 중창불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후로 영험있는 산신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찰인 관계로 쇄락해 감을 어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수도생활기간을 두고 도솔암 가람중창 중흥불사를 생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불조의 높고 높은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계획하며 불자님들의 무루 동참을 기원하오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덕 자비 지혜를 심는 계기가 되어 만대의 복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1차 불사 개요 ●

요사채 1동 - 해체중창불사

대들보	600만원	서까래	30만원
상량대	400만원		
기둥	150만원	기와10개	7만원
주춧돌	100만원	기타	1만원

■온라인 번호 우체국 011742-0101242 (예금주:경현용)
농협 021-02-261275 (예금주:경현용)
▶ 분할 입금 가능!

법 회 안 내

● 정기법회안내
- 음 1月 1日부터 보름까지 : 정초불공
- 음 1月 8日 : 입춘불공 - 음 3月16日 : 고령산 국산재
- 음 4月 8日 : 부처님 오신날 (장엄등(1년) 5만원, 일일등(당일) 2만원, 삼성각·인등(1년) 6만원)
- 음 7月 7日 : 칠월칠석불공 - 음 7月15日 : 백중천도재일
- 음 10月15日 : 고령산 국산재

● 매월법회안내
- 음 매월 초하루 : 신등관음법회
- 음 매월 보 름 : 산신기도법회
- 음 매월 18일 : 지장재일(참회기도)

불기 2542년 무인년 1月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도 솔 암 住持 景 性 昭(성조) 합장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山 50의 4 전화: 0348-942-7703 / 호출: 015-345-5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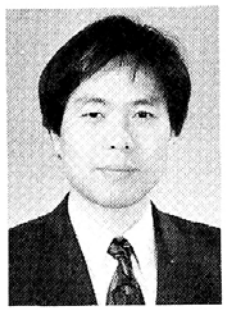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⑧

따뜻한 손과 눈물

불교의 두 축은 선(禪)과 정토(淨土)이다. 선은 자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토는 타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얼핏 모순되는 이 두 축이 불교를 이때끔 살아있게 한 동력이라면 지나치겠는가.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들, 학자들은 선을 선호한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대중들은 정토에 기운다.

성장의 구호에 가려 고통의 무게 망각했다

선은 물질적 풍요와 여유와 더불어 심화되는 반면, 정토는 삶의 고통과 번민과 더불어 자라는 경향이 있다. 가령, 서구에 불어닥친 선의 열풍을 떠올려보라. 넉넉해지고 편리해지는 일상에 물화(物化)되어 가는 자신에 절망하여 젊은이들은 선과 명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한다. 반대로 전쟁과 가난 등 삶의 직접적 고통이 심화되고 숙명의 무게가 짓누를수록 사람들은 저 너머의 위안과 가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풍요로운 자는 풍요로운 대로, 결핍된 자는 결핍된 대로 소외와 고통은 삶의 일상이 되어왔다.



한 형 조
〈정문연교수·본지 논설위원〉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셨다. "세계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것은 새길수록 위대하기 그지없는 통찰이다. 우리의 외면적 안정은 거대한 고통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한점 불안한 종이배일 뿐이다. 바람이 건듯 불고 물이 스며들면 일상의 안정 너머에 있는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의 구호에 가려 소외와 고통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왔다. 현란한 TV에서 보듯 제스추어와 코스튬이 진실을 가리고, 허세와 가벼움이 진정성과 심각성을 말살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황량한 진실,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 섰다. 작년말 시작된 국가부도의 위협과 곧 이은 IMF 구제금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을 어찌할꺼나. 학자와 경륜가들은 한 목소리로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대외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선하며,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 구성원의 실력을 길러 경쟁력을 갖추자고 외친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일이다. 허리를 추스릴 사이도 없이 앙상히 드러난 몰골에 부끄러워할 틈도 없이 현실의 고통이 급속히 밀려들고 있다. 실업자가 벌써 1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들의 직접적인 가족까지 최소 3백만,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릴 사람들까지 1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고통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 국민은 그 고통의 자장과 와류 속에서 더불어 고통스러워 하며 한 세월을 견뎌나가야 할 것 같다. 나무 관세음,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기막힌 재앙과 환란을 견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고통의 유대와 공감을 통한 희망의 확산이 절실하다. 메말랐던 눈물샘을 트고, 닫아두었던 가슴부터 열자. 제스추어나 언어가 아니라 진정 고통을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과 눈물만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없다. 동병상련(同病相憐), 가난한 살림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은 형제들의 우애가 여유롭게 자란 아이들보다 오히려 깊다. 작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예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고난 속에 더욱 결속이 커지듯, 어려움 속에서 친화와 유대는 더욱 강화되는 법이다. 그럴 때 슬픔은 오히려 힘이 된다.

내면의 적나라한 실체 만나는 훈련 시작하자

우리 모두 부화한 치장을 벗고, 겸허하게 삶과 내면의 적나라한 실제와 만나는 훈련을 시작하자. 아만과 집착을 버리고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고, 타인의 슬픔에 울어주는 자비에 가슴을 적시자. 가진 것을 덜어(減捨)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의 무량(無量)한 마음에 진정 무아(無我)의 소식이 있다. 그곳에 그리던 부처님의 세계, 서방의 정토(淨土)가 나툴지니. 그 붉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어둡고 괴로운 이 시절을 건너가자.

열린마당

한국방송광고공사 존폐

새 정부 출범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려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존폐론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폐지를 거론하는 방송사들은 공사의 광고영업권 독점은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폐지 불가론을 제기하는 종교방송 3사는 방송사가 광고 영업을 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공사 폐지론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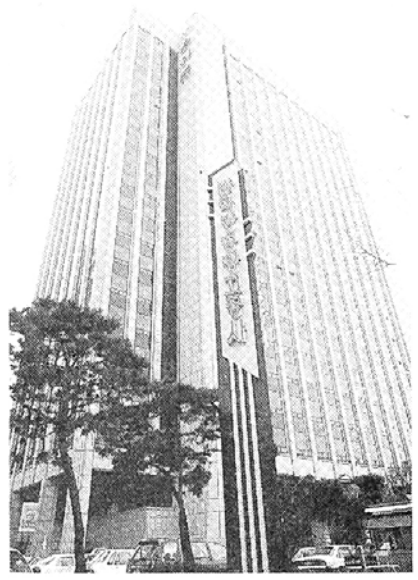
광고영업권 관리기구 절대 필요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종교방송은 일반 상업방송과는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일반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중파 방송사들의 주장대로 방송광고공사가 폐지돼 우리와 같은 특수방송이 공중파 방송사와 함께 광고수주 경쟁을 해야 한다면 종교방송이 가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나아가 공중파 방송의 상업성과 막강한 힘에 눌려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 또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연돼 시청자의 구미에만 영합한 저질·폭력·선정성 프로가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사 폐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힘있는 TV 매체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요금을 인상하고 광고주를 독점함으로써 특수방송의 광고매출은 급격히 감소해 방송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편성, 송출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사가 광고영업권까지 소유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 거대방송의 수직 구조를 갖게돼 오히려 방송산업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도 예상된다.

방송사들이 경영난 극복을 구실로 방송광고영업권 환수를 외치고 있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81년부터 현재까지 공중파 방송사의 누적흑자는 약 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IMF 사태 등으로 수많은 기업이 부도 및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97년 MBC, SBS TV 양사의 단기 순이익은 3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자료출처 한겨레신문 1월15일자). 이같은 사실은 막대한 누적흑자의 행방이 확실치 않으므로 이는 오히려 방만한 경영에 따른 거품이 컸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좋은 반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상황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같이 매체를 종합관매 대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존속이냐 폐지냐의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종교방송 3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불가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언론 공익성 극대화 위해 존속을

유재천 〈한국방송학회장〉

지금까지의 방송광고공사 존폐에 대한 논란은 시장원리를 배제한 독점체제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조성된 공익자금 사용의 적법성 문제로 요약된다.

앞의 문제제기는 경제논리로 볼 때 정당하다. 하지만 뒤의 문제는 공익자금 조성 명분에 적합하게 자금을 사용할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광고 시장 원리를 우리 상황에 도입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방송광고는 광고상품 자체의 성격과 함께 언론과 문화란 공익성과 직결돼 있는데 이 방송광고가 자유시장 논리에 방치되었을 때 공정거래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사들이 공익을 훼손하고 사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를 자유라는 이름아래 정당화 할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또다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광고료는 시청률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방송사가 영업권을 갖게 되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저질화와 오락지향적 편성으로 획일화돼 시청자의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높은 광고료와 대기업의 광고시간 독점으로 광고공사의 광고료 책정과 광고시간 배분으로 그나마 가능했던 중소기업의 광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또 광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창의력이 쇠퇴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경제원리를 앞세워 공사의 폐지를 주장한다면 사회적 이익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방송 자율-독립성 보장차원 폐지

정진민 〈MBC 홍보1팀장〉

81년 광고공사 설립시부터 88년 제6공화국 출범까지는 KBS·MBC 양대 방송만 광고를 실시했다. 일체의 민간 방송이나 민영적 위상을 허용치 않던 시기라 공영방송과 일부 종교방송외에는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공사의 설립명분, 즉 방송은 공영성 추구에 전념하게끔 한다는 것이 성립 가능했었다.

그러나 88년 이후 정부는 MBC 보유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함으로써 MBC는 5공시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고 SBS 역시 민간방송으로 허가됨으로써 방송구조 자체가 공·민영 이원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후 광고를 하지 않던 종교방송까지 상업광고가 허용되었고 잇따른 지역민방의 개국으로 사실상 2공영·다민영 체제가 정립된 지금도 광고공사는 공중파 방송사의 영업을 차별없이 독점하는 기구로 남게 됐다.

그러나 방송환경이 달라지고 IMF 및 WTO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상황하에서 현행 방송광고의 영업독점은 외국기업들의 집중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광고공사 독점영업의 명분이 돼온 전파의 희소성은 오늘날 다매체·다채널 무한 경쟁시대에서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방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사의 주된 재원조달 수단인 방송광고 영업권 없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자금 조성 및 운영도 문제가 된다. 현행제도대로 공익자금을 광고공사 수입금에서 조성한다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기부형식을 취할 경우 법인세 부담은 해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익자금 운영제도 개선과 달라진 매체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광고의 영업권 환수는 불가피하다.

■ 방송광고공사는 어떤 곳

공중파·종교방송등 광고영업대행

1981년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립후 MBC, KBS, SBS 등 공중파 방송과 BBS(불교방송), PBC(평화방송), CBS(기독교방송) 등 종교방송, 4개 지역민방의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주업무로 맡고 있다.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해 얻은 광고료 수익금의 81%를 각 방송사에 제공하며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와 광고영업에 따르는 최소한의 공사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광고료의 4%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해 언론, 방송, 광고문화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후원과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연구원 등 언론유관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프레스센터를 건립해 언론 공익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예술진흥시설 건립에 일조하고 있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교육원은 광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87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명의 광고인을 교육해 오고 있다. 광고교육원은 또한 89년 9월 세계에서 19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국제광고협회(IAA)로부터 공식기관으로 인정받아 국제 광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IMF人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킨 생활지침서



초판 1개월만에
재판 돌입 !!



내용이 쉬운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보성 태고종 종정스님, 전 동국대 총장 -

◆ 애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말씀들이 모두 〈금강경〉에 근원을 두고 있슴을 알게 된다.

◆ 82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만큼 마음과 모습이 젊으신 까닭은 금강경 내용을 실천하신 때문일 것이다.

◆하루 3시간만 자고 금강경을 7번 읽는 자시 기행 정진기도 등 참 신행을 실천하는 분이 집필한 책이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독후감 모집

책한권으로 전가족이 참여하여 알찬 선물을!

⊙ 대 상 : 초중등부, 대학부, 일반부
⊙ 서 적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 상 품 : 전체 대상 (1명) - 15만원 상품권
각 부별 장원 (각 1명씩) - 7만원 상품권
각 부별 우수상 (각 2명씩) - '불교와 문화' 1년 구독권
각 부별 장려상 (각 3명씩) - 도서상품권
※ 입상자 전원에게 추천 불서 1권씩을 드립니다.
⊙ 기 간 : 1998년 4월 15일까지
⊙ 발 표 : 1998년 5월 3일 부처님 오신날 전후
⊙ 분 량 : A4용지 1~2매 정도(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보낼곳 : 412-0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889(옹화정사))
('독후감 응모' 라고 명기, 주소 및 연락처 기재 바람)
FAX 접수 02-324-3866
INTERNET 접수 www. interpia. net/~ommani/diamond.html
기타문의 ☎02-337-1636, INTERNET주소로 HOME PAGE 참조
♣주 관 : 바른법연구원, 한국불교신문사
♣후 원 : 태고종 총무원, 현대불교신문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협 찬 : 책방 여시아문, 도서출판 신우당
※ 선별된 우수작은 각 신문과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 이 책의 활용 사찰법회와 각종 불교단체 및 청소년 포교단체 교육용교재 산업체연수원 및 능력개발원 연수교재, 각 대학 교양교재 및 법보시용

바른법연구원 문의 ☎ 02-337-1636

종단소식

조계종

수원 용주사 교구총회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11일 만수리실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97년도 결산 및 기타 종무현안들이 논의될 계획이다.

수덕사 신도회 간부연수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14~15일 황하루에서 교구본말사 신도회 간부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원각사 만등불사 회향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는 20일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 초청법회를 비롯 범패, 승무, 바라춤, 만등탑돌이 등이 진행된다.

태고종

신협이사장 인곡스님 재선



신용협동조합은 2월25일 봉원사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 5대 이사장에 총무원장 인곡스님〈사진〉을 재선출했다. 또 9억3천4백여만원의 98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동방대 졸업생 27명 배출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 졸업식이 2월24일 강당에서 열렸다.

2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홍영애씨(불교학과 4)가 최우수상(종정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

5개사찰 정기 합동법회



성룡사(주지 박석구) 삼룡사(주지 김경찬) 명락사(주지 김도원) 명화사·구강사(주지 정월제)는 1일 관문사 4층 대법회장에서 첫 합동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해안 정안사 법당 낙성

해안 정안사(주지 박무안)는 21일 오전 11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40여평의 규모의 법당에는 관음불상이 봉안된다.

무안스님은 "법당 낙성식을 계기로 부처님의 청정한 법음과 광명이 IMF 한파로 경색돼 있는 불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

98년 장학생 33명 확정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2월26일 회의실에서 제170회 원의회를 열고, 98년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

이날 원의회는 회당장학생 30여명과 종비생 3명을 각각 선발키로 합의했다. 또 제8회 진각대학 전문과정 12명과 기초과정 11명에 대한 자격을 사정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관음종

신임 집행부 임명장 수여

총무원(원장 흥파)은 2월24일 논산 관음사에서 신임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종정 대천스님을 비롯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수여식에서 원로의장 및 호법원장 혜웅스님, 총무부장 지섭스님, 교무부장 법명스님 등 총 26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총화종

만경사 국태민안 방생 법회

천안 만경사(주지 청해)는 2월26일 서산 몽산포 자동차경기장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청해스님은 법어를 통해 "국태민안과 IMF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타종

라오스불교회와 결연 추진

총무원(원장 신종석)은 2월25일 회의실에서 간부 연석회의를 갖고, 8월18일 창종 5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결의했다. 또 신년사업으로 6~8월경 중국 기공사 초청 강연회 및 합동법회, 라오스불교회와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봄맞이 산악불심 움튼다

영주불교산악회 3·1절 위기극복 산행법회

'광주' '한밭' 등 전국서 시산제·환경운동

새봄을 맞아 전국 23개 불교산악인회들의 산행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경북 영주불교산악회(회장 김원호)는 1일 도봉산 망월사일대서 '3·1절 기념 산행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서울 원심회, 불이산우회, 금강메아리와 함께하는 첫 합동법회로 치뤄졌다. 망월사에서 산행입제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6살박이 여자아이부터 70대의 할아버지까지 동참한 불자들은 산을 오르며 봄내음을 만끽했다. 특히 정상에 오른 2백50여 회원들은 시방세계 부처님을 향해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즉석 기원법회도 올려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산행에는 어음부도로 경제난을 체험하고 있다는 강모씨(강북구 우이동)도 동참했다. "삼독에 찌든 마음의 때를 땀속에 담아 춘풍에 날려보내고 싶다"는 강씨는 "산사의 부처님을 참배하고 산행을 하니 마음이 후련하다"라며 모처럼 큰 웃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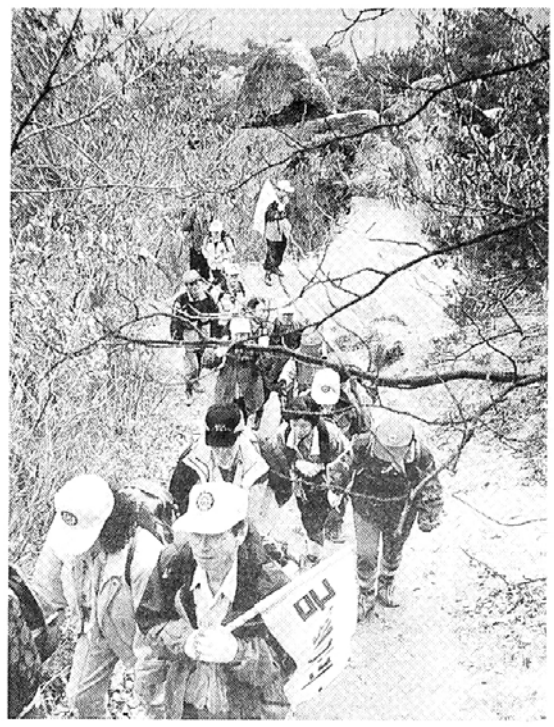
금강메아리 김대원회장은 "IMF 한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늘었다. 산행시 홀로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 나누기'를 올해 산행수칙으로 첨가할 계획이다"라며 산행포교도 적극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산불교산악회는 경남 고성 청량산 문수암, 대전 한밭불교산악회는 운주사일대서, 광주불교산악회는 김제 금산사 일대서 8일 각각 시산제, 산행법회, 환경운동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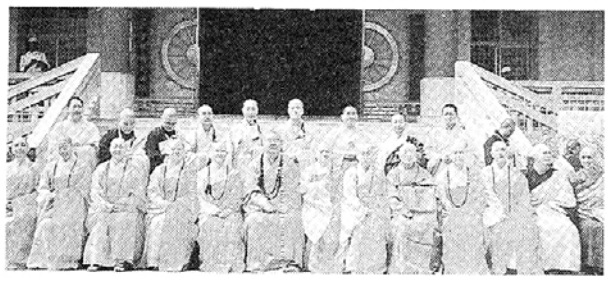
또 전주불교산악회는 11일 임원회의를 갖고 산행지를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산악회가 15일, 22일, 29일 각각 봄맞이 산행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3~4월 산행은 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사가 인접한 봄 꽃길로 산행코스로 잡고 있다. 산악인불자회는 올 봄 산행에서 회원확대를 통한 포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올 춘산에는 불심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영주불교산악회 회원들은 3·1절인 1일 도봉산 산행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수계법회 후 성운스님(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3사 9증사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광우스님.



◀각국 수계승들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다가야 대탑 보리수 아래서 다음 행사 순서를 기다리며 경전을 읽고 있다. 맨앞 사람이 인도의 비구니.

9백년만에 남방비구니 계맥 잇다

인도서 국제삼단대계 32개국 135명 수계

남방불교 비구니 계맥이 다시 이어졌다. 〈본지 161호 22면 참조〉

국제불광회세계총회(총재 성운스님)와 인도마하보디협회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와 대각사에서 '국제삼단대계 계회'를 봉행, 32개국 1백35명에게 비구니계를 수계했다.

수계자 가운데는 11세기 이래 맥이 끊겨 비구니가 없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서도 참가, 9백여년만에 비구니 계맥을 이었다.

이번 수계는 대만 불광사 주지 성운스님이 득계화상(得戒和尙)으로 증명했으며, 한국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 대만 티벳 등의 승랍 60년 이상된 원로들이 3사 9증사로 참석했다.

광우스님은 "비구니 맥이 이어짐으로 승단의 두발이 갖춰진 것"이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이번 수계법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수계법회에 출가 51년만에 비구니계를 수계한 인도 출가자가 있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사찰 금모으기 확산

천태종 한달간 접수

조계사·한마음선원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사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산 삼광사(주지 박덕수)는 2월1일부터 3월 2일까지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 총 2만5천g을 농협 전포동 지점에 전달했다. 또 서울 성룡사(주지 박석구) 삼룡사(주지 김경찬) 명락사(주지 김도원) 명화사·구강사(주지 정월제)등은 1일 관문사에서 가진 합동법회에서 금모으기 행사를 벌여 7천6백41g을 상업은행 우면동 지점에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도 1일 금모으기 행사를 열고, 9천5백64g을 안양시 농협에 전달했다. 조계사도 8일 금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수도원 설법전 천불점안

청주 수도원(주지 보혜)은 15일 설법전 천불 점안식 및 낙성식을 봉행한다.

각종 법회와 연수, 전통문화공간과 수행공간 등으로 이용될 설법전은 92년 지하1층 지상2층 총 6백여평의 규모로 92년 불사를 시작 6년여만에 낙성된다.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청소년 율동실, 1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요사채가, 2층에는 설법전이 들어선다.

익산 제석사지 사적지정 예고

백제무왕때 창건사찰

전북 익산 제석사지가 곧 사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석사지는 익산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289호)에서 동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사지. 93년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의 기단이 확인됨에 따라 축조시기가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거의 동시대임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발굴과정에서 제석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와편이 발견돼 백제 무왕때 제석천을 주존으로 모시는 네불당으로 창건한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기록에 전하는 7층목탑 속의 유물이 왕궁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금관의 금강경과 청색의 맑은 불사리병과 비슷해 제석사가 폐사된 뒤 중창하는 대신 왕궁리 5층석탑을 건립, 그 유물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사암련 임원 개편

회장에 현지스님 선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는 2일 무각사내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1대 회장에 원효사 주지 현지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회장 인터뷰 4면〉 또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에 성호(관음암), 상운(흥룡사)스님을 선출했다. 또 5일 총무에 광민(무각사) 교무에 정인(규봉암) 재무에 명신(연화사) 스님 등이 임명됐다. 이번 새 임원진 구성은 현 회장 상명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제 청소년 수련원 기공

안성 도안사 6천평부지 5백명 수용 규모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는 1일 청소년 수련원 기공식을 가졌다.

99년 12월 완공예정인 청소년 수련원 로트스 유스호스텔은 국제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로트스 유스호스텔은 6천여평 규모에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관, 정서함양관, 명상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청소년 수련센터로 조성된다.

송암스님은 순 흙집으로 지을 예정인 수련원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종교와 상관없이 개방할 방침이다.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8일 백련사서 영결식

도봉 태고종 승정이 6일 오후2시 10분 서울 홍은동 백련사에서 열반했다. 21년 백련사에 경법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58년 백련사 주지, 71년 서울교구 종무원장을 역임했다. 세수 77세, 법랍 67세. 영결식은 8일 백련사에서 봉행됐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잠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보도 :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뇌만증 93.3%, 심장질환자 90.7%, 위염협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1.8%, 고혈압 77.8%, 관절염 4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린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올바지 84%, 혈액 깊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서울일보 보도 :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선입견 자각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奧昆玄 合掌

IMF고민 상담 급증

'자비의 전화' 등에…후원금 · 상담봉사원은 줄어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듯 빚보증이나 전세금문제 등과 다단계판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불자들, 사이비종교단체에 현혹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전화가 전체상담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차지합니다."

IMF시대의 민생고를 호소하는 불자들의 전화상담이 늘어난다는 이성희간사(인천자비의전화)의 설명이다. 어느때보다 전화상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교계 전화상담기관 대부분은 상담원과 후원금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자비의전화 조순자 교육부장도 "부부간의 불화 문제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스님이 될 수 있느냐며 출가를 도피처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화도 하루평균 3~4건이 걸려온다"고 말한다. 대구자비의전화는 최근 몇 달사이 1백여명에 이르던 상담원수가 70여명으로 줄었다. 전화상담은 대부분 40~50대 여성불자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잃으면서 일터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제주자비의전화 경우도 후원금이 월 5만원 정도밖에 걷히지 않고, 상담원도 1명만이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 전화상담기관은 서울 자비의전화(회장 정덕), 인천자비의전화(회장 무찰), 대구자비의전화(회장 고경순), 제주자비의전화(회장 지오)등 4곳. 여기에 사찰차원의 봉은사 봉은상담실, 구룡사 진리의 전화, 불광사 바라밀상담실, 능인선원 법우상담실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는 4월1일 천수천안의전화를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 자비의 전화 신희권국장은 "현재 상담기관들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IMF시대에 교계 모든 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면서 "상담전화 운영주체 확립이 우선돼야하고, 각 전화상담기관의 연합교육을 통한 상담교육표준화·상담사례 현황발표·연수회 정기적인 교류와 연대만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진관사 인근 쓰레기소각장 은평구청 "건립 안한다"

주민반대등 여론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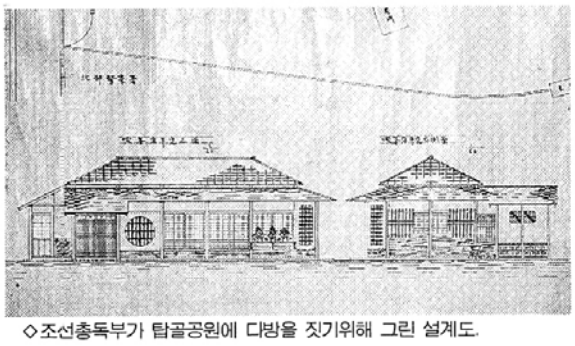
최근 서울 은평구가 추진중인 진관사 1㎞ 인근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입지후보지 조사와 관련 은평구는 "가능한 한 진관사에서 떨어진 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입지후보지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불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입지 후보지 조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면서 "설사 조사가 끝나더라도 주민공람과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소재 사찰 환경이상 없다"
市, 오수정화시설 조사

서울시내 사찰의 쓰레기·분뇨처리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중 시내 사찰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내 사찰은 대부분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중에 위치한 암자는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쓰레기도 대부분 쓰레기 정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선총독부가 탑골공원에 다방을 짓기위해 그린 설계도.

탑골공원 위락시설 설계도 발견

정부기록보존소 "일제 민족정신 말살하려 했다"

조선총독부가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일본식 다방과 야외음악당을 설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선영)는 1일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부터 전국각지의 사찰과 문화재급 건축물을 조사,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들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탑골공원의 설계도를 발견했다. '탑골공원 다방예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8장의 도면은 일제가 탑골공원 서북쪽에 연건평 1백50여평 가량의 다방을, 북동쪽에 야외공연을 위한 20여평의 야외음악당 무대를 각각 설치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계지역 포교의 새 거점으로 단장된 보현사.

도심포교도량 상계동 보현사 '새 단장'

일요-부부법회등 신설

서울 노원구 상계3동 보현사(주지 일관)가 현대식 포교도량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4백20평의 대지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보현사는 1년여만의 불사끝에 새 도량에서 지역포교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 1층에는 극락전과 종무소가, 2층에는 신행단체 법회장, 교양대강의실,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될 부용전, 3층에는 설법전이 들어섰다. 이밖에도 불교용품점, 지하주차장,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됐다.

보현사는 확장이전불사를 계기로 일요법회, 부부법회를 신설하고 불자들이 쉽게 귀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심포교의 새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매일 기도·독경·관세음보살 108 지송, 1주1회 가족법회 등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 가정불교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보현사는 신도회, 어린이회, 학생회, 구역법회(14곳)등 신행단체활동을 비롯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로잔치(년1회), 봉사활동 등 활발한 포교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계종 노숙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복지기금 20억 편성…사찰 역세권별로 지원

불교계가 홈리스(Homeless,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과천청사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노숙자 보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관·종교계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관계자는 "불교계의 무료급식소, 천주교복지재단, 영락교회구호활동 등이 복지부의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홈리스들을 지하철역등 밀집지역에서 강제로 끌어내 부랑인 수용소 등에 수용하는 강제적인 보호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자리 제공과 무료진료, 목욕, 식사·잠자리 제공 등을 종교·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기금 20억원을 기금운영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편성되는데로 적십자사를 통해 종교·민간단체에 급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사회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홈리스대책안을 마련중이다. 조계종은 △교계의 무료급식소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역세권별로 묶어 노숙자를 구호하고 △도심 사찰을 중심으로 무료 점심공양과 숙박 제공을 권유하며 △교계의 각종 '실직자 쉼터'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장관에 종교편향 면담요청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5일 일련의 군내 종교편향 사건과 관련, 천용택 국방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포교원은 "군내 종교편향을 없애겠다는 신임 국방장관의 의지를 확인하고 군종과 관련한 불교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의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또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새 해병대사령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모 소장과 관련, 종교편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교계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모 소장은 지난해 각 중대당 2명씩의 사병을 서울 임마누엘교회 성령수련대회에 참석케 했다.

목탁소리

Y寺의 고민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경북 경산의 Y사 주지스님과 사중스님들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 소속사찰 행자들의 행자교육 입방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각종 증명의 발급과 교육혜택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선학원 소속 포교원인 Y사는 여러가지로 난처했던 것이다.

결국 주지스님은 선학원에서 탈원하기로하고 탈원공고를 냈다. 선학원 재단에 명의 등록만 한 상태여서 다소 손실을 감내하고 종단으로 사찰을 등록하는 쪽을 택했다. 재단과 종단의 갈등구조 속에서 10여명에 이르는 행자와 학승들의 앞길에 혼선을 줄수 없다고 판단한 것.

조계종 총무원은 선학원 소속 포교원 중 상당수가 종단으로 사찰을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단이 취하고 있는 각종 제한 조치들이 개별 사찰들에는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총무원은 재단법인 보현회가 최근 소속 사찰들을 종단에 등록하기위해 재산을 조계종 재단인 중앙교원에 증여키로, 재단해산을 문화관광부에 법인해산 신청을 한데도 상당히 고무받고 있다.

선학원 재단은 일부 포교원들의 탈원 사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선학원을 탈원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의 상담과 재단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종단의 현실적 규제에 쉽게 탈원을 결정해 버리는 포교원이 늘어날까 염려하는 것이다. 선학원은 재산과 명의를 함께 등록한 분원이 3백20여개, 명의만 등록한 포교원이 2백30여개로 이뤄져 있다.

명의등록만 한 포교원들이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구조 속에서 거취문제로 고민하는 대상인 셈이다.

재산까지 등록한 분원들은 재산을 환수받기 힘든 법적인 문제로 탈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찰은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다. 소속 종단과 재단의 갈등구조 속에서 그 순수 기능에 장애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손실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루속히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스 & 뉴스

조계종 '불교교리' 고불식

불교의 교학체계와 근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교교리〉가 조계종포교원에 의해 발행됐다.

이 책은 포교원이 96년 펴낸 〈불교입문〉에 이은 불자교육교재 제2권으로 입문교육을 마친 불자들을 위해 편찬됐다. △종교의 이해 △불교와 종교 △인도문화와 불교의 특성 △불교의 근본교리 △중국과 한국의 불교 △불교의 실천윤리 등 모두 6장으로 구성했다.

포교원은 〈불교교리〉 출판고불식을 17일 오후5시 조계사대웅전에서 봉행한다. 이후 각 사찰에 배포해 5계를 수지한 불자들의 교육교재로 사용케 할 방침이다.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경제난국으로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불자들을 위한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를 백양사 참사람수행관에서 실시한다. 오는 23일~27일 1차 단기출가수련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단기출가수련회는 어떻게 살것인가·불교수행법·건강한 삶·전통문화의 이해와 올바른 인생관 등의 강의와 참선, 발우공양, 기도, 포행, 운력 등의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85)92-7502

'북주민 식량난 실태' 발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본부장 법륜스님)는 참여사회연구소(소장 김대환)와 공동으로 13일 종로성당에서 '탈북주민 4백72명 면담조사'에 대한 학술회의를 연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법륜스님이 '탈북주민 4백72명 면담조사 결과와 최근 북한 주민의 식량난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씨가 '북한 동포돕기를 위한 민간정부 언론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코끼리상대신 '卍'자 조형물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정각원 법당앞에 있던 상징물 '코끼리상'을 '만(卍)'자를 상징하는 현대적 조형물로 바꿨다. 〈사진〉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정각원 법당 앞 코끼리상을 철거하고 2월10일 미술학과 조승환교수가 제작한 '만(卍)' 상징물을 설치했다.

코끼리상은 1971년 당시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뜻을 모아 설치한 것. 현재 명진관 앞 화단으로 옮겨져 있다.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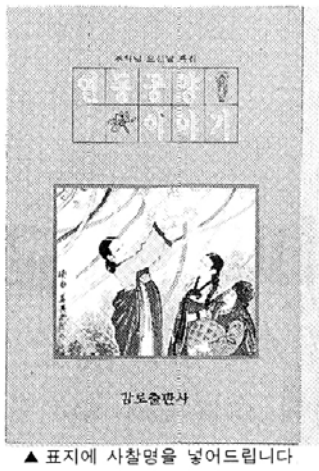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 록 내 용 ◈

- 봉축 발원문과 봉축 법어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어/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 부처님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처님의 탄생이야기/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 등을 밝히며
  등을 밝히게 된 유래/등의 종류/등을 밝히는 행사들
- 관불의식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 등공양의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특가/1,500원
◆ 크기/신국판, 64페이지

※ 농협 온라인번호
053-01-127096
(예금주 : 선 문 빈)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0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한불교 조계종 조 계 사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부처님오신날

▲ 어 깨 띠



〈일반〉 〈고급〉

▲ 리 본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 격 표 ◈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고 급		330원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동성재 미륵불

가뭄에 비내린 영험석불

■ 석불연구회 제보·답사

가야산국립공원 백운동 동성봉 팔부능선에 미륵불이 있다.

거대한 너럭바위밑 약간 붉은색을 띤 바위에 예쁘장하게 새긴 이 미륵불은 2m 정도의 키에 6㎝의 육계, 목까지 늘어진 귀, 삼도가 표현된 목, 허리는 잘록하고 얇은 법의를 두르고 있다. 수인은 통인을 표현하듯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였고 왼손은 여원인으로 돼 있다. 미륵불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뭉개져 성한곳이 없으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게 처리되었다.

동성재 미륵불에는 다음과 같은

오른손 시무외인 형상
손가락·코 등 뭉개져
전통 불상양식과 달라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다.

어느해 가뭄이 들어 걱정이 태산이었다.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거사가 동성재 백운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우불공을 드렸다. 그는 어느날 아내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가족은 물론이고 모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소. 내가 동성재 바위에 다 정성을 다해 미륵불을 새길 터이니 하산할 때까지 나를 찾지 마시오."

젊은 거사는 그길로 가야산에 올라가 동성재 바위에 미륵불을 새기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백운계곡에는 날마다 정소리가 들렸다. 하루이틀, 한달 두달이 지나 석달째 되는 날 젊은 거사의 마음속에 있던 미륵불이 바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한낮이었음에도 천지가 깜깜한 암흑으로 변하고 소나기가 내렸다. 그후로 바위를 쪼는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녀가 젊은 거사를 찾아 동성재 미륵불앞에 왔을 때는 정 하나와 쇠망치만 남아 있었다. 모녀가 젊은거사를 찾았지만 그 모습이 묘연했다. 모녀는 미륵불에 절을 한뒤 집으로 가지않고 해인사로 가 입산출가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서현 답사부장은 "위치상 암자나 사찰이 없었던 곳이어서 학술적 고증을 통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기법과 과정, 절차로 조성된 것이 아닌 전형적인 불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가야산 동성봉 팔부능선의 미륵불.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삼송리 밥할머니상

정영호박사 고증



삼송리 밥할머니상(본지 160호 11면 보도)은 수인과 우견편단을 한 법의와 왼쪽 팔에 걸친 법의로 보아 고려전기에 조성된 약사여래불이 확실하다. 화강암의 석질이 좋고 손가락부분이 마모되긴 했으나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하다. 또 양쪽어깨에서 내려오는 팔이 유난히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고려 약사여래불 확실
불두복원 지방문화재로

불두가 없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해 유형문화재 지정은 어려우나 보존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각을 지어 실내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려양식의 불상을 본떠 불두를 복원한뒤 고양 관내 사찰로 옮겨 성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존 방법으로 사료된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방송단신

조계종 '자비의 탁발'
btn, BBS 13일 생중계

불교TV와 불교방송은 조계종 총무원이 13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는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 행사를 2시간 동안 현장 생중계 방송한다.

청정과 무소유의 정신이 담겨 있고 거룩한 수행의 방편으로 중생구제를 다함없이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상인 탁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따라 사회적 자비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를 선포식이 열리는 조계사 대웅전에서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에 이르까지 전 일정을 카메라와 마이크가 같이 이동하며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IMF 극복방법 소개
BBS 열반재일 특집

불교방송은 불교명절인 열반재일(13일)을 맞아 12, 13일 오후 5시10분부터 6시까지 경제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불교적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는 '특집, 연꽃으로 피어나라(PD 박상필)'를 방송한다.

부처님께서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극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은 열반재일. 이날을 기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불교계에서 시도하는 IMF 극복운장을 탐방하고 3박4일의 단기 출가체험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의 안내도 곁들인다.

또 불교경전에서 찾아보는 IMF 극복방법도 소개된다.

불교TV 26일 주총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26일 오후2시 구룡사에서 제4차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월2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된 '97 회계연도 결산' '회장직제 신설로 인한 일부 정관개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대주주였던 태응스님이 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회장직제를 신설, 태응스님을 회장으로 위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신행수기 당선작

아니, 미국까지 와서 ②

특별상〈종단협회장상〉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민생활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내부에서 얻은 한국적 기독교정신(?)에서 나온 열성적인 믿음으로 두꺼운 벽을 치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깡그리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이 과연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꽃피우고 있는지 한번쯤 스스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은 내가 불자라서만은 아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보살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가! 인간의 감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입는 이가 기독교인이고,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불교인일 것이다. 나의 믿음만이 최고라는 법은 없을진데….

가끔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사가는 중년여인. 어느날 그녀는 내가 불자임을 알고서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머머… 미국까지 와서 불교라니!"라고 한마디하며 어이없어하던 그녀는 금방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이민생활의 이모저모와 현실에 맞는 믿음을 가지라며 훈계를 한다.

신앙이란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에 큰 역할을 한다. 아니 전부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종교는 없었지만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내온 나의 20대. 22년전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나는 어디를 둘러봐도 생소했던 주위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겹치게 되어 무척 힘들었다. 그때 원불교라는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았다. 교무님과의 인간적 교류에서 포근한 모성애를 느꼈다. 나름대로 내 삶의 지표로 삼았던 법칙과 우주 진리의 질서가 그곳 교리에 정리되어 있음을 보았다.

나는 불교를 그렇게 만났다. 이후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재의 삶에 이르게 한 과거의 삶을 자주 생각해 본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도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대로 머물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랑으로 맺어졌던 첫남편과는 딸아이 하나를 낳고 헤어졌다. 그 아이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생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5년을 살았다. 오직 부처님만이 삶의 의지처였다.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 온갖 일들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그림 · 이준석

그후 재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다. 12년간의 결혼생활은 순탄했고, 행복했고, 안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밝은 미래도 설계했다. 거의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민생활의 갖가지 궂은 일거리들을 무난하게 헤치고 현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데도 궁색떨지 않을만큼 자족도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순조롭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어찌 힘들지 않으리. 다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못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성공한 이민가족의 전형적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던 내가 5년전 이혼을 당했다. 이혼했다는 말은 내 경우에 맞지 않다. 5년전 한국에서 온 시누이, 8년전에 오셔서 3년동안 밥 문제없이 함께 지냈던 시어머니, 그리고 애들 아빠는 내가 한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짓고 이혼을 강요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난 비켜 서기로 했다. 비켜서는 일은 이혼장에 사인하는 일이었다.

지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있던 당시의 내가 부처님 인연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아마 살인자가 되었거나,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 무명속에 갇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 8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 통화료 할인은 서비스에 따라 다름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소리가 보인다

PCS 016